ISSN 3092-4448

# KIET 산업 인사이트

2026년 3월호 통권 제3호



## 지역산업편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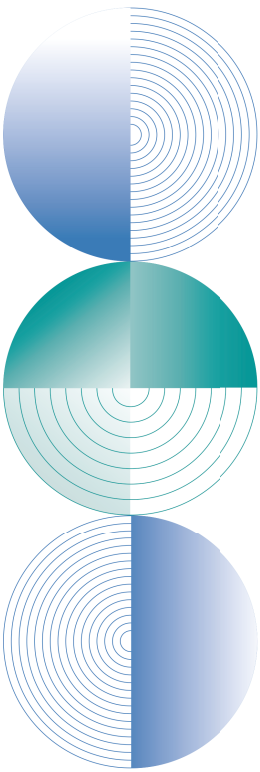
KIET Industrial Insight 산업연구원

KIET

# 산업 인사이트

2026년 3월호 통권 제3호

## 지역산업편



# 차례


02 서울특별시
07 부산광역시
12 대구광역시
17 인천광역시
22 광주광역시
27 대전광역시
32 울산광역시
37 세종특별자치시
42 경기도
47 강원특별자치도
52 충청북도
57 충청남도
62 전북특별자치도
67 전라남도
72 경상북도
77 경상남도
82 제주특별자치도

# 서울특별시

- **(산업활동)** 제조업 생산 감소 속 서비스업 성장 지속, 제조업 심리는 제한적 회복 및 서비스업 중심 창업 증가
- **(소비활동)** 생활물가는 상승하였지만, 소비 실적이 소폭 개선되고 위축된 체감경기도 회복 흐름
- **(고용시장)** 전 산업 취업자 감소와 고용 수급 악화로 고용시장 둔화 지속
- **(대외거래)** 수출 부진, 외국인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활발하여 상반된 양상
- **(주요소식)** AI·반도체·양자 등 전략산업 투자 확대; 창업·R&D·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혁신생태계 강화 지속

## 산업활동

### □ (생산) 제조업 생산은 -6.1%로 감소세 지속, 반면 서비스업은 5.2%로 증가세 지속

- (제조업) 2025.4분기 기준 지역 주력 업종인 전자부품 생산이 증가로 전환되었지만, 화학물질, 식료품 등에서 생산 감소가 확대되며 제조업 전체 생산은 감소세 지속

– 전자부품(41.7%), 의복(9.9%), 기타 제품(7.5%) 업종은 생산이 증가했으나, 화학물질(-31.8%), 식료품(-16.7%), 섬유제품(-13.6%) 업종은 부진

- (서비스업) 2025.4분기 기준 지역 서비스업의 경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의 성장에 힘입어 전체 생산은 증가세가 지속(5.2%)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소폭 감소한 가운데(-0.9%), 금융·보험업(6.1%), 도·소매업(4.7%), 정보통신업(3.6%) 등에서 생산 증가 폭이 확대

**산업생산 동향**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제조업 전체 | -5.8 | -4.2 | -5.8 | -7.2 | -4.7 | -6.1 | -6.1 |
| 의복 및 모피 | -18.8 | -8.3 | -4.7 | 6.6 | 12.4 | 9.9 | 6.0 |
| 전자부품 영상음향통신 | -3.7 | -16.7 | -10.5 | -7.3 | -3.9 | 41.7 | 4.7 |
| 기타 제품 | 11.9 | -1.6 | -10.9 | -21.2 | -63.6 | 7.5 | -31.4 |
| 인쇄 및 기록매체 | -6.1 | -8.3 | -8.9 | -12.4 | 1.0 | 0.1 | -5.1 |
| 화학물질 및 제품 | -33.2 | 4.4 | 20.1 | 4.1 | 1.1 | -31.8 | -3.8 |
| 기타 기계 및 장비 | -14.1 | -9.5 | 0.8 | -16.3 | -4.8 | -0.8 | -5.8 |
| 섬유제품 | -18.8 | -1.5 | 13.0 | 3.1 | -14.4 | -13.6 | -3.3 |
| 식료품 | 16.3 | 19.8 | -6.2 | -8.2 | -4.6 | -16.7 | -8.8 |
| 의료·정밀·광학기기 | 7.6 | -14.7 | -21.5 | -27.5 | -5.1 | -13.2 | -18.3 |

서비스업

| 서비스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서비스업 전체 | 6.3 | 1.5 | 1.1 | 2.7 | 6.0 | 5.2 | 3.8 |
| 금융·보험업 | 8.0 | 4.9 | 2.0 | 2.9 | 4.8 | 6.1 | 4.0 |
| 도·소매업 | -1.1 | -3.3 | -1.1 | 1.6 | 8.7 | 4.7 | 3.4 |
| 정보통신업 | 2.6 | 0.4 | 0.7 | 5.0 | 10.1 | 3.6 | 4.9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 1.2 | -2.0 | -0.9 | -6.5 | -0.5 | -0.9 | -2.4 |
| 운수·창고업 | 30.6 | 5.6 | 0.4 | 3.1 | 2.7 | 9.7 | 4.0 |
| 부동산업 | 20.0 | 4.1 | 7.6 | 14.1 | 10.5 | 10.5 | 10.7 |
| 보건 및 사회복지 | 7.0 | 1.8 | 3.1 | 7.7 | 7.5 | 8.0 | 6.6 |
| 사업 지원서비스 | -0.8 | 1.6 | 0.9 | -1.6 | 4.9 | 4.6 | 2.2 |
| 숙박 및 음식점업 | 6.0 | 1.0 | -1.3 | -1.0 | 6.3 | 2.8 | 1.7 |

자료: 국가데이터처.

## □ (기업 경기) 제조업 업황은 위축 국면이나 회복 흐름, 비제조업은 전 분기보다 악화

- (제조업) 2025.4분기 제조업 업황은 여전히 기준선(100)을 하회하면서 위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전 분기 대비로는 개선되며 회복 흐름

- 2025.4분기 제조업 업황 개선에는 신규 수주(92.0 → 97.5), 생산(102.2 → 107.1), 자금 사정(85.6 → 90.3) 등의 개선이 기여

- (비제조업) 비제조업 업황은 위축 국면 속에서 2025.4분기 들어 전 분기보다 악화

- 비제조업 업황의 악화(89.3 → 87.6)에는 매출(95.9 → 94.2), 채산성(93.3 → 90.6), 자금 사정(90.9 → 90.0) 모두 악화하는 것에 기인

### 기업 경기 동향

| | 2024 | | | | 2025 | | |
|---|---|---|---|---|---|---|---|
|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제조업 업황 BSI | 73.6 | 81.1 | 86.3 | 비제조업 업황 BSI | 83.2 | 89.3 | 87.6 |
| 제조업 생산 BSI | 111 | 102.2 | 107.1 | 비제조업 매출 BSI | 83.6 | 95.9 | 94.2 |
| 제조업 신규 수주 BSI | 93.5 | 92 | 97.5 | 비제조업 채산성 BSI | 84.4 | 93.3 | 90.6 |
| 제조업 제품 재고 BSI | 110.6 | 113.5 | 112.7 | 비제조업 자금 사정 BSI | 83.8 | 90.9 | 90 |
| 제조업 자금 사정 BSI | 80.2 | 85.6 | 90.3 | | | | |

자료: 서울연구원.
주: 분기 자료는 월별 자료를 단순 평균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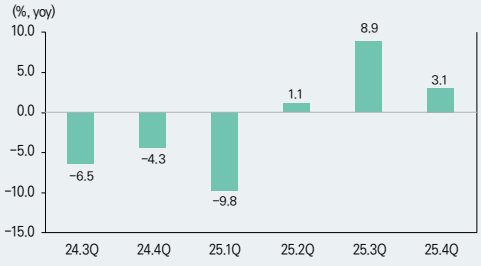
## □ (창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견조한 창업 증가세

- 2025.4분기 기준 전국 창업기업은 감소로 전환(-3.6%)한 반면, 서울은 지난 분기의 증가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3.1% 늘어난 5만 2,368개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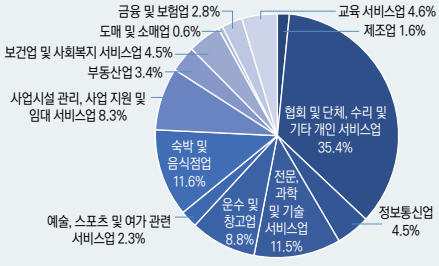
- 서비스업이 4만 9,980개사(95.4%), 제조업이 815개사(1.6%)를 기록한 가운데, 서비스업 내에서는 특히 협회 및 단체, 기타 서비스업(35.4%)과 숙박 및 음식점(11.6%) 비중이 높은 순위

### 기업 창업 동향

창업기업 수 증감 추이




창업기업 업종 비중(2025. 4분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소비활동

## □ 생활물가는 상승하였지만, 소비 실적이 소폭 개선되고 위축된 체감경기도 회복 흐름

- (소매점 판매) 2025.4분기 기준 대형소매점과 대형마트 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와 감소로 나뉘었지만, 전 분기와 비교해서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판단

– 대형소매점 판매는 지속되던 감소가 증가로 전환하였고, 대형마트는 여전히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 분기에 비해서는 둔화한 양상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전년동기비): △2.1%('25.2Q) → △0.4%('25.3Q) → 2.5%('25.4Q)

* 대형마트 불변지수(전년동기비): △2.6% → △8.1% → △3.7%

- (소비자 물가) 2025.4분기 생활물가지수는 연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다행히 전국 수준보다는 낮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식품 물가는 3.7%에 달하는 높은 상승률로 물가 상승을 주도한 반면 전월세는 안정적 기조 유지

*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전국] 2.1%('25.2Q) → 2.0%('25.3Q) → 2.4%('25.4Q)
[서울] 2.1% → 1.8% → 2.2%

*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식품] 2.9%('25.2Q) → 3.1%('25.3Q) → 3.7%('25.4Q)
[식품 이외] 2.1% → 1.3% → 1.8%
[전월세] 1.1% → 1.2%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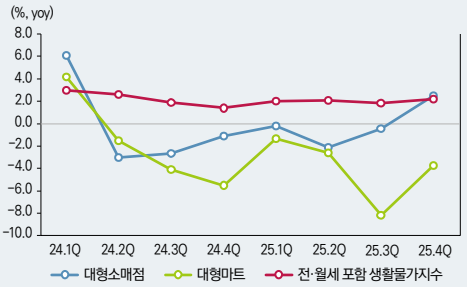
- (소비 체감) 2025.4분기 기준 소비자의 경기와 생활 형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비관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상반기 대비 회복되고 있으며,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경기 체감도도 유사한 양상

* 소비자 상황 인식 CSI: [경기 판단] 47.8('25.2Q) → 72.1('25.3Q) → 71.7('25.4Q)
[생활 형편] 93.7 → 95.9 → 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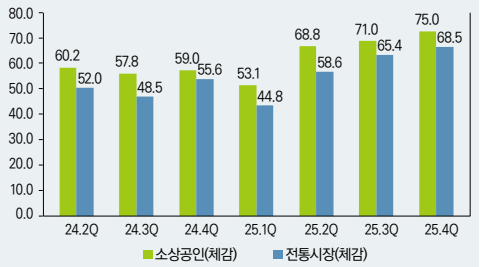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지수: [소상공인] 68.8('25.2Q) → 71.0('25.3Q) → 75.0('25.4Q)
[전통시장] 58.6 → 65.4 → 68.5

**소비활동 동향**

대형소매점/대형마트 판매액지수/생활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소비자심리지수/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지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시장

## □ 취업자 감소와 고용 수급 악화 속 전반적인 고용시장 둔화 흐름 지속

• (일자리) 2025.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제조업(-1.7%), SOC 및 기타 서비스업(-0.1%) 등 전 부문에서 감소하며,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1만 2,000명 감소

-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임금근로자는 모두 감소하였고, 구인배율 등 고용시장의 수급 여건도 악화

  * 취업자 증감(천 명): [상용근로자] △27('25.2Q) → 17('25.3Q) → △9('25.4Q)
  [임시·일용근로자] △23 → △13 → △40

  * 구인배수: 0.36('25.2Q) → 0.44('25.3Q) → 0.39('25.4Q)

• (고용률·실업률) 고용률과 실업률 각각 연중 상승 또는 하락 후 개선되다가 2025.4분기 모두 전 분기보다 악화

- 생산가능인구로는 안정적이나, 청소년 고용률은 개선되지 못하는 등 세대 간 일자리 문제 고착화

**고용시장 동향**

취업자 수

| 업종 (천 명, %, 전년동기비) | 2024 | 2025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5,228 (1.0) | 5,113 (-1.9) | 5,219 (-0.6) | 5,260 (0.4) | 5,201 (-0.3) | 5,198 (-0.6) |
| 농림어업 | 4 (0.0) | 1 (-83.7) | - - | - - | - - | 0 (-100.0) |
| 제조업 | 466 (-1.5) | 385 (-22.4) | 378 (-25.6) | 398 (-11.0) | 404 (-1.7) | 391 (-16.1) |
| SOC·서비스 | 4,759 (1.3) | 4,726 (0.3) | 4,841 (2.2) | 4,861 (1.6) | 4,796 (-0.1) | 4,806 (1.0) |

고용률 및 실업률

| 연령 (%) | | 2024 | 2025 |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고용률 | 61.7 | 60.4 | 61.8 | 62.3 | 61.6 | 61.5 |
| | 실업률 | 3.0 | 4.5 | 3.7 | 2.5 | 2.8 | 3.4 |
| 청년 고용률 (15~29세) | | 51.2 | 48.2 | 50.2 | 49.8 | 48.2 | 49.1 |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15~64세) | | 70.4 | 69.0 | 70.2 | 70.8 | 70.0 | 70.0 |

자료: 국가데이터처.

#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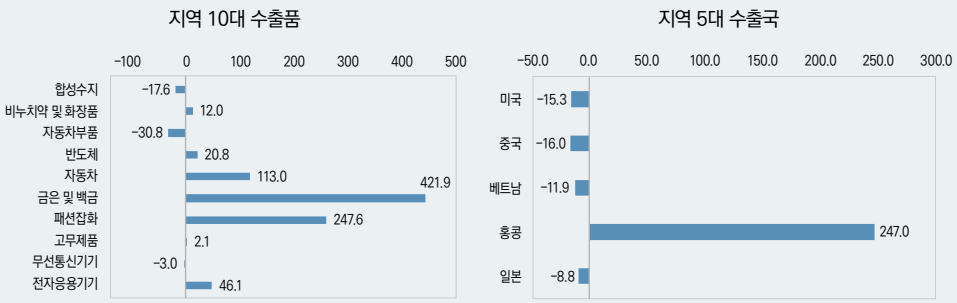
## □ 수출 부진, 외국인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활발하여 상반된 양상

• (수출) 2025.4분기 서울지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1% 감소한 가운데, 자동차부품 및 합성수지가 부진

- 금은 및 백금(421.9%), 패션잡화(247.6%), 자동차(113.0%) 수출 실적이 급등했지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합성수지(-17.6%)와 자동차부품(-30.8%) 부진이 컸고, 홍콩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수출 감소

**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2025.4분기 서울지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신규 법인 수 기준)는 483개사로 전년 동기비 약 20% 증가하여 활발한 활동

- 331개사(68.5%)가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투자하였고, 대상 국가는 아시아(48.7%), 북미(29.8%) 순이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25개사), 금융·보험업(76개사), 정보통신업(66개사) 등 서비스업이 다수

- (외국인투자) 2025.4분기 서울지역으로의 외국인투자(최초 등록 기업 수 기준)는 205개사로, 전년 동기비 15.6% 감소하며 3분기 연속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

- 아시아(59.1%)가 가장 높았고, 주요 투자 업종은 도·소매업(93개사, 45.4%)이 가장 큰 비중 차지

## 주요 소식

- 프랑스 양자컴퓨팅사(社) '파스칼' 유치로 AI·반도체 이어 양자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추진
- 'AI 인재 페스티벌 위크' 개최를 통해 AI 얼라이언스가 출범하고 산학연 협력 기반 강화 추진
- CES 2026 혁신상 27개 수상을 계기로 서울 창업·산업 생태계의 전 주기 성장체계 구축 성과 확산
- 서울형 R&D를 통해 기술 개발을 넘어 시민 일상 및 산업 현장에 성과를 확산하는 실증·사업화 체계 강화
- '서울 브랜드 굿즈 공모' 개최를 통해 소상공인 참여 기반 서울 브랜드 상품 개발 및 판로 확대 추진

이동규 |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원 | 044-287-3804 | idkyu207@kiet.re.kr

# 부산광역시

- **(산업활동)** 산업생산은 제조업이 5.4% 감소로 전환한 반면, 서비스업은 2.6% 증가하며 4분기 연속 증가
- **(소비활동)** 소비 개선이 더디고, 물가 상승세 속에 소상공인 경기 악화 체감도는 지속
- **(고용시장)** 제조업 고용 증가가 전체 고용 지지, 청년층 고용 미스매치 지속으로 고용 회복의 저변 확대는 미흡
- **(대외거래)** 자동차 급감과 선박 수출 조정이 맞물리며 전체 수출은 마이너스로 전환
- **(주요소식)**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본격 가동

## 산업활동

### □ (생산) 산업생산은 제조업이 5.4% 감소로 전환한 반면, 서비스업은 2.6% 증가하며 4분기 연속 증가

- (제조업) 2025.4분기 기준 조선 등 기타 운송장비 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나머지 주력 업종의 부진이 상대적으로 커서 제조업 전체 생산은 감소로 전환

– 글로벌 조선 경기 호황에 따라 기타 운송장비(34.7%)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자동차 및 트레일러(-34.2%), 금속 가공제품(-10.6%), 기타 기계 및 장비(-5.0%) 등 다수 업종이 부진

- (서비스업) 2025.4분기 기준 정보통신업과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이 부진했지만 주요 전략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 등의 성장세 확대로 전체 생산은 2.6% 증가를 시현

– 부산 물류·항만 산업의 근간인 운수·창고업은 3.4% 증가하며 물동량 회복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전략산업인 금융·보험업도 성장세를 이어 나가는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은 내수 부진과 관광·마이스(MICE) 산업과 연계된 지역 내 숙박 수요 회복이 여전히 더딘 상황

**산업생산 동향**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제조업 전체 | -6.2 | 3.2 | -0.4 | -4.1 | 2.4 | -5.4 | -2.0 |
| 기타 기계 및 장비 | -3.8 | 8.3 | 4.5 | -0.7 | -0.9 | -5.0 | -0.7 |
| 1차 금속 | 6.7 | -7.1 | 2.0 | -9.4 | 9.1 | -1.3 | -0.3 |
| 금속 가공제품 | 12.4 | -0.4 | -11.9 | -11.4 | -0.8 | -10.6 | -8.8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13.4 | 4.9 | 11.0 | 9.2 | 16.6 | -34.2 | -2.4 |
| 식료품 | -12.0 | 4.3 | 18.3 | 11.6 | 13.7 | -1.7 | 10.0 |
| 전기장비 | 5.1 | -2.2 | -5.5 | -6.7 | -1.7 | 2.1 | -3.0 |
| 기타 운송장비 | 10.2 | 8.4 | -16.7 | -19.6 | -24.3 | 34.7 | -9.0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2.5 | 6.7 | -4.5 | -1.5 | 5.1 | -7.1 | -2.2 |
| 섬유제품 | -21.7 | 17.2 | 7.0 | 9.0 | 8.9 | 8.3 | 8.4 |

서비스업

| 서비스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서비스업 전체 | 1.2 | 0.7 | -0.7 | 2.3 | 4.4 | 2.6 | 2.2 |
| 도·소매업 | 0.3 | -2.7 | -0.3 | 1.2 | 7.6 | 5.9 | 3.5 |
| 금융·보험업 | 5.4 | 1.8 | -0.2 | 3.2 | 6.7 | 1.6 | 2.8 |
| 운수·창고업 | -5.2 | 6.8 | 3.0 | 1.4 | 3.5 | 3.4 | 2.8 |
| 부동산업 | 12.7 | -4.8 | -1.7 | 15.6 | 5.9 | 5.2 | 6.1 |
| 보건 및 사회복지 | 4.3 | 3.8 | 4.3 | 4.4 | 4.8 | 5.8 | 4.8 |
| 숙박 및 음식점업 | -3.5 | 0.9 | -0.5 | -1.6 | 1.0 | -0.1 | -0.3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 -19.5 | 0.7 | -1.8 | 7.6 | 2.9 | -3.4 | 1.3 |
| 교육서비스업 | -1.3 | 1.6 | -6.4 | -1.8 | -6.0 | 2.6 | -3.2 |
| 시설관리·지원·임대 | 11.8 | 0.3 | -5.7 | -6.1 | -2.4 | 4.1 | -2.5 |

자료: 국가데이터처.

## □ (기업 경기) 제조업은 전 분기 대비 하락, 비제조업은 소폭 상승하며 완만한 회복 국면 지속

- (제조업) 2025.4분기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0.8로 전 분기(92.2) 대비 1.4p 하락하며 하강 국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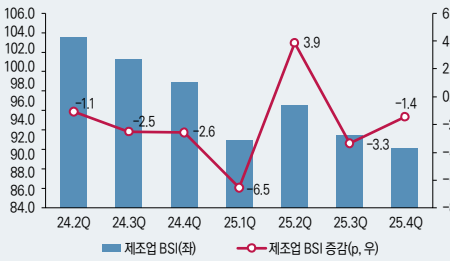
- 제조업 심리 하락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성 및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자동차 및 금속 관련 기업들의 업황 악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

- (비제조업) 서비스업 기업심리지수는 2025.1분기 저점을 기록한 후, 2~3분기 연속 반등하며 93.8까지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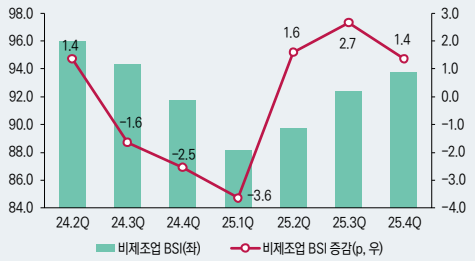
- 내수 소비 부진과 인건비 상승 부담에도 정보통신업 및 전문서비스업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 시현

**기업 경기 동향**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분기 자료는 월별 자료를 단순 평균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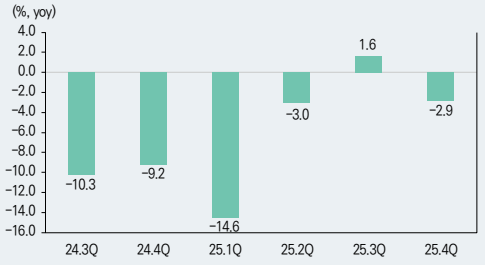
## □ (창업) 전체 창업기업 수는 감소로 전환하였고, 서비스업 창업도 부진

- 2025.4분기 기준 부산의 전체 창업기업 수는 1만 3,967개사로 전년동기비 2.9%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 창업기업 수는 436개사로 전년동기 대비 15.2%나 감소하였고, 서비스업은 1만 2,811개사로 2.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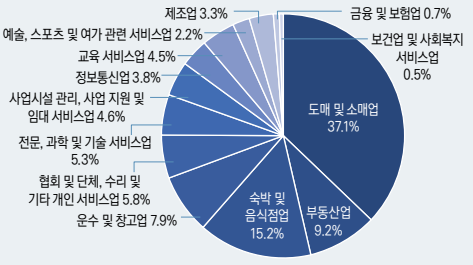
- 도·소매업(37.1%)이 창업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15.2%), 부동산업(9.2%) 등이 주요 창업 업종

**기업 창업 동향**

창업기업 수 증감 추이




창업기업 업종 비중(2025. 4분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소비활동

## □ 소비 개선이 더디고, 물가 상승세 속에 소상공인 경기 악화 체감도는 지속

- (소매점 판매) 2025.4분기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동기비 0.8%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대형마트는 부진 지속

–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 분기(-2.2%)와 비교하여 개선되며 소폭 플러스로 전환하였으나, 대형마트 판매(-3.5%)는 감소세를 이어가며 소비 회복의 온기가 고르게 확산되지 못하는 모습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전년동기비): △3.5%('25.2Q) → △2.2%('25.3Q) → 0.8%('25.4Q)

* 대형마트 불변지수(전년동기비): △3.3% → △8.6% → △3.5%

- (소비자 물가) 2025.4분기 생활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2.3% 상승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 생활물가(2.3%) 수준은 전 분기(2.2%)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가계의 실질 구매력 저하를 일부 완화

*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전국] 2.1%('25.2Q) → 2.0%('25.3Q) → 2.4%('25.4Q)
[부산] 2.3% → 2.2% → 2.3%

*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식품] 3.3%('25.2Q) → 4.3%('25.3Q) → 3.7%('25.4Q)
[식품 이외] 2.2% → 1.3% → 1.8%
[전월세] △0.1% → 0.0% →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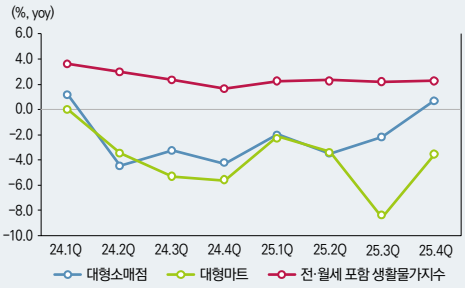
- (소비자 심리) 2025.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113.9로 전 분기(113.8) 수준을 유지하며 높은 수준이 지속된 반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부진

* 소비자심리지수: 103.2('25.2Q) → 113.8('25.3Q) → 113.9('25.4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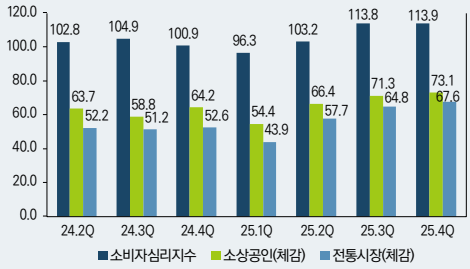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지수: [소상공인] 66.4('25.2Q) → 71.3('25.3Q) → 73.1('25.4Q)
[전통시장] 57.7 → 64.8 → 67.6

**소비활동 동향**

대형소매점/대형마트 판매액지수/생활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소비자심리지수/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지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시장

### □ 제조업 고용 증가가 전체 고용 지지, 청년층 고용 미스매치 지속으로 고용 회복의 저변 확대는 미흡

- (일자리) 2025.4분기 제조업은 전 분기에 이어 취업자 수 증가세를 유지(9,000명)했으나, 건설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

-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동기비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둔화한 가운데, 고용시장 수급 상황은 일정 수준 유지

  * 취업자 증감(천 명): [상용근로자] 69('25.2Q) → 63('25.3Q) → 33('25.4Q)
    [임시·일용근로자] △21 → △25 → △2

  * 구인배수: 0.32('25.2Q) → 0.35('25.3Q) → 0.36('25.4Q)

- (고용률·실업률) 고용률은 연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보다 낮은 상황

- 2025.4분기 기준 고용률은 연간 수준과 유사한 58.5%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 고용률(44.5%)은 연간 수준보다는 소폭 높았지만 전년에 비해 약 2%p가량 낮은 수준 지속

**고용시장 동향**

취업자 수

| 업종 (천 명, %, 전년동기비) | 2024 | 2025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1,688 (-0.2) | 1,672 (-0.2) | 1,714 (1.3) | 1,705 (0.2) | 1,699 (1.0) | 1,689 (0.6) |
| 농림어업 | 19 (-13.6) | 12 (-36.8) | 11 (-38.9) | 11 (-52.2) | 12 (-25.0) | 12 (-36.8) |
| 제조업 | 232 (5.0) | 256 (15.8) | 251 (11.6) | 244 (3.8) | 239 (-3.6) | 248 (6.9) |
| SOC·서비스 | 1,437 (-0.8) | 1,404 (-2.2) | 1,452 (0.3) | 1,451 (0.5) | 1,448 (2.0) | 1,439 (0.1) |

고용률 및 실업률

| 연령 (%) | | 2024 | 2025 |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고용률 | 57.8 | 57.4 | 58.9 | 58.7 | 58.5 | 58.4 |
| | 실업률 | 3.0 | 3.6 | 2.5 | 2.1 | 2.8 | 2.8 |
| 청년 고용률 (15~29세) | | 46.1 | 43.8 | 44.0 | 44.1 | 44.5 | 44.1 |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15~64세) | | 66.9 | 66.9 | 68.3 | 68.4 | 68.7 | 68.1 |

자료: 국가데이터처.

##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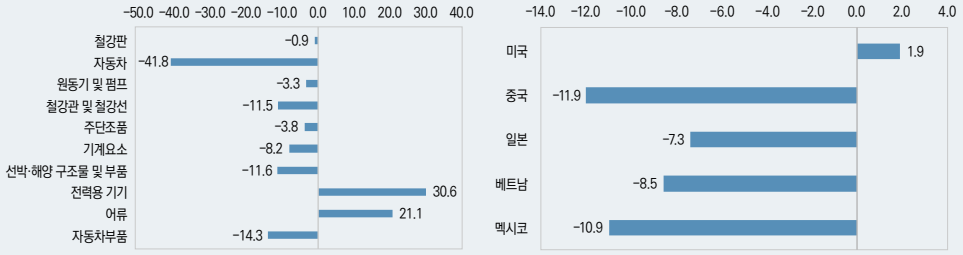
### □ 자동차 부진으로 수출은 감소로 전환, OFDI는 현지시장 진출, IFDI는 아시아 기업 투자가 주도

- (수출) 2025.4분기 지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며 지난 2~3분기의 회복세에서 감소로 전환

-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11.6%) 수출이 조정기에 들어가고 자동차(-41.8%) 등 주요 수출 품목이 동반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국가별로는 미국(1.9%)으로의 수출만 소폭 증가

**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2025.4분기 해외직접투자는 33건으로 전 분기(37건) 대비 감소, 전년동기비(20건) 증가

- 투자 목적별로는 현지시장 진출(24건)이, 대륙별로는 아시아(23건)가 각각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9건), 제조업(7건) 등에 대한 지속 투자와 물류·항만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힘입어 운수·창고업(3건)이 절반 수준에

- (외국인투자) 2025.4분기 외국인투자 유치는 10건으로 전 분기(14건), 전년동기(15건) 대비 모두 감소

- 국적별로는 아시아계 기업의 투자가 8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유지하였고, 업종별로는 항만 거점 글로벌 유통·물류 기업의 지속적인 유입의 영향으로 도·소매업(6건)이 가장 높은 비중

## 주요 소식

-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약 37만 평을 데이터센터·모빌리티·로봇 산업 중심 “기회발전특구”로 신규 지정

- ‘케이(K)-해양반도체 얼라이언스’ 출범을 시작으로 조선·해양반도체 융합 협력 본격화

- 부지 조성공사 대상자 선정 및 기본설계에 착수 등 부진했던 가덕도신공항 조성공사가 본 궤도에 진입

박민성 |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044-287-3107 | mpark@kiet.re.kr

# 대구광역시

- **(산업활동)** 제조업 생산이 감소로 전환하고 제조업 심리도 지속 위축, 서비스업 생산과 심리는 양호
- **(소비활동)** 소비 부진 지속, 큰 폭의 물가 상승세 불구하고 소비 심리는 낙관적이나 소상공인은 여전히 비관적
- **(고용시장)**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고 고용 지표는 전국 대비 낮은 수준 지속
- **(대외거래)** 주력 수출품 호조와 해외직접투자는 활발한 가운데, 외국인투자는 다소 위축
- **(주요소식)** 지역 산업 육성향(向) 국비 9조 원 시대 개막, 미래 모빌리티 투자 유입, 로봇 특화단지 조성 도전

## 산업활동

### □ (생산) 제조업 생산이 감소로 전환한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

- (제조업) 2025.4분기 기준 1차 금속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의 부진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 증가 폭은 감소

– 의료·정밀기기(6.3%) 등은 생산이 늘어났지만, 1차 금속 제조업(–24.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11.5%) 등은 부진

- (서비스업) 2025.4분기 기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주요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의 부진으로 지역 서비스업 전체 생산 증가율은 0.7%에 그침.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등은 성장을 보였으나, 정보통신업(–12.7%), 전문·과학·기술서비스(–13.9%) 등은 큰 폭으로 감소

**산업생산 동향**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제조업 전체 | –1.7 | –0.2 | –7.4 | –3.0 | 7.9 | –2.9 | –1.6 |
| 금속 가공제품 | –0.2 | –5.6 | –11.4 | –10.3 | 4.4 | 3.1 | –4.1 |
| 자동차 | 9.6 | 1.2 | 5.4 | 5.4 | 7.2 | –4.0 | 3.4 |
| 기타 기계 및 장비 | –8.7 | –2.3 | –16.7 | 0.3 | 12.5 | –4.9 | –2.7 |
| 섬유제품 | –9.6 | –0.8 | –10.4 | –9.8 | –3.4 | –11.5 | –8.9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3.5 | 4.4 | –4.4 | –1.9 | 5.2 | –4.4 | –1.4 |
| 전기장비 | –1.3 | 2.5 | 0.7 | 1.4 | 8.6 | –0.8 | 2.4 |
| 식료품 | –7.2 | –3.6 | –8.6 | –7.4 | –2.9 | –6.5 | –6.5 |
| 1차 금속 | 3.3 | –5.0 | –15.1 | –12.1 | –4.7 | –24.2 | –14.2 |
| 의료·정밀기기 | 6.9 | 20.9 | –30.4 | –29.3 | 23.0 | 6.3 | –12.5 |

서비스업

| 서비스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서비스업 전체 | 1.7 | 0.1 | –2.8 | –1.0 | 1.7 | 0.7 | –0.4 |
| 도·소매업 | –2.1 | –2.4 | –3.0 | –0.6 | 7.8 | 4.8 | 2.3 |
| 금융·보험업 | 3.5 | 0.6 | –2.9 | 1.5 | 2.1 | 0.8 | 0.3 |
| 보건 및 사회복지 | 6.6 | 4.2 | 1.6 | 4.8 | 5.6 | 7.5 | 4.8 |
| 부동산업 | 3.1 | –8.6 | –18.5 | –14.7 | –7.8 | –6.4 | –12.1 |
| 운수·창고업 | 3.5 | –0.7 | –6.9 | –2.3 | –1.4 | –7.6 | –4.5 |
| 숙박 및 음식점업 | 6.0 | –0.5 | –3.8 | –3.6 | –0.1 | 3.8 | –0.9 |
| 교육서비스업 | –4.1 | –1.5 | –1.8 | –4.2 | –2.6 | 2.5 | –1.5 |
| 정보통신업 | 0.1 | 8.6 | 14.1 | –6.5 | –9.1 | –12.7 | –3.9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 –3.0 | 5.2 | –5.9 | 2.7 | 4.4 | –13.9 | –3.0 |

자료: 국가데이터처.

## □ (기업 경기) 제조업 기업 심리는 지속적으로 위축, 비제조업은 다소 반등

- (제조업) 2025.4분기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하락하며 2분기 이후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악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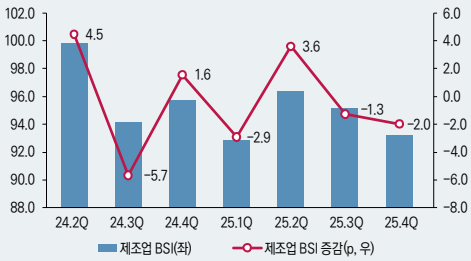
- 2025.4분기 제조업 기업 심리 악화에는 생산(-0.8p), 자금 사정(-0.6p), 신규 수주(-0.6p) 순으로 영향

- (비제조업) 서비스업 기업심리지수는 2025.1분기 96 이하로 기준선 아래로 하락한 후 횡보하다가, 2025.4분기 들어 전기 대비 5.4p 반등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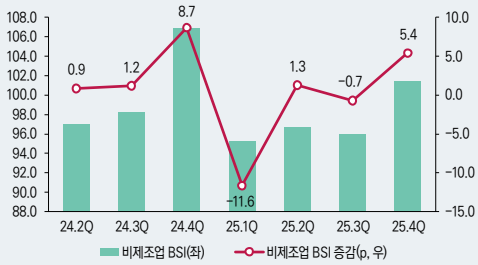
- 2025.4분기 비제조업 기업 심리 반등은 채산성(1.6p)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

### 기업 경기 동향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분기 자료는 월별 자료를 단순 평균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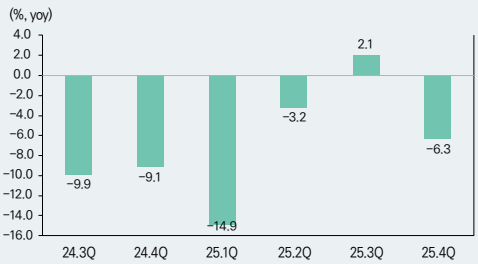
## □ (창업) 전국 수준을 하회하며 지역 내 창업활동이 부진한 흐름

- 2025.4분기 기준 대구의 창업기업은 금년 들어서 이어지던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가 3분기에 잠시 반등하였다가 다시 감소로 전환(-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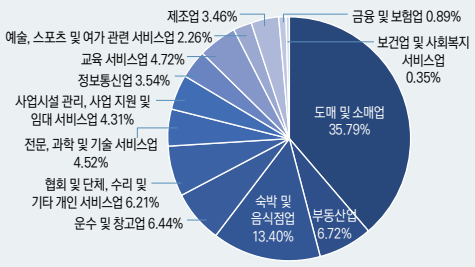
- 2025.4분기 전체 창업기업(9,766개사) 중 서비스업이 8,706개사(89.1%), 제조업이 338개사(3.5%)이며, 서비스업 내에서는 도·소매업(35.8%), 숙박 및 음식점업(13.4%)이 높은 비중

### 기업 창업 동향

창업기업 수 증감 추이




창업기업 업종 비중(2025. 4분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소비활동

## □ 소비 부진 지속, 큰 폭의 물가 상승세에도 소비 심리는 낙관적이나 소상공인은 여전히 비관적

- (소매점 판매) 2025.4분기에도 대형소매점과 대형마트 모두 전년동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소비 실적 지속

– 대형소매점과 대형마트는 2025.3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4분기에 대형소매점은 전년동기 대비 수준으로 회복한 반면, 대형마트는 여전히 전년 대비 감소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전년동기비): [대형소매점 판매] △4.6%('25.2Q) → △5.6%('25.3Q) → △0.5%('25.4Q)
[대형마트] △4.5% → 9.0% → △3.7%

- (소비자 물가) 2025.4분기 생활물가지수는 연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며, 전국과 유사한 상승률 기록

– 식품 물가는 연중 3% 내외의 높은 상승률로 물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전·월세는 안정적 흐름

*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전국] 2.1%('25.2Q) → 2.0%('25.3Q) → 2.4%('25.4Q)
[대구] 2.2% → 1.7% → 2.3%

*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식품] 3.8%('25.2Q) → 3.7%('25.3Q) → 3.4%('25.4Q)
[식품 이외] 1.7% → 0.9% → 2.0%
[전월세] △0.2% → △0.2% →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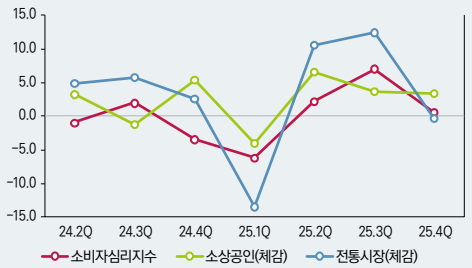
- (소비 체감) 2025.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낙관적인 수준(106.4)이나 전 분기와 비교하여 증가폭은 둔화했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기 체감도도 비관적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은 직전 분기보다는 개선

* 소비자심리지수: 98.9('25.2Q) → 105.9('25.3Q) → 106.4('25.4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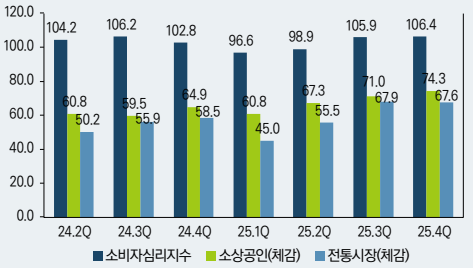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지수: [소상공인] 67.3('25.2Q) → 71.0('25.3Q) → 74.3('25.4Q)
[전통시장] 55.5 → 67.9 → 67.6

**소비활동 동향**

소비자심리지수/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지수 전 분기비 증감




소비자심리지수/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지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시장

## □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고 고용 지표는 전국 대비 낮은 수준 지속

• (일자리) 2025.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제조업이 감소(-6.0%)하였으나, 농림어업(9.1%) 및 SOC·서비스(2.0%)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는 0.5% 증가

- 상용 임금근로자보다는 단기 임금근로자가 늘었고, 구인 및 구직 고용시장 수급 여건은 다소 개선

  * 취업자 증감(천 명): [상용근로자] 12('25.2Q) → △8('25.3Q) → 0('25.4Q)
  [임시·일용근로자] 2 → 1 → 2

  * 구인배수: 0.29('25.2Q) → 0.33('25.3Q) → 0.35('25.4Q)

• (고용률·실업률) 2025.4분기 고용률은 58.0%로 연간 57~58%대를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은 3분기에 잠시 개선(2.6%)되었으나, 4분기에 다시 3%대로 진입(3.6%)

- 생산가능인구와 청년층 고용률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국 대비로는 낮은 수준 지속

**고용시장 동향**

취업자 수

| 업종 (천 명, %, 전년동기비) | 2024 | 2025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1,216 (-2.5) | 1,202 (-0.8) | 1,225 (-0.2) | 1,216 (0.1) | 1,215 (0.5) | 1,214 (-0.2) |
| 농림어업 | 12 (9.1) | 10 (-16.7) | 13 (-7.1) | 14 (27.3) | 12 (9.1) | 12 (0.0) |
| 제조업 | 236 (-2.5) | 230 (-4.6) | 236 (0.4) | 223 (-4.7) | 220 (-6.0) | 227 (-3.8) |
| SOC·서비스 | 968 (-2.6) | 962 (0.3) | 976 (-0.2) | 979 (0.9) | 983 (2.0) | 975 (0.7) |

고용률 및 실업률

| 연령 (%) | | 2024 | 2025 |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고용률 | 58.0 | 57.3 | 58.5 | 58.1 | 58.0 | 58.0 |
| | 실업률 | 3.4 | 3.5 | 3.4 | 2.6 | 3.6 | 3.3 |
| 청년 고용률 (15~29세) | | 37.5 | 38.0 | 40.7 | 39.4 | 39.3 | 39.4 |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15~64세) | | 65.6 | 65.3 | 66 | 65.4 | 66.1 | 65.7 |

자료: 국가데이터처.

#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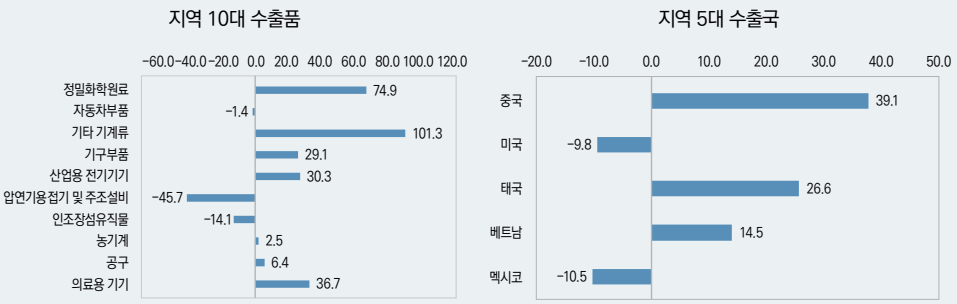
## □ 주력 수출품 호조와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외국인투자는 다소 위축

• (수출) 2025.2분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지역 수출은 2025.4분기에도 전년동기비 증가(7.5%)를 기록

- 정밀화학원료(74.9%), 기타 기계류(101.3%), 의료용 기기(36.7%) 등이 크게 늘면서, 특히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신흥지역으로의 수출 실적이 증가한 반면, 압연기용접기 및 주조설비(-45.7%)는 크게 감소

**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2025.4분기 지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신규 법인 수 기준)는 19개사로 전기보다는 줄었지만 전년동기 수준과 동일

- 제조업 기업이 9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절반을 초과하는 12개사(59.1%)가 현지시장 진출 목적이었지만 저임 활용도 4개사에 달하고, 13개 업체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투자

- (외국인투자) 2025.4분기 대구지역으로의 외국인투자(최초 등록 기업 수 기준)는 6개사로 전년동기비 감소

- 아시아(4개사, 66.7%), 유럽(2개사, 33.3%)으로 구성되며, 주요 투자 업종은 도·소매업(5개사, 83.3%), 제조업(1개사, 16.7%)

## 주요 소식

- 미래산업 관련 사업과 안경 산업 육성 등 지역 핵심 산업 사업이 증액 반영되며 2026년도 국비 9조 원 시대 개막

- 프랑스 발레오의 첨단 자율주행 센서 생산 확대와 기술 고도화향(向) 753억 원 추가 투자로 대구 미래 모빌리티 혁신 가속

- 대구시-신보-iM뱅크 지역 전략산업 및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402억 원 금융 지원

- '휴머노이드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도전하여, 선도기업 중심 완결형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 추진

서성민 |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044-287-3077 | econ21seo@kiet.re.kr

# 인천광역시

- **(산업활동)** 견조한 산업생산 성장세, 제조업 경기 심리는 제한적 회복, 서비스업 중심의 활발한 창업활동
- **(소비활동)** 소비 개선이 더디고, 큰 폭의 물가 상승세 속에 소상공인 경기 악화 체감도는 지속
- **(고용시장)** 건설 및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줄고 고용 지표가 악화하는 등 시장 상황은 부진
- **(대외거래)** 주력 품목 수출 호조, 활발한 해외직접투자(OFDI), 외국인투자(IFDI) 활동
- **(주요소식)** 반도체 후공정 투자 확대와 AI-바이오 혁신 논의를 통해 첨단산업 거점 도약 추진

## 산업활동

### □ (생산) 산업생산은 제조업 4.6%, 서비스업 6.4%로 견조한 성장세 시현

- (제조업) 2025.4분기 기준 자동차, 전자부품, 금속제품 등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력 업종인 기계 장비의 생산 호조로 제조업 전체 생산 증가 폭은 확대

– 기타 기계 및 장비(45.7%), 1차 금속(4.3%) 업종은 생산이 늘어났지만, 금속 가공제품(-19.4%), 전기장비(-19.4%), 전자부품(-15.5%), 자동차 및 트레일러(-14.3%) 업종 등은 부진

- (서비스업) 2025.4분기 기준 지역 서비스업은 부동산업과 운수·창고업 등이 부진했음에도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 지원서비스업의 성장세 확대에 힘입어 전체 생산은 6.4%로 증가 폭 확대

– 전문·과학·기술서비스(9.1%)가 가장 많이 증가한 가운데, 도·소매업(7.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사업관리·지원·임대 서비스업(6.5%) 순으로 생산이 증가

**산업생산 동향**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제조업 전체 | 2.0 | 22.7 | -3.3 | -4.5 | 3.2 | 4.6 | -0.1 |
| 기타 기계 및 장비 | -7.3 | 30.6 | -42.7 | -16.3 | 19.3 | 45.7 | -7.3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15.6 | -4.3 | -9.7 | -1.0 | -2.4 | -14.3 | -7.2 |
| 1차 금속 | -8.8 | -13.7 | -6.2 | 3.1 | 13.3 | 4.3 | 3.4 |
| 전자부품 | -9.6 | 12.4 | 13.0 | 4.1 | -4.7 | -15.5 | -1.8 |
| 금속 가공제품 | -8.5 | 4.5 | 5.5 | 4.8 | -2.3 | -19.4 | -3.3 |
| 식료품 | -5.5 | -2.0 | 0.5 | -2.4 | -4.8 | -3.0 | -2.3 |
| 전기장비 | -0.9 | 10.2 | -12.0 | -13.4 | -6.0 | -19.4 | -12.8 |
| 석유정제품 | 36.1 | 2.1 | -15.9 | -21.2 | -5.1 | -6.6 | -12.5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2.2 | 1.6 | -5.1 | 1.3 | 4.3 | -11.5 | -2.8 |

서비스업

| 서비스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서비스업 전체 | 7.5 | 4.0 | 0.9 | 3.7 | 2.7 | 6.4 | 3.5 |
| 도·소매업 | 6.0 | 1.3 | 0.5 | 2.3 | 7.3 | 7.9 | 4.5 |
| 금융·보험업 | 3.5 | -0.1 | 0.1 | 3.1 | 1.4 | -2.7 | 0.4 |
| 운수·창고업 | 43.1 | 8.0 | 1.4 | 0.6 | 1.9 | -4.0 | -0.1 |
| 부동산업 | -4.2 | -1.0 | -3.1 | -7.4 | -9.2 | -13.6 | -8.2 |
| 보건 및 사회복지 | 7.1 | 7.1 | 6.4 | 7.0 | 6.2 | 7.5 | 6.8 |
| 숙박 및 음식점업 | -6.0 | -2.3 | -2.2 | -2.6 | -0.7 | -2.2 | -1.9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 0.6 | 2.7 | -2.5 | 8.3 | 13.7 | 9.1 | 7.2 |
| 교육서비스업 | -0.4 | -2.1 | -1.4 | -2.8 | -2.9 | -1.1 | -2.1 |
| 시설관리·지원·임대 | -2.5 | -1.0 | 1.7 | 2.1 | 2.6 | 6.5 | 3.2 |

자료: 국가데이터처.

## □ (기업 경기) 제조업 기업 심리는 제한적 회복, 비제조업은 소폭 악화

- (제조업) 2025.4분기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상승하며 하반기 들어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100 미만의 위축 국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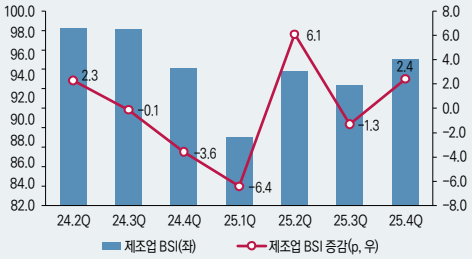
- 2025.4분기 제조업 기업 심리 상승에는 신규 수주(4.9p)가 가장 큰 역할을 하였고 업황(2.0p), 자금 사정(0.8p) 순으로 기여

- (비제조업) 서비스업 기업심리지수는 2025.1분기 99.3으로 기준선 아래로 하락하였으나, 2~3분기 연속 반등(3.6p → 2.6p)하며 105.5까지 회복했다가, 2025.4분기에 소폭 감소(-0.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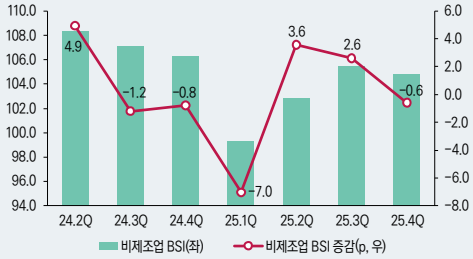
- 비제조업 기업 심리 악화에는 업황(-0.3p), 매출(-0.5p)이 부진한 데 기인

### 기업 경기 동향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분기 자료는 월별 자료를 단순 평균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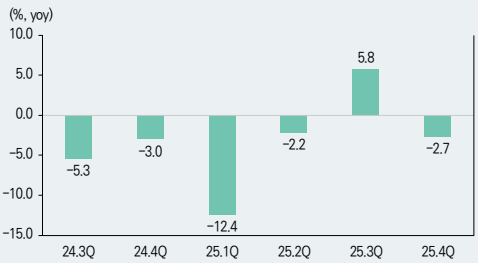
## □ (창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활발한 창업활동

- 2025.4분기 기준 인천의 창업기업은 지난달의 증가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감소한 가운데, 전국 감소 폭(-3.6%)보다는 낮은 2.7%가 줄어든 1만 7,376개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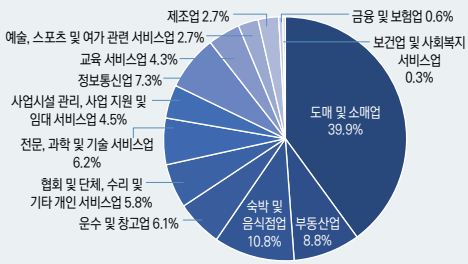
- 전체 창업기업 중 서비스업이 1만 5,966개사(91.9%), 제조업이 445개사(2.7%)를 기록한 가운데, 서비스업 내에서는 도·소매업(39.9%), 숙박 및 음식점업(10.8%), 부동산업(8.8%) 순

### 기업 창업 동향

창업기업 수 증감 추이




창업기업 업종 비중(2025. 4분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소비활동

## □ 소비 개선이 더디고, 큰 폭의 물가 상승세 속에 소상공인의 경기 악화 체감도는 지속

- (소매점 판매) 2025.4분기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동기 수준에 머물렀고, 대형마트 판매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더딘 소비 양상 시현

– 대형소매점 및 대형마트 판매 모두 전 분기 감소에서 벗어났으나 소폭 개선에 그침.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전년동기비): 1.9%('25.2Q) → △1.1%('25.3Q) → 0.0%('25.4Q)

* 대형마트 불변지수(전년동기비): 3.3% → △3.1% → 0.3%

- (소비자 물가) 2025.4분기 생활물가지수는 연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며, 전국과 유사한 상승률 기록

– 식품 물가는 연중 3% 내외의 높은 상승률로 물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전·월세는 안정적 흐름

*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전국] 2.1%('25.2Q) → 2.0%('25.3Q) → 2.4%('25.4Q)
[인천] 2.2% → 1.9% → 2.4%

*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식품] 2.9%('25.2Q) → 3.4%('25.3Q) → 3.0%('25.4Q)
[식품 이외] 2.0% → 1.3% → 2.5%
[전월세] 0.6% → 0.6% →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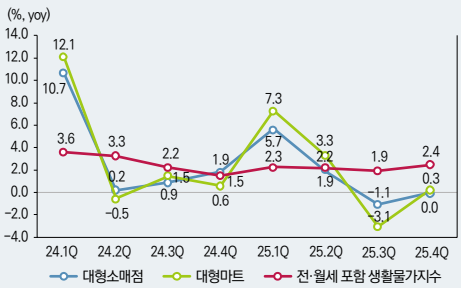
- (소비 체감) 2025.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낙관적인 수준(110.4)이나 전 분기와 비교하여 증가 폭은 둔화했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기 체감도도 비관적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 분기보다는 개선

* 소비자심리지수: 96.3('25.2Q) → 108.0('25.3Q) → 110.4('25.4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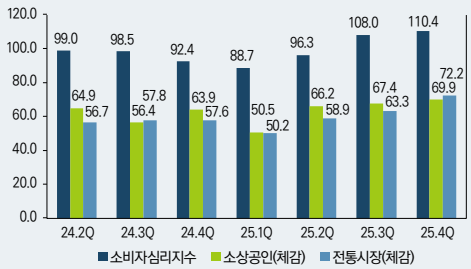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지수: [소상공인] 66.2('25.2Q) → 67.4('25.3Q) → 69.9('25.4Q)
[전통시장] 58.9 → 63.3 → 72.2

**소비활동 동향**

대형소매점/대형마트 판매액지수/생활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소비자심리지수/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지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시장

## □ 건설 및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줄고 고용 지표가 악화하는 등 시장 상황은 부진

- (일자리) 2025.4분기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33.3%) 및 제조업(5.2%)에서 증가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감소(-1.8%)하며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7,000명 감소

– 전체 임금근로자는 소폭 증가하였고, 구인 및 구직의 고용시장 수급 여건은 일정 수준 유지

* 취업자(전년동기비 증감, 천 명): [상용근로자] 34('25.2Q) → 28('25.3Q) → 23('25.4Q)
[임시·일용근로자] △14 → △40 → △20

* 구인배수: 0.34('25.2Q) → 0.37('25.3Q) → 0.37('25.4Q)

- (고용률·실업률) 2025.4분기 고용률은 62.8%로 3분기 연속 하락하고 실업률도 연내 가장 높은 수준(3.7%)

– 생산가능인구로는 안정적이나 청년층 고용률은 지속해서 악화하는 등 세대 간 일자리 문제의 차별성 대변

**고용시장 동향**

취업자 수

| 업종 (천 명, %, 전년동기비) | 2024 | 2025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1,696 (2.5) | 1,695 (2.5) | 1,725 (2.1) | 1,731 (0.4) | 1,711 (-0.4) | 1,715 (1.1) |
| 농림어업 | 3 (50.0) | 5 (400.0) | 8 (700.0) | 9 (200.0) | 8 (33.3) | 8 (166.7) |
| 제조업 | 315 (0.0) | 313 (-1.3) | 324 (1.9) | 323 (3.2) | 325 (5.2) | 321 (1.9) |
| SOC·서비스 | 1,379 (3.1) | 1,377 (3.1) | 1,393 (1.7) | 1,398 (-0.7) | 1,378 (-1.8) | 1,387 (0.6) |

고용률 및 실업률

| 연령 (%) | | 2024 | 2025 |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고용률 | 63.5 | 62.9 | 63.8 | 63.7 | 62.8 | 63.3 |
| | 실업률 | 3.3 | 3.6 | 3.3 | 2.4 | 3.7 | 3.2 |
| 청년 고용률 (15~29세) | | 47.4 | 46.0 | 45.1 | 44.4 | 43.6 | 44.8 |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15~64세) | | 70.0 | 69.9 | 70.0 | 69.8 | 69.4 | 69.8 |

자료: 국가데이터처.

#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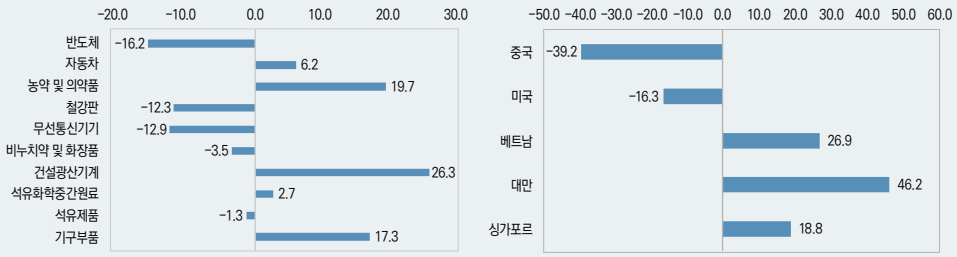
## □ 주력 품목 수출 부진, 활발한 해외직접투자(OFDI), 외국인투자(IFDI) 활동

- (수출) 2025.4분기 인천지역 수출은 전년동기비 4.5% 감소한 가운데,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가 부진

– 자동차(6.2%), 농약 및 의약품(19.7%) 등이 견조한 실적을 보였지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부진(-16.2%)이 크게 나타난 가운데,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39.2%)한 데 기인

**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2025.4분기 인천지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신규 법인 수 기준)는 39개사로 전년동기(27개사)보다 큰 폭으로 상승

– 주요 업종은 제조업(15개사), 도·소매업(9개사) 등으로, 절반을 초과하는 28개사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투자하였으며 주요 투자 목적은 대부분(32개사)이 현지시장 진출

- (외국인투자) 2025.4분기 인천지역으로의 외국인투자(최초 등록 기업 수 기준)는 35개사로 전년동기비 45.8% 상승하며 4분기 연속 감소세에서 전환되었고, 전국(-13.4%) 대비로도 크게 증가

– 아시아(25개사, 74.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북미(5개사, 14.3%), 중동(3개사, 8.6%) 순이며, 주요 투자 업종은 도·소매업(23개사, 65.7%)으로 큰 비중을 차지

## 주요 소식

- 앰코테크놀로지 송도사업장에 2,661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시설을 증설하여 글로벌 R&D·후공정 통합 시스템 구축

- '2025 AI-Bio 송도 컨퍼런스'(2025.11.7)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송도국제도시의 AI 기반 바이오 혁신 거점 및 글로벌 산학협력 허브 도약 비전을 제시

서정현 |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 044-287-3825 | seojh@kiet.re.kr

# 광주광역시

- **(산업활동)** 산업생산 증가세 유지, 제조업 심리는 위축 국면 진입, 서비스업 중심으로 창업 감소
- **(소비활동)**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가운데 소비 심리는 개선 흐름 지속
- **(고용시장)** 고용 규모·고용률은 증가하였으나, 구인배수는 전국 대비 낮은 수준, 청년 고용률 감소
- **(대외거래)** 주력 품목 수출 호조, 해외직접투자(OFDI), 외국인투자(IFDI) 활동은 소수 기업에 국한
- **(주요소식)** 광주·전남 초광역 경제권 형성과 지역 산업·창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

## 산업활동

### □ (생산) 제조업 0.8%, 서비스업 2.1% 증가하며 2025.2분기 이후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 유지

- (제조업) 2025.4분기 기준 주력 업종의 생산 호조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0.8% 증가하였으나, 1~3분기에 비해 증가 폭은 축소

– 전자부품(58.2%), 전기장비(21.0%), 자동차 및 트레일러(15.0%) 업종의 호조로 전체 생산 확대를 견인하였으나,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38.4%), 금속(–35.5%), 기타 기계 및 장비(–21.5%) 등은 부진

- (서비스업) 2025.4분기 기준 광주지역 서비스업은 부동산업과 정보통신업의 부진에도 운수·창고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의 성장세로 전체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3%)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서비스업 내 비중이 가장 큰 도·소매업도 4.7% 증가

**산업생산 동향**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제조업 전체 | -1.1 | 4.7 | 11.1 | 10.4 | 14.4 | 0.8 | 9.1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14.8 | -1.2 | 1.1 | 9.2 | 19.6 | 15.0 | 10.9 |
| 전기장비 | -17.3 | 13.0 | 58.6 | 45.8 | 56.5 | 21.0 | 44.9 |
| 기타 기계 및 장비 | -3.8 | 2.1 | -4.0 | -14.7 | -5.1 | -21.5 | -11.3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7.6 | 6.6 | -2.4 | -20.9 | -31.3 | -38.4 | -23.2 |
| 전자부품 | -11.9 | -11.9 | 7.9 | 33.9 | 47.9 | 58.2 | 36.6 |
| 금속 가공제품 | 22.8 | 22.9 | 12.2 | -26.8 | -32.6 | -35.5 | -21.5 |
| 1차 금속 | -6.8 | 10.4 | -2.4 | -9.3 | -5.7 | -15.9 | -8.7 |
| 식료품 | -1.4 | -6.3 | -11.1 | -9.9 | -8.2 | -6.8 | -9.1 |
| 음료 | -8.9 | 4.2 | -4.6 | 0.7 | 4.5 | -4.0 | -0.6 |

서비스업

| 서비스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서비스업 전체 | 3.7 | 1.1 | -1.8 | 0.6 | 3.3 | 2.1 | 1.1 |
| 도·소매업 | -1.1 | -1.2 | -1.4 | 1.4 | 5.7 | 4.7 | 2.6 |
| 금융·보험업 | 3.7 | 1.1 | -3.4 | 0.7 | 2.5 | 2.0 | 0.4 |
| 부동산업 | 26.1 | 9.9 | 2.1 | 0.4 | 1.9 | -3.1 | 0.3 |
| 보건 및 사회복지 | 3.7 | 0.9 | 1.4 | 2.5 | 2.2 | 5.3 | 2.8 |
| 숙박 및 음식점 | 0.9 | 0.0 | -1.1 | -1.7 | 0.9 | 3.8 | 0.5 |
| 운수·창고업 | 0.5 | -4.1 | 0.3 | -0.7 | 5.4 | 7.0 | 3.0 |
| 교육서비스업 | -2.7 | -2.3 | -1.3 | 3.1 | 1.6 | 0.2 | 0.9 |
| 정보통신업 | 2.6 | -2.3 | -5.3 | 2.2 | 7.8 | -0.5 | 1.0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 -1.2 | -1.8 | -3.0 | -6.3 | -6.0 | 3.4 | -3.0 |

자료: 국가데이터처.

## □ (기업 경기) 제조업의 기업 경기 심리는 위축 국면 진입, 비제조업은 2025년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

- (제조업) 2025.1분기부터 상승하며 낙관적 수준이었던 광주지역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2025. 4분기 다시 100 미만의 위축 국면에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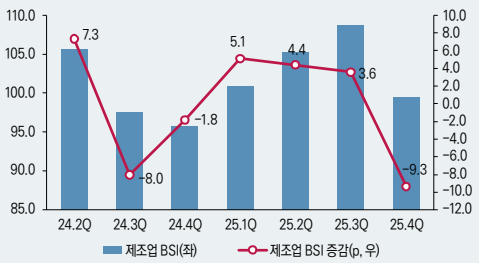
– 2025.4분기 제조업 기업 심리 악화는 업황(-3.6p), 자금 사정(-2.8p), 생산 및 신규 수주(각 -2.5p) 부진에 기인

- (비제조업) 광주지역의 서비스업 기업심리지수는 위축 국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나, 2025년 하반기부터 반등하여 2025.4분기에 96.1까지 개선되는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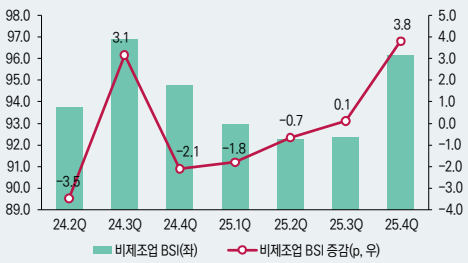
– 비제조업 기업 심리 완화에는 업황(2.2p), 채산성(1.0p), 자금 사정(0.7p) 순으로 영향

### 기업 경기 동향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분기 자료는 월별 자료를 단순 평균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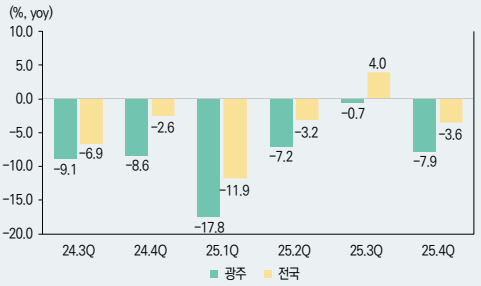
## □ (창업) 서비스업 창업 위축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창업기업 7.9% 감소

- 광주의 창업기업은 2023년 이후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5.4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7.9% 감소하여 전국 수준(-3.6%)을 상회하는 감소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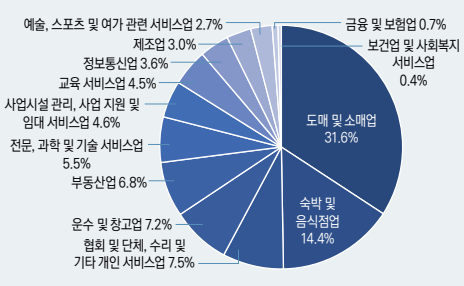
– 서비스업 5,594개사(89.6%), 제조업이 188개사(3.0%)를 기록한 가운데, 제조업 창업기업 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16.0%)했지만 서비스업은 감소(-7.6%)하여 지역 창업기업 감소를 견인

### 기업 창업 동향

창업기업 수 증감 추이




창업기업 업종 비중(2025. 4분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소비활동

## □ 소매 판매 실적 부진,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가운데, 소비 심리 개선이 병존

- (소매점 판매) 대형소매점과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2025.2분기 이후 꾸준히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부진한 실적 지속

– 2025.3분기 이후 대형마트 판매는 대형소매점보다 전년동기 대비 더 큰 수준으로 감소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전년동기비): △6.1%('25.2Q) → △9.8%('25.3Q) → △1.1%('25.4Q)

* 대형마트 불변지수(전년동기비): △9.3% → △15.7% → △5.6%

- (소비자 물가) 2025.4분기 생활물가지수는 전국과 동일한 상승률로 전년동기 대비 2.4% 증가

– 식품 물가가 연중 2~3%대로 물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전·월세는 1% 미만 상승률로 안정적 흐름

*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전국] 2.1%('25.2Q) → 2.0%('25.3Q) → 2.4%('25.4Q)
[광주] 1.7% → 1.6% → 2.2%

*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식품] 2.8% → 3.4% → 2.5%
[식품 이외] 1.2% → 0.7% → 2.3%
[전월세] 0.4% → 0.6% →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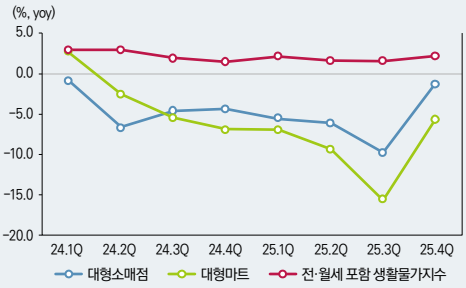
- (소비 체감) 2025.4분기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는 112.8로 전 분기에 이어 낙관적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광주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기 체감도는 100 이하로 비관적 수준이나 2025년 이후 점진적 개선

* 소비자심리지수: 94.0('25.2Q) → 111.3('25.3Q) → 112.8('25.4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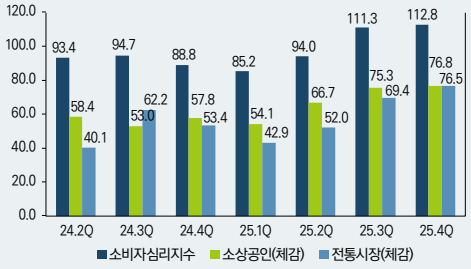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지수: [소상공인] 66.7('25.2Q) → 75.3('25.3Q) → 76.8('25.4Q)
[전통시장] 52.0 → 69.4 → 76.5

**소비활동 동향**

대형소매점/대형마트 판매액지수/생활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소비자심리지수/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지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중소벤처기업부.
주: 소비자심리지수는 광주·전남 권역 통합지수를 사용.

# 고용시장

## □ 고용 규모와 고용률은 상승하였으나, 구인배수는 전국 대비 낮은 수준, 청년 고용률 하락

- (일자리) 산업별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15.0%) 및 제조업(-2.8%)에서 감소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증가(3.6%)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1만 9,000명 증가

- 2025.4분기 전체 임금근로자는 전년동기 대비 2만 8,000명 증가한 가운데, 고용시장 수급 여건은 구인배수 기준 0.27로 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국(0.34) 대비는 열악한 수준

  * 취업자 증감(천 명, yoy): [상용근로자] △2('25.2Q) → 11('25.3Q)→ 14('25.4Q)
  [임시·일용근로자] 10 → 12 → 13

  * 구인배수: 0.25('25.2Q) → 0.25('25.3Q) → 0.27('25.4Q)

- (고용률·실업률) 2025.4분기 고용률은 60.9%로 전 분기에 비해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3.5%로 연내 가장 높은 수준

- 생산가능인구 연간 고용률은 증가하는 반면, 최근 청년층 고용 문제를 반영하듯 청년층은 2023년 이후 감소세

**고용시장 동향**

취업자 수

| 업종 (천 명, %, 전년동기비) | 2024 | 2025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774 (0.7) | 765 (-2.2) | 778 (-1.0) | 786 (1.7) | 776 (2.5) | 776 (0.3) |
| 농림어업 | 22 (4.8) | 17 (-22.7) | 16 (-30.4) | 17 (-22.7) | 17 (-15.0) | 17 (-22.7) |
| 제조업 | 107 (4.9) | 106 (1.0) | 105 (-3.7) | 103 (-2.8) | 104 (-2.8) | 105 (-1.9) |
| SOC·서비스 | 646 (0.0) | 642 (-2.0) | 658 (0.6) | 665 (3.1) | 654 (3.6) | 655 (1.4) |

고용률 및 실업률

| 연령 (%) | | 2024 | 2025 |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고용률 | 60.6 (0.5) | 59.9 (-1.2) | 61.0 (-0.4) | 61.6 (1.1) | 60.9 (1.7) | 60.8 (0.2) |
| | 실업률 | 3.0 (0.5) | 3.5 (0.3) | 3.3 (0.4) | 2.7 (0.2) | 3.5 (-0.1) | 3.3 (0.3) |
| 청년 고용률 (15~29세) | | 38.1 (-0.8) | 37.2 (0.9) | 37.1 (-0.1) | 37.6 (0.5) | 37.1 (-0.5) | 37.2 (-0.9) |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15~64세) | | 66.0 (0.4) | 65.1 (-0.9) | 66.1 (-2.0) | 66.8 (-1.2) | 66.9 (0.8) | 66.2 (0.2) |

자료: 국가데이터처.

#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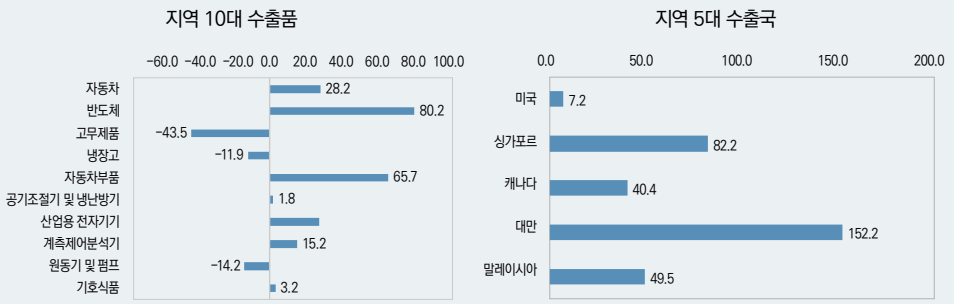
## □ 자동차·반도체 수출 호조로 수출 증가세 지속,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투자 활동은 소수 기업에 국한

- (수출) 2025.4분기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3.4% 증가하여 2025.2분기 이후 전년동기 대비 상승세가 지속

-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 증가(28.2%)와 반도체(80.2%), 자동차부품(65.7%) 호조가 주요했고, 5대 국가 수출액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대만 수출이 152.2%로 가장 큰 증가

**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관세청.

- (해외직접투자) 2025.4분기 광주지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신규 법인 수 기준)는 5개사로, 전년동기(9개사) 대비 감소

- 5개사 투자 중 4개사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로, 업종은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으로 다양하게 분포

- (외국인투자) 2025.4분기 광주지역 외국인투자(최초 등록 기업 수 기준)는 3개사로 전년동기(4개사) 대비 감소하였으나, 2022.1분기까지 1~2개사 수준이었던 외국인투자가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

- 투자국은 모두 아시아 국가이며,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2개사, 도·소매업 1개사

## 주요 소식

-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으로 인구 320만 명, GRDP 159조 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 형성,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 투자 유치(2025년 120억 원), 매출 증가(231%), 고용 창출 등 기대

- 영농형 태양광 기반 ‘햇빛연금’ 모델 추진으로 농민 기본소득 창출과 기업 RE100 참여를 동시 실현

- 평동산단 중심 용접·금형 등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AX·DX 기반 산업 고도화 추진

정진영 |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044-287-3715 | wlsdud@kiet.re.kr

# 대전광역시

- **(산업활동)** 제조업 생산은 연속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생산 성장세는 지속, 서비스업 중심 기업 심리 회복세
- **(소비활동)** 소비는 제한적 회복,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비관적 판단 지속
- **(고용시장)** 일자리 증가에 따라 고용률, 실업률 및 청년 고용률 등 고용 지표 호조
- **(대외거래)** 주력 품목 수출 호조, 제조업·도·소매업 중심 대외 투자거래 활발
- **(주요소식)** 상장 기업 시가총액 88조 원; 방산 분야 우수 기업 7개 선정; GPU 거점센터 구축 추진

## 산업활동

### □ (생산) 제조업 생산은 연속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생산 성장세는 지속

- (제조업) 2025.4분기 기준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화학, 정밀기기 생산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역 내 비중이 가장 높은 기계·장비와 전자부품의 부진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감소(-6.5%)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7.9%), 화학(3.0%), 정밀기기(55.4%) 등은 전년동기 대비 생산이 증가하였지만, 생산액(매출액) 기준 1~2위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20.4%)와 전자부품(-7.6%)의 감소 폭이 컸기 때문

- (서비스업) 2025.4분기 기준 지역 특화 업종인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생산이 늘어나며 전체 서비스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둔화한 0.5% 증가 기록

– 전문·과학·기술서비스(-2.7%)와 부동산업(-22.7%) 생산이 4분기 들어 부진했지만, 도·소매업(7.6%)과 정보통신업(12.7%) 등의 견조한 실적에 힘입은 결과

**산업생산 동향**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제조업 전체 | -4.8 | 7.9 | 2.3 | -1.5 | -1.2 | -6.5 | -1.8 |
| 기타 기계 및 장비 | 7.2 | 19.6 | -14.6 | -12.9 | -5.0 | -20.4 | -13.4 |
| 전자부품 영상음향통신 | -13.8 | 0.4 | -0.6 | -6.6 | -5.9 | -7.6 | -5.1 |
| 화학제품 | -17.5 | -7.2 | -5.3 | 11.5 | 29.5 | 3.0 | 7.9 |
| 금속제품 | 15.9 | 12.1 | 100.6 | 67.5 | -4.5 | 2.8 | 36.4 |
| 식료품 | -3.7 | 5.8 | -2.9 | 5.4 | 13.0 | -0.6 | 3.6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31.1 | 9.9 | 5.2 | 7.9 | 1.3 | 7.9 | 5.5 |
| 담배 | 2.5 | 16.2 | 5.4 | -9.5 | -1.8 | -14.0 | -5.1 |
| 의료·정밀·광학기기 | -32.3 | 7.9 | -21.3 | 4.8 | -29.3 | 55.4 | 5.1 |
| 종이제품 | -6.7 | -5.7 | 5.7 | 7.6 | 6.1 | 0.2 | 4.9 |

서비스업

| 서비스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서비스업 전체 | 4.4 | 1.4 | -1.8 | 0.9 | 3.9 | 0.5 | 0.9 |
| 도·소매업 | 1.2 | -2.7 | -1.1 | 3.1 | 8.9 | 7.6 | 4.6 |
| 금융·보험업 | 3.0 | -1.1 | -2.2 | 1.5 | 2.9 | 1.6 | 0.9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 6.4 | 1.4 | 1.5 | 4.1 | 3.2 | -2.7 | 1.3 |
| 부동산업 | 11.3 | 16.6 | -3.2 | -12.7 | -5.9 | -22.7 | -11.2 |
| 보건 및 사회복지 | 4.4 | 4.4 | 3.8 | 5.4 | 4.1 | 6.2 | 4.9 |
| 정보통신업 | 1.0 | -0.9 | -6.8 | 11.3 | 14.6 | 12.7 | 8.2 |
| 숙박 및 음식점업 | 0.6 | 3.0 | 1.8 | 2.3 | 1.6 | -5.7 | -0.1 |
| 교육서비스업 | -0.4 | -1.7 | -2.4 | -0.1 | 5.0 | 3.1 | 1.4 |
| 운수·창고업 | 12.8 | 0.3 | -0.1 | 0.6 | 3.3 | -1.3 | 0.7 |

자료: 국가데이터처.

## □ (기업 경기) 제조업 기업 심리는 악화 지속, 비제조업은 반등

- (제조업)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2025년 들어 100 미만의 위축 국면에서 횡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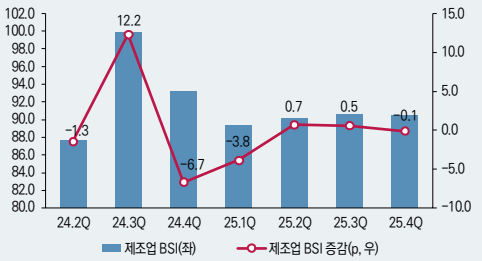
- 2024.3분기 제조업 기업 심리는 99.8로 깜짝 회복했지만, 이후 위축 국면이 지속된 가운데 2025.4분기에 기업 심리 회복이 더딘 것은 신규 수주(68.0)와 자금 사정(71.3) 영향

- (비제조업) 서비스업 기업심리지수는 2025.4분기에 그동안의 위축 국면 탈출 및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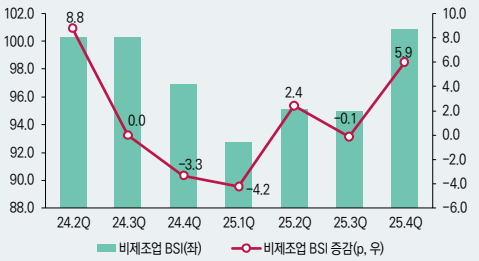
- 2025.4분기 기준 비제조업 기업 심리 회복은 자금 사정 개선이 기여

### 기업 경기 동향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분기 자료는 월별 자료를 단순 평균한 값임.

## □ (창업) 창업기업 증가율은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 기인

- 창업기업 증가율은 2025.1분기 -11.7%로 저점을 찍은 후 2025.4분기 -1.7%로 회복세 들어섬.

- 서비스업은 2025.3분기 2.6%에서 2025.4분기 0.4%로 2.2%p 둔화한 반면, 제조업은 동 기간 -7.7%에서 -19.7%로 감소 폭 확대(-12.0%p)

- 2025.4분기 기준 업종별 창업기업 비중은 도·소매업(36.4%), 숙박 및 음식점업(13.1%), 부동산업(9.2%) 그리고 운수·창고업(6.0%)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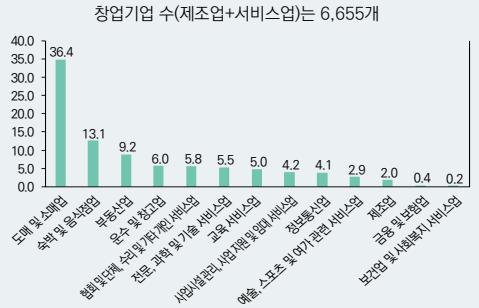
### 기업 창업 동향

창업기업 수 증감률 추이




창업기업 업종별 비중(2025.4분기)

창업기업 수(제조업+서비스업)는 6,655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소비활동

## □ 소비는 제한적 회복,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비관적 판단 지속

- (소매점 판매) 2025.4분기 기준 소매점 판매액은 점포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로 증가와 감소로 구분

–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3.8%)로 전환하였으나, 대형마트는 여전히 감소하여 본격적인 소비 회복으로 보기에는 힘든 상황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전년동기비): △3.0%('25.2Q) → △4.6%('25.3Q) → 3.8%('25.4Q)

* 대형마트 불변지수(전년동기비): △4.7% → △9.4% →△ 3.7%

- (소비자 물가) 생활물가지수는 소폭 상승하였지만, 전국 수준을 하회

– 2025.4분기 기준 식품 및 식품 외 물가지수는 2025.3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지만, 전월세 포함 물가지수는 안정적 모습

*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전국] 2.1%('25.2Q) → 2.0%('25.3Q) → 2.4%('25.4Q)
[대전] 2.0% → 1.7% → 2.0%

*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식품] 2.2%('25.2Q) → 1.9%('25.3Q) → 2.2('25.4Q)
[식품 이외] 1.7% → 1.1 % → 1.9%
[전월세] 0.4% → 0.3%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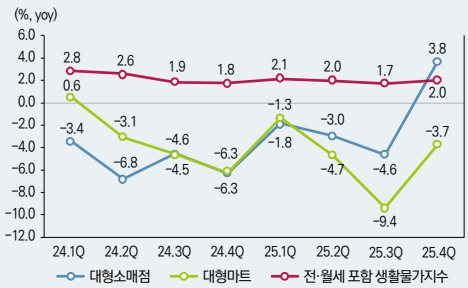
- (소비 체감) 2025.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111.6까지 상승하여 낙관적인 경제 상황이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회복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경기 악화 체감도가 지속

* 소비자심리지수: 99.0('25.2Q) → 109.9('25.3Q) → 111.6('25.4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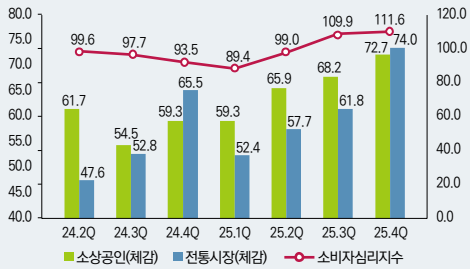
* 소상공인경기동향지수: [소상공인] 65.9('25.2Q) → 68.2('25.3Q)→ 72.7('25.4Q)
[전통시장] 55.7 → 61.8 → 74.0

**소비활동 동향**

대형소매점/대형마트 판매액지수/생활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소비자심리지수/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지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중소벤처기업부.
주: 소비자심리지수는 대전·세종·충남 권역 통합지수를 사용.

# 고용시장

## □ 양적·질적 일자리 지표는 양호한 수준, 고용률은 소폭 하락

• (일자리) 2025.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모든 산업에서 증가

- 임금근로자 중 단기 근로자는 줄었지만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났고, 구인배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시장 수급 여건도 양호한 수준 유지

  * 취업자 증감(천 명): [상용근로자] △9('25.2Q) → 12('25.3Q) → 21('25.4Q)
  [임시·일용근로자] 13 → 5 → △3

  * 구인배수: 0.25('25.2Q) → 0.24('25.3Q) → 0.24('25.4Q)

• (고용률·실업률) 고용률은 소폭 하락한 가운데 실업률은 연간 수준 유지

- 고용률은 2025.3분기 62.7%에서 4분기에는 하락한 가운데, 청년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

**고용시장 동향**

취업자 수

| 업종 (천 명, %, 전년동기비) | 2024 | 2025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789 (-1.0) | 797 (1.4) | 816 (2.3) | 820 (4.1) | 811 (3.3) | 811 (2.8) |
| 농림어업 | 11 (37.5) | 12 (50.0) | 15 (25.0) | 16 (33.3) | 16 (23.1) | 15 (36.4) |
| 제조업 | 82 (6.5) | 90 (15.4) | 91 (16.7) | 91 (5.8) | 90 (2.3) | 91 (11.0) |
| SOC·서비스 | 696 (-2.2) | 694 (-0.9) | 709 (0.0) | 713 (3.3) | 705 (3.1) | 705 (1.3) |

고용률 및 실업률

| 연령 (%) | | 2024 | 2025 |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고용률 | 60.6 | 61.0 | 62.5 | 62.7 | 61.9 | 62.0 |
| | 실업률 | 3.0 | 3.5 | 2.9 | 2.2 | 2.9 | 2.9 |
| 청년 고용률 (15~29세) | | 43.4 | 44.6 | 46.0 | 46.3 | 43.4 | 45.0 |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15~64세) | | 67.2 | 67.5 | 68.7 | 69.1 | 68.2 | 68.4 |

자료: 국가데이터처.

#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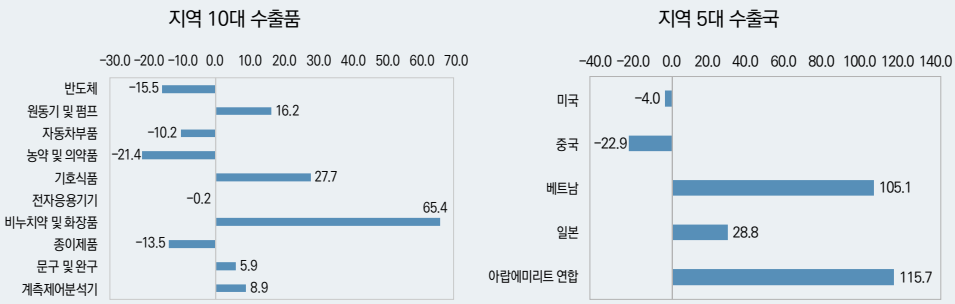
## □ 주력 품목 수출 호조, 제조업·도·소매업 중심 대외 투자거래 활발

• (수출) 2025.4분기 지역 총수출은 증가하였으며, 지역 주력산업 중 하나인 화학산업 및 소비재의 수출 상승에 기인

- 반도체(△15.5%), 자동차부품(△10.2%), 농약 및 의약품(△21.4%) 등은 부진하였으나, 비누치약 및 화장품(65.4%), 기호식품(27.7%)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베트남, 일본으로의 수출이 호조

**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2025.4분기 대전지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신규 법인 수 기준)는 24개사로 전년 동기(18개사)보다 증가

– 해외직접투자 주요 업종은 도·소매(8개사), 제조업(6개사) 등이며, 현지시장 진출(19개사)을 목적으로 하고, 아시아(14개사) 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

- (외국인투자) 2025.4분기 외국인투자(최초 등록 기업 수 기준)는 2개사가 유입되어 연간으로는 총 16개사가 대전지역에 신규 투자 등록

– 2개사는 북미지역과 아시아에서 제조업과 도·소매업 1개사가 유입된 것으로, 2025년 연간으로도 동 대륙과 동 업종이 가장 높은 비중

## 주요 소식

- 2025년 11월 말 기준 대전 상장 기업은 67개사로 시가총액은 역대 최고치인 88조 4,011억 원 돌파
- 드론·반도체·로봇·우주·AI 등 방산 분야 지역 기업 7개사가 방위사업청의 '2025 방산혁신기업 100'에 선정
- 고성능 AI 서비스를 위한 GPU 거점센터가 한남대 내 구축 예정으로 지역 내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스타트업 공동 활용 예정

김영민 |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044-287-3103 | kym2060@kiet.re.kr

# 울산광역시

- **(산업활동)** 산업생산은 안정적 성장세, 제조업 경기 심리 악화, 비제조업 심리 회복, 창업기업 감소 폭 전국의 두 배
- **(소비활동)** 소비 감소세 둔화, 식품이 견인한 큰 폭의 물가 상승세 속에 소상공인 경기 악화 체감도는 지속
- **(고용시장)** 취업자 감소와 구인배수 하락 등 고용시장 지표는 부진
- **(대외거래)** 주력 품목 수출 부진, 해외직접투자(OFDI)는 활발하나 외국인투자(IFDI)는 소강 상태
- **(주요소식)** 조선 통합 본격화; 스마트조선으로 전환; 전략소재 투자 확대; 휴머노이드 도입; 이커머스 내실 취약

## 산업활동

### □ (생산) 산업생산은 제조업 2.7%, 서비스업 3.6%로 안정적 성장세 시현

- (제조업) 2025.4분기 기준 지역 주력 업종들의 생산 실적은 증가와 감소로 양분되어 나타난 가운데, 기타 운송장비와 기타 기계 및 장비의 생산 호조가 크게 작용하여 제조업 전체로는 생산이 증가

– 기타 운송장비(34.7%), 기타 기계 및 장비(32.5%) 업종은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화학제품(-5.9%), 전기장비(-4.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4.1%), 자동차 및 트레일러(-3.3%) 업종 등은 부진

- (서비스업) 2025.4분기 기준 운수·창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이 부진하였으나, 지역 내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등의 생산 실적 호조에 힘입어 서비스업 전체로 생산은 3.6% 증가

– 도·소매업(7.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4%), 교육서비스업(2.6%), 숙박 및 음식점업(1.8%) 순으로 생산 증가에 기여

**산업생산 동향**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제조업 전체 | -1.0 | 1.1 | -0.9 | 1.9 | 7.6 | 2.7 | 2.8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8.3 | -6.5 | -7.5 | -4.2 | 7.0 | -3.3 | -2.2 |
| 석유정제품 | -5.3 | 2.1 | -6.1 | -2.1 | 1.3 | 1.2 | -1.4 |
| 화학제품 | -6.4 | 4.1 | 4.1 | -4.2 | -1.9 | -5.9 | -2.0 |
| 1차 금속 | -5.1 | 1.3 | -2.9 | 0.9 | -1.7 | 3.9 | 0.0 |
| 기타 운송장비 | -22.2 | 16.5 | 14.3 | 34.9 | 35.6 | 34.7 | 30.2 |
| 전기장비 | 0.4 | 20.8 | 15.0 | 4.9 | 5.2 | -4.9 | 4.7 |
| 기타 기계 및 장비 | 15.5 | -1.8 | 5.0 | 16.9 | 36.0 | 32.5 | 22.8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7.8 | 9.6 | 2.7 | 15.5 | 6.9 | -4.1 | 5.2 |
| 금속 가공제품 | -9.3 | -9.5 | -6.3 | 13.3 | 24.8 | 7.5 | 9.3 |

서비스업

| 서비스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서비스업 전체 | 2.6 | 1.5 | -0.8 | -0.3 | 5.5 | 3.6 | 2.0 |
| 도·소매업 | -0.5 | -3.6 | -0.3 | 3.5 | 8.3 | 7.2 | 4.6 |
| 금융·보험업 | 3.1 | -1.3 | -1.5 | 2.2 | 2.5 | -0.4 | 0.8 |
| 운수·창고업 | 5.0 | 3.6 | -1.4 | 0.3 | 3.5 | -2.9 | -0.2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 -2.0 | 8.3 | -4.5 | 1.0 | 17.0 | -1.7 | 2.3 |
| 숙박 및 음식점업 | 7.6 | -3.8 | -3.8 | -2.6 | 0.8 | 1.8 | -0.8 |
| 교육서비스업 | 0.5 | 2.9 | 2.2 | 4.4 | 5.6 | 2.6 | 3.7 |
| 보건 및 사회복지 | 3.6 | 4.9 | 5.6 | 4.9 | 5.1 | 5.4 | 5.3 |
| 부동산업 | 9.6 | 2.0 | -17.4 | -14.7 | -9.6 | 1.7 | -10.4 |
| 시설관리·지원·임대 | 4.4 | 0.6 | 14.3 | 1.0 | 13.9 | 22.8 | 12.9 |

자료: 국가데이터처.

## □ (기업 경기) 제조업 기업 심리는 악화, 비제조업은 전년동기 수준 회복

- (제조업) 2025.4분기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하락하며, 2025년 들어 100 미만의 위축 국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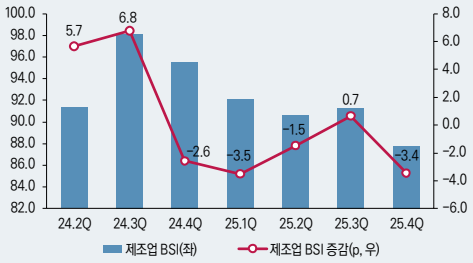
- 2025.4분기 제조업 기업 심리 하락에는 생산(-1.7p), 신규 수주(-0.9p), 업황(-0.4p) 순으로 기여

- (비제조업) 서비스업 기업심리지수는 10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25.4분기 들어 전기보다 크게 상승(5.5p)하여 2024.4분기 수준까지 회복(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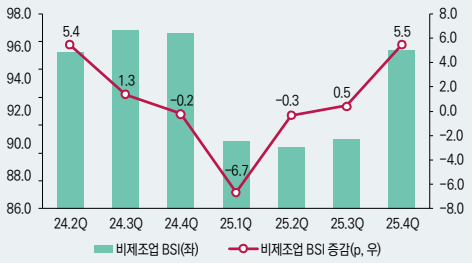
- 비제조업 기업 심리 회복에는 자금 사정(1.6p), 매출(1.5p), 채산성(1.4p) 순으로 기여

### 기업 경기 동향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분기 자료는 월별 자료를 단순 평균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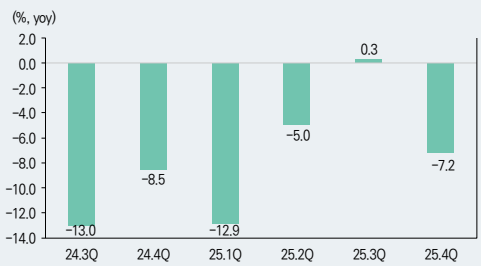
## □ (창업) 전국 감소 폭의 두 배 수준으로 창업기업 감소

- 2025.4분기 기준, 울산의 창업기업은 전국 감소 폭(-3.6%)의 두 배인 7.2%까지 줄어든 4,051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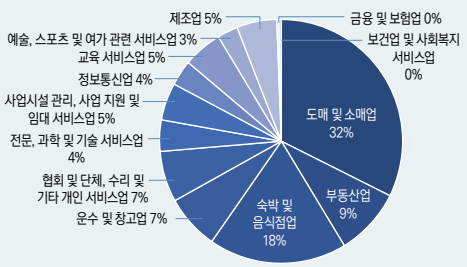
- 전체 창업기업 중 서비스업이 3,533개사(87.2%), 제조업이 201개사(5.0%)를 기록, 서비스업 내에서는 도·소매업(32.4%), 숙박 및 음식점업(18.3%), 부동산업(8.9%) 순으로 기여

### 기업 창업 동향

창업기업 수 증감 추이




창업기업 업종 비중(2025. 4분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소비활동

## □ 소비 감소세 둔화, 식품 주도의 가파른 물가 상승세 속 소상공인 경기 악화 체감 지속

- (소매점 판매) 2025.4분기 대형소매점 판매는 감소 폭이 크게 축소, 대형마트 판매는 하락 흐름 둔화

– 대형소매점과 대형마트 모두 전 분기와 비교하여 감소 폭이 줄어, 상반기 수준으로 회귀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전년동기비): △6.9%('25.2Q) → △8.3%('25.3Q) → △0.7%('25.4Q)

* 대형마트 불변지수(전년동기비): △4.8% → △10.4% → △4.5%

- (소비자 물가) 2025.4분기 생활물가지수는 연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전국과 동일한 상승률

– 식품 물가는 연중 3% 내외의 높은 상승률로 물가 상승을 주도, 전·월세는 안정적 흐름

*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전국] 2.1%('25.2Q) → 2.0%('25.3Q) → 2.4%('25.4Q)
[울산] 2.1% → 2.0% → 2.4%

*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식품] 3.1%('25.2Q) → 3.7%('25.3Q) → 3.1%('25.4Q)
[식품 이외] 1.6% → 1.1% → 2.1%
[전월세] 0.7% → 1.1%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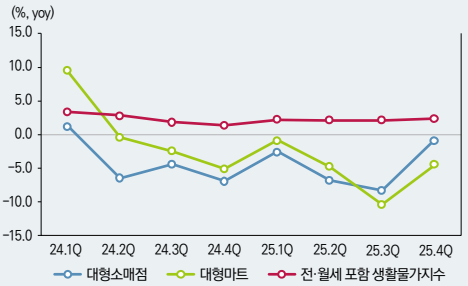
- (소비 체감) 2025.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전 분기에 이어 낙관적(10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비관적 수준이 지속

* 소비자심리지수: 99.7('25.2Q) → 108.5('25.3Q) → 109.0('25.4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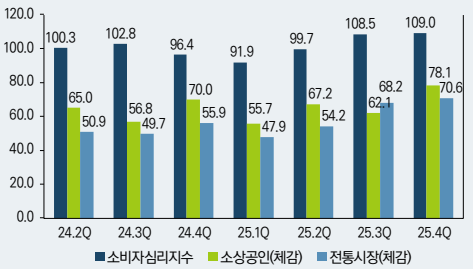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지수: [소상공인] 67.2('25.2Q) → 62.1('25.3Q) → 78.1('25.4Q)
[전통시장] 54.2 → 68.2 → 70.6

**소비활동 동향**

대형소매점/대형마트 판매액지수/생활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소비자심리지수/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지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시장

### □ 취업자 감소와 구인배수 하락 등 고용시장 지표는 부진

- (일자리) 2025.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제조업(2.8%)에서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25.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2.5%) 감소로 인해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6,000명 감소

- 전체 임금근로자(-1.0%)는 하락하였고, 구인배수 하락으로 고용시장 수급 여건 다소 악화

  * 취업자 증감(천 명): [상용근로자] 1('25.2Q) → 9('25.3Q) → 10('25.4Q)
    [임시·일용근로자] 5 → △4 → △14

  * 구인배수: 0.40('25.2Q) → 0.38('25.3Q) → 0.35('25.4Q)

- (고용률·실업률) 2025.4분기 고용률은 59.2%로 2분기 연속 하락하였고 실업률도 연내 가장 높은 수준(2.7%)

- 생산가능인구로는 안정적이나 청년층 고용률은 지속 악화하는 등 세대 간 일자리 문제의 차별성 대변

**고용시장 동향**

취업자 수

| 업종 (천 명, %, 전년동기비) | 2024 | 2025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572 (0.0) | 569 (1.6) | 583 (0.9) | 579 (0.5) | 569 (-1.0) | 575 (0.5) |
| 농림어업 | 4 (-33.3) | 5 (25.0) | 5 (0.0) | 3 (-40.0) | 3 (-25.0) | 4 (0.0) |
| 제조업 | 179 (-0.6) | 176 (-1.7) | 180 (-0.6) | 182 (1.7) | 181 (2.8) | 180 (0.6) |
| SOC·서비스 | 389 (0.8) | 388 (2.6) | 397 (1.3) | 394 (0.5) | 385 (-2.5) | 391 (0.5) |

고용률 및 실업률

| 연령 (%) | | 2024 | 2025 |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고용률 | 63.5 | 59.4 | 60.6 | 60.2 | 59.2 | 63.3 |
| | 실업률 | 3.3 | 2.6 | 2.3 | 1.7 | 2.7 | 3.2 |
| 청년 고용률 (15~29세) | | 40.2 | 41.5 | 43.7 | 43.2 | 40.9 | 42.3 |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15~64세) | | 70 | 66.2 | 67.2 | 67 | 66.8 | 69.8 |

자료: 국가데이터처.

##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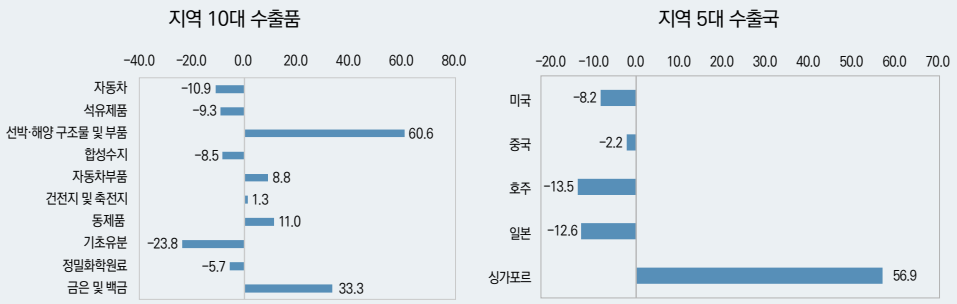
### □ 주력 품목 수출 부진, 해외직접투자(OFDI)는 활발하나 외국인투자(IFDI)는 소강

- (수출) 10대 수출품은 부진·개선이 각각 5개로 혼조세이나, 상위 품목 부진으로 2025.4분기 울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

-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60.6%)의 3분기 연속 증가에도 자동차(-10.9%), 석유제품(-9.3%), 합성수지(-8.5%) 등의 연속 부진에 기인하며, 국가별로도 싱가포르(56.9%)를 제외한 주요 시장에서 모두 부진

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2025.4분기 울산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신규 법인 수 기준)는 전년동기보다 2개 늘어난 9개사

– 제조업이 3개사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각각 2개사였으며, 투자 기업 대부분(8개사)이 현지시장 진출 및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아시아, 유럽, 북미 순으로 투자

- (외국인투자) 2025.4분기 울산으로의 외국인투자(최초 등록 기업 수 기준)는 3개사로 전년동기비 25% 하락하며 2분기 연속 감소세를 형성, 전국(-13.4%) 대비로도 크게 하락

– 대표 투자국 기준 모두 아시아 국가이며 베트남(2개사, 66.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주요 소식

- HD현대중공업·현대미포 통합-조선산업 재편 본격화, 2035년 매출 37조 원과 특수목적선 시장 확대 추진
- HD현대중공업·HD현대로보틱스 AI·로봇 기반 자동화와 자율운영형 스마트 조선소 구축·전환 가속
- 고려아연은 2029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자, 울산의 전략광물·비철금속·자원순환 거점 기능을 강화할 계획
- 현대차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양산·현장 투입 계획을 공식화, 생산혁신 기대와 고용 영향 노사 갈등 부각
- 울산 이커머스 시장의 외형 성장에도 사업체당 평균 매출이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 수익성 기반은 취약

김준호 |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044-287-3096 | junokim@kiet.re.kr

# 세종특별자치시

- **(산업활동)** 제조업 생산 감소와 기업 심리 위축, 창업 침체로 산업활동 둔화가 지속
- **(소비활동)** 소비 회복이 더디고, 물가 부담 속 소상공인 체감경기 부진
- **(고용시장)** 제조·건설·서비스업 고용 감소, 고용 여건 개선 부진
- **(대외거래)** 주력 품목 수출 호조, 해외직접투자(OFDI), 외국인투자(IFDI) 활동 기업 소수
- **(주요소식)** 주요 바이오 기업은 호조, 그 외 이익 감소; AI 중심 산업 전환과 국가산단 조성 본격화

## 산업활동

### □ (생산) 제조업 생산지수는 감소로 전환(-6.5%), 서비스업은 6.1%로 증가세

- (제조업) 2025.4분기 기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전자부품의 생산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력 제조업종인 식료품, 전기장비 등의 생산 부진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 감소

– 전자부품(28.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4.5%)은 생산이 늘어났지만, 전기장비(-38.1%), 식료품(-14.6%), 비금속 광물제품(-11.5%) 등은 부진하며 제조업 전체는 다시 감소로 전환

- (서비스업) 동일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운수·창고업이 부진했음에도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등의 증가에 힘입어 전체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생산 증가율이 가장 높고(25.7%), 부동산업(10.7%), 전문·과학·기술서비스(6.6%) 순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서비스업 전체 생산 증가율은 3분기보다 확대

**산업생산 동향**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제조업 전체 | -5.9 | -0.4 | -11.4 | -5.0 | 1.0 | -6.5 | -5.7 |
| 식료품 | 7.1 | 13.5 | -18.1 | 0.7 | 4.3 | -14.6 | -7.2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11.7 | -14.3 | -6.8 | 2.5 | 3.4 | 4.5 | 0.8 |
| 전자부품 | -36.6 | 16.8 | -5.2 | -8.8 | -4.2 | 28.5 | 1.8 |
| 전기장비 | 37.7 | -15.9 | -22.1 | -12.1 | 22.0 | -38.1 | -14.8 |
| 비금속 광물제품 | 13.5 | 3.8 | 3.8 | 5.1 | 2.1 | -11.5 | -0.5 |
| 펄프·종이 | 0.1 | 0.9 | -2.9 | -7.1 | -1.6 | -1.8 | -3.4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4.6 | -9.2 | -14.0 | -5.7 | 1.6 | -31.0 | -12.2 |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 -13.4 | -71.7 | -79.8 | -58.2 | -61.4 | -47.9 | -65.9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3.9 | 19.2 | 11.8 | 4.8 | 5.0 | -10.7 | 2.0 |

서비스업

| 서비스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서비스업 전체 | 1.2 | -1.7 | 4.3 | 4.6 | 3.3 | 6.1 | 4.5 |
| 도·소매업 | 0.4 | 0.0 | -2.2 | -3.3 | 2.4 | 0.1 | -0.8 |
| 부동산업 | -11.2 | -25.4 | -11.5 | 26.9 | 12.5 | 10.7 | 8.4 |
| 금융·보험업 | 5.4 | -2.8 | -4.4 | -0.1 | -4.7 | -5.9 | -3.8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 -0.5 | 4.1 | 10.1 | 23.0 | 6.6 | 6.6 | 11.7 |
| 교육서비스업 | -3.3 | 1.2 | 1.8 | 1.7 | 1.3 | 1.7 | 1.6 |
| 운수·창고업 | -0.3 | 8.2 | 3.9 | 6.9 | 2.0 | -1.6 | 2.8 |
| 숙박 및 음식점업 | -1.6 | -0.3 | -3.2 | 3.9 | 0.4 | -7.1 | -1.5 |
| 보건 및 사회복지 | 7.0 | 8.4 | 1.3 | -0.5 | 1.7 | 3.3 | 1.5 |
| 예술·스포츠·여가 | 14.3 | -1.8 | 60.5 | -15.5 | -4.5 | 25.7 | 15.5 |

자료: 국가데이터처.

## □ (기업 경기) 제조업 기업 심리는 위축, 비제조업은 위축 국면 심화

- (제조업) 2025.4분기 기준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2분기 상승(2.7p), 3분기 상승 둔화(1.4p)에 이어 하락(-2.4p)하며 100 미만의 심리적 위축 국면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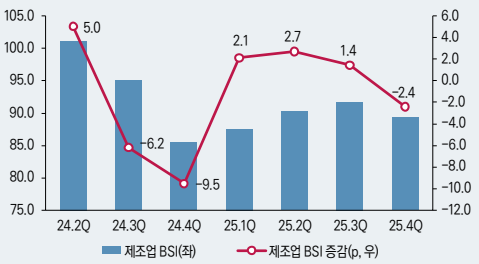
- 제조업 기업 심리 악화에는 생산(-2.2p) 및 신규 수주(-2.2p)가 가장 큰 역할을 하였고, 업황(0.4p), 제품 재고(1.5p)는 제조업 기업 심리 하락 상쇄에 기여

- (비제조업) 동 기준 서비스업 기업심리지수는 2분기 반등(-3.7p → 1.4p)하였으나, 3분기 하락(-0.5%p)에 이어 4분기에도 다시 하락(-1.1%p)하며 심리적 위축 국면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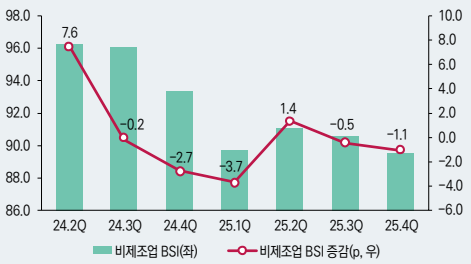
- 비제조업의 기업 심리 악화에는 매출(-0.4p), 채산성(-0.7p), 자금 사정(-0.5p)이 부진한 데 기인

### 기업 경기 동향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1) 세종은 단독 시도로 BSI지수를 제공하지 않아, 기제공되는 대전·세종·충남 권역의 BSI지수를 사용.
2) 분기 자료는 월별 자료를 단순 평균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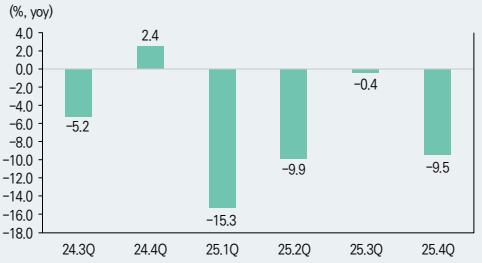
## □ (창업) 창업기업 수 큰 폭의 감소, 창업 침체 지속

- 2025.4분기 기준 세종의 창업기업은 지난 2024년 4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감소하며, 전국 증가율(-3.6%)을 크게 하회하는 -9.5%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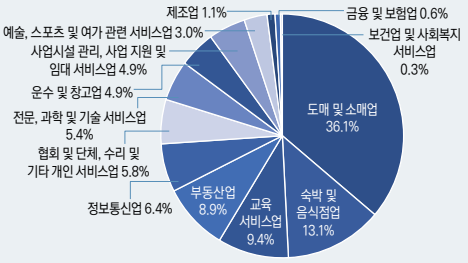
- 서비스업이 1,559개사(91.4%), 제조업이 18개사(1.1%)를 기록한 가운데, 서비스업 내 높은 비중의 세부 업종은 도·소매업(36.1%), 숙박 및 음식점업(13.1%), 교육서비스업(9.4%) 순

### 기업 창업 동향

창업기업 수 증감 추이




창업기업 업종 비중(2025. 4분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소비활동

## □ 소매 판매 개선, 물가 상승세 속에 소상공인의 경기 체감 악화는 지속

- (소매점 판매) 2025.4분기 기준 대형소매점(대형마트 동일) 판매는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전년 동기 수준에 그침.

– 소매점 판매는 2025.2분기까지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3분기에 감소하고 다시 반등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전년동기비): 2.8%('25.2Q) → △2.3%('25.3Q) → 0.0%('25.4Q)

- (소비자 물가) 2025.4분기 기준 소비자심리지수는 낙관적 수준(111.6)이 3분기에 이어 지속되었으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기 체감도는 2025년 증가세에도 불구 비관적 수준(100 미만)이 지속

– 식품 물가는 연중 3% 내외의 높은 상승률로 물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전·월세 변동성은 낮은 수준

*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전국] 2.1%('25.2Q) → 2.0%('25.3Q) → 2.4%('25.4Q)
[세종] 2.2% → 2.0% → 2.6%

*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식품] 3.4%('25.2Q) → 3.6%('25.3Q) → 3.6%('25.4Q)
[식품 이외] 2.2% → 1.6% → 2.8%
[전월세] △0.4% → 0.0%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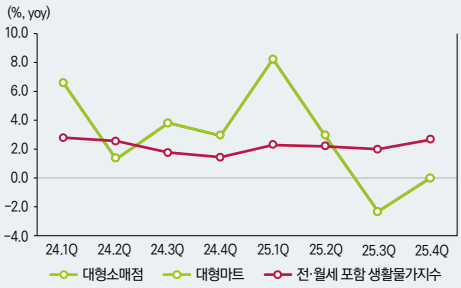
- (소비 체감) 2025.4분기 기준 소비자심리지수는 낙관적 수준(111.6)이 3분기에 이어 지속되었으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기 체감도는 2025년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비관적 수준(100 미만)이 지속

* 소비자심리지수: 99.0('25.2Q) → 109.9('25.3Q) → 111.6('25.4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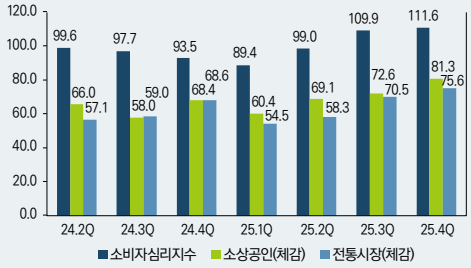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지수: [소상공인] 69.1('25.2Q) → 72.6('25.3Q) → 81.3('25.4Q)
[전통시장] 58.3 → 70.5 → 75.6

**소비활동 동향**

대형소매점/대형마트 판매액지수/생활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소비자심리지수/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지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중소벤처기업부.
주: 1) 세종은 대형소매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액지수가 동일.
2) 세종은 단독 시도로 CSI지수를 제공하지 않아, 기제공되는 대전·세종·충남 권역의 CSI지수를 사용.

# 고용시장

## □ 제조업, 건설 및 서비스업 취업자 수 하락, 고용 여건 상황 개선은 정체

- (일자리) 2025.4분기 기준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제조업(-5.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1.2%)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비 2,000여 명 감소

- 전체 임금근로자는 소폭 감소하였고, 구인 및 구직의 고용시장 수급 여건은 전 분기 대비 소폭 개선

  * 취업자 증감(천 명): [상용근로자] 5('25.2Q) → 1('25.3Q) → △2('25.4Q)
    [임시·일용근로자] △1 → 1 → △1

  * 구인배수: 0.39('25.2Q) → 0.31('25.3Q) → 0.37('25.4Q)

- (고용률·실업률) 2025.4분기 기준 전 연령 고용률은 64.1%로 최근 3분기 연속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보합세

- 연령 구분에 상관없이 고용률은 3분기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청년층 고용률이 더 큰 폭으로 하락

**고용시장 동향**

취업자 수

| 업종 (천 명, %, 전년동기비) | 2024 | 2025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210 (1.0) | 208 (1.5) | 214 (1.4) | 212 (0.0) | 211 (-0.9) | 211 (0.5) |
| 농림어업 | 8 (14.3) | 5 (0.0) | 9 (-10.0) | 9 (0.0) | 8 (14.3) | 8 (0.0) |
| 제조업 | 33 (10.0) | 34 (9.7) | 32 (0.0) | 32 (-5.9) | 32 (-5.9) | 32 (-3.0) |
| SOC·서비스 | 170 (-0.6) | 169 (0.6) | 173 (1.8) | 171 (1.2) | 171 (-1.2) | 171 (0.6) |

고용률 및 실업률

| 구분 (연령, %) | | 2024 | 2025 |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고용률 | 65.2 | 64.0 | 65.6 | 64.7 | 64.1 | 64.6 |
| | 실업률 | 1.9 | 3.0 | 2.2 | 2.2 | 2.2 | 2.4 |
| 청년 고용률 (15~29세) | | 36.2 | 34.6 | 34.5 | 33.3 | 32.0 | 33.6 |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15~64세) | | 69.0 | 68.4 | 68.9 | 68.1 | 68.0 | 68.4 |

자료: 국가데이터처.

#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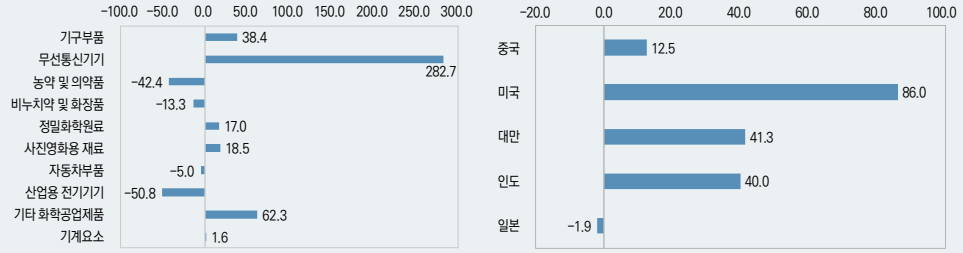
## □ 주력 품목 수출 호조, 해외직접투자(OFDI), 외국인투자(IFDI) 활동 기업 소수

- (수출) 2025.4분기 기준 세종 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12.3%)하였으며, 이는 주력 수출품인 기구부품, 무선통신기기, 기타 화학공업제품 등의 수출 증가에 기인

- 무선통신기기(282.7%)가 가장 큰 수출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기구부품(38.4%), 기타 화학공업제품(62.3%)이 세종지역의 수출 증가에 큰 역할을 했으며,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 실적이 크게 증가

**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2025.4분기 기준 세종지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신규 법인 수 기준)는 3개사로 소수에 불과

- 3개사 모두 현지시장 진출 목적으로 아시아향(向) 투자이며, 제조업 2개사, 도·소매업 1개사로 구성

- (외국인투자) 2025.4분기 기준 세종지역으로의 외국인투자(최초 등록 기업 수 기준)는 나타나지 않으며, 가장 최근 통계에 기록된 시점은 2025.2분기 기준 1개사

- 세종지역의 2분기 외국인투자에 기록된 1개사는 북미 회사

## 주요 소식

- 지역 내 산업별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에서 바이오 분야는 호조, 전기, 에너지, 소재·부품 분야는 부진

-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본격화에 즈음하여 첨단·제조 분야 4개 유망 기업과 공장 설립 투자협약 진행

- 세종시는 2026년을 자족경제 원년으로 선포하고, 인공지능 산업구조 전환에 집중

조성민 |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 044-287-3630 | smcho@kiet.re.kr

# 경기도

- **(산업활동)** 견조한 산업생산 성장세, 제조업 경기 심리가 점차 회복하고 있으나 낮은 수준
- **(소비활동)** 소비 증가는 더디지만 소비자 및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점차 개선 중
- **(고용시장)** SOC·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를 제외한 전반적 고용 지표는 부진
- **(대외거래)** 주력 품목 수출 호조, 견조한 해외직접투자(OFDI), 외국인투자(IFDI)는 다소 침체
- **(주요소식)**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 마이스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성과

## 산업활동

### □ (생산)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제조업 8.2%, 서비스업 3.8% 증가해 견조한 성장세

- (제조업) 2025.3분기까지 전자부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이 생산 호조를 기록하면서 2025년 제조업 전체 생산 증가를 이끌었으나 4분기에 감소로 전환(-2.5%)

–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0.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4.3%) 등 주요 제조업 산업생산이 부진

- (서비스업) 2025.4분기 기준 서비스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부진했음에도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성장하며 전체 4.9% 증가

– 정보통신업(16.7%), 전문·과학·기술서비스(7.7%), 도·소매업(7.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1%) 순으로 증가

**산업생산 동향**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제조업 전체 | -2.6 | 18.0 | 7.5 | 12.5 | 16.8 | -2.5 | 8.2 |
| 전자부품 영상음향통신 | -0.1 | 32.3 | 12.4 | 18.8 | 22.5 | -1.4 | 12.5 |
| 기타 기계 및 장비 | -16.6 | 7.3 | 2.6 | 13.7 | 10.9 | -10.3 | 3.4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12.7 | -1.8 | 4.7 | 8.5 | 15.8 | -4.3 | 5.9 |
| 금속제품 | 2.4 | 7.1 | -2.0 | -9.7 | -1.1 | -11.4 | -6.3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6.1 | 0.8 | -4.9 | -4.1 | -3.2 | -10.5 | -5.6 |
| 식료품 | -5.9 | 3.0 | -1.8 | -4.4 | 0.3 | -2.9 | -2.3 |
| 전기장비 | 7.3 | -10.5 | 2.8 | 9.0 | 22.1 | 3.5 | 9.0 |
| 화학제품 | -16.4 | 2.2 | 2.6 | 2.5 | 3.5 | -7.8 | 0.1 |
| 1차 금속 | -6.1 | -2.7 | -11.2 | -4.9 | 3.3 | -9.0 | -5.8 |

서비스업

| 서비스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서비스업 전체 | 1.9 | 1.1 | -0.1 | 5.4 | 4.7 | 4.9 | 3.8 |
| 도·소매업 | -2.2 | -2.8 | -1.5 | 1.6 | 8.3 | 7.5 | 3.9 |
| 금융·보험업 | 4.9 | -0.7 | -1.8 | 1.2 | 0.8 | -1.2 | -0.3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 3.6 | 4.9 | 5.2 | 5.7 | 3.4 | 7.7 | 5.6 |
| 부동산업 | 4.7 | -2.1 | -6.6 | -4.7 | -5.5 | 1.1 | -4.0 |
| 운수·창고업 | -2.6 | 4.5 | -0.5 | 1.1 | 3.7 | -2.3 | 0.5 |
| 정보통신업 | 8.3 | 2.3 | -0.5 | 8.7 | 4.9 | 16.7 | 7.8 |
| 숙박 및 음식점업 | 1.1 | -2.7 | -4.7 | -4.2 | -1.4 | -4.0 | -3.6 |
| 보건 및 사회복지 | 6.0 | 5.5 | 4.7 | 6.0 | 5.3 | 7.1 | 5.8 |
| 교육서비스업 | 0.4 | 1.0 | -0.1 | -2.1 | -0.9 | 0.0 | -0.8 |

자료: 국가데이터처.

## □ (기업 경기) 제조업 기업 심리는 2025년 이후 회복세 지속, 비제조업은 소폭 반등

- (제조업) 2025.4분기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낙관적 수준인 103에 도달하는 등 1분기 이후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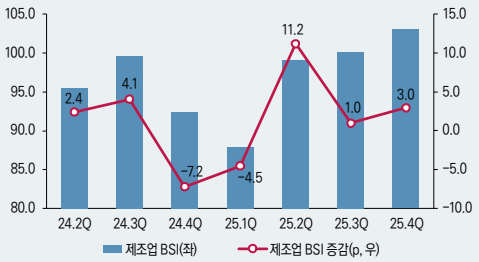
– 2025.4분기 제조업 기업 심리 상승에는 생산(1.4p), 신규 수주(1.2p), 업황(0.6p) 순으로 기여

- (비제조업) 서비스업 기업심리지수는 1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반등하며 2025.4분기 기준 83.4까지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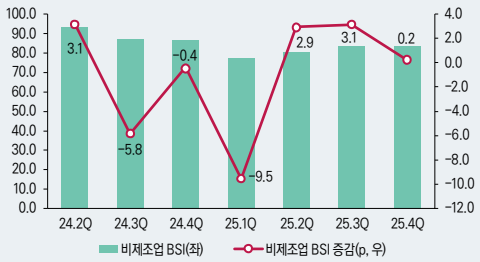
– 2025.4분기 비제조업 기업 심리 상승에는 매출(0.7p)이 가장 크게 기여

### 기업 경기 동향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분기 자료는 월별 자료를 단순 평균한 값임.

## □ (창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국 추세 대비 활발한 창업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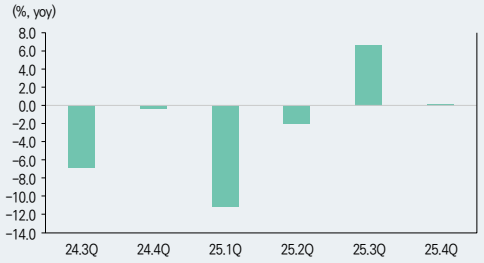
- 2025.4분기 기준 전국 창업기업 수는 -3.6% 감소했으나 경기 창업기업 수는 전년동기비 0.2% 늘어난 8만 5,446개사로 전기의 증가세가 지속

– 전체 창업기업 중 서비스업이 7만 7,500개사(96.7%), 제조업이 2,634개사(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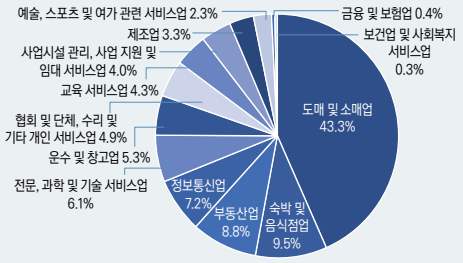
– 서비스업은 정보통신(55.7%), 교육서비스(4.9%), 도매 및 소매업(4.0%) 순으로 증가

### 기업 창업 동향

창업기업 수 증감 추이




창업기업 업종 비중(2025. 4분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소비활동

## □ 소비 증가는 더디지만 소비자 및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점차 개선 중

- (소매점 판매) 2025.4분기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동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대형마트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더딘 소비 양상 시현

– 대형소매점과 대형마트 판매액 증감률은 동행 추세로, 2025.4분기 소비 감소 폭이 상당히 완화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전년동기비): △4.0%('25.2Q) → △5.2%('25.3Q) → △0.1%('25.4Q)

* 대형마트 불변지수(전년동기비): △3.9% → △8.1% → △2.7%

- (소비자 물가) 2025.4분기 생활물가지수는 연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며, 전국과 유사한 상승률 기록

– 식품 물가는 연중 3% 내외의 높은 상승률로 물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전·월세는 안정적 흐름

*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전국] 2.1%('25.2Q) → 2.0%('25.3Q) → 2.4%('25.4Q)
[경기] 2.2% → 2.0% → 2.5%

*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식품] 3.0%('25.2Q) → 3.3%('25.3Q) → 3.0%('25.4Q)
[식품 이외] 2.2% → 1.6% → 1.7%
[전월세] 0.9% → 0.9% →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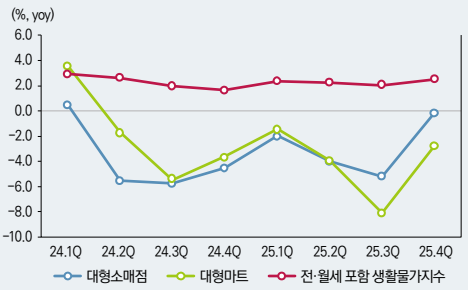
- (소비 체감) 2025.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낙관적인 수준(110)으로 점차 개선 중이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기 또한 2025.1분기부터 점차 개선되는 추세

* 소비자심리지수: 100.4('25.2Q) → 109.9('25.3Q) → 110('25.4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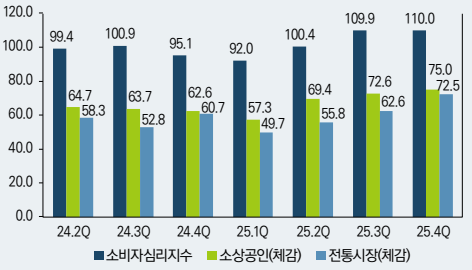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지수: [소상공인] 69.4('25.2Q) → 72.6('25.3Q) → 75('25.4Q)
[전통시장] 55.8 → 62.6 → 72.5

**소비활동 동향**

대형소매점/대형마트 판매액지수/생활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소비자심리지수/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지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시장

### □ SOC·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를 제외한 전반적 고용 지표의 정체 또는 악화

- (일자리) 2025.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는 SOC·서비스업(1.5%)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25.2%), 제조업(-3.7%)에서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0.1% 증가하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전체 임금근로자는 2025.4분기 631만 명 수준이며, 고용시장 수급 여건은 일정 수준 유지

  * 취업자 증감(천 명): [상용근로자] 29('25.2Q) → △58('25.3Q) → △32('25.4Q)
  [임시·일용근로자] 135 → 5 → △12

  * 구인배수: 0.40('25.2Q) → 0.41('25.3Q) → 0.40('25.4Q)

- (고용률·실업률) 2025.4분기 고용률은 63.4%로 2분기 이후 소폭 하락 중이며, 4분기 실업률은 2.9%로 연내 가장 높은 수준

- 2025.1분기 이후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다소 안정적이나 청년층 고용률이 지속 하락하여, 세대 간 고용 추이의 차이 부각

**고용시장 동향**

취업자 수

| 업종 (천 명, %, 전년동기비) | 2024 | 2025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7,732 (1.0) | 7,684 (1.7) | 7,881 (1.2) | 7,820 (-0.0) | 7,767 (0.1) | 7,788 (0.7) |
| 농림어업 | 160 (8.8) | 97 (-17.8) | 134 (-29.8) | 138 (-24.2) | 110 (-25.2) | 120 (-25.0) |
| 제조업 | 1,363 (-4.1) | 1,340 (-1.6) | 1,350 (-2.4) | 1,317 (-3.9) | 1,287 (-3.7) | 1,323 (-2.9) |
| SOC·서비스 | 6,209 (2.1) | 6,247 (2.8) | 6,397 (3.0) | 6,365 (1.5) | 6,371 (1.5) | 6,345 (2.2) |

고용률 및 실업률

| 구분 (연령, %) | | 2024 | 2025 |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고용률 | 64.1 | 63.2 | 64.7 | 64.0 | 63.4 | 63.8 |
| | 실업률 | 2.6 | 2.8 | 2.6 | 2.3 | 2.9 | 2.7 |
| 청년 고용률 (15~29세) | | 49.5 | 47.1 | 48.0 | 46.5 | 45.1 | 46.6 |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15~64세) | | 70.7 | 70.5 | 71.4 | 70.7 | 70.3 | 70.7 |

자료: 국가데이터처.

##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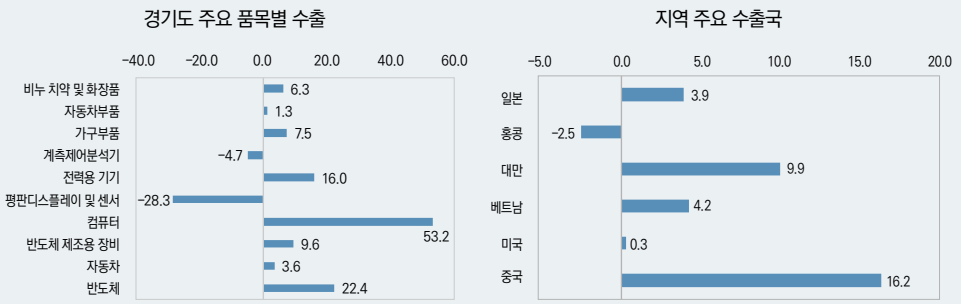
### □ 주력 품목 수출 호조, 견조한 해외직접투자(OFDI), 외국인투자(IFDI)는 다소 침체

- (수출)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수출이 급감하였으나 반도체, 컴퓨터 수출이 증가하면서 총수출은 전년동기비 21.6% 증가

- 전년동기비 반도체(22.4%), 컴퓨터(53.2%), 전력용 기기(16.0%)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특히 중국으로 16.2%, 대만으로 9.9% 수출 증가 폭이 뚜렷

**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2025.4분기 경기지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신규 법인 수 기준)는 214개사로 전년동기(173개사)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

- 4분기에는 특히 전년동기 대비 정보통신업(17개사)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5개사)의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전체의 78%인 167개사가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64%가 아시아향 투자를 진행

- (외국인투자) 2025.4분기 경기지역 외국인투자(최초 등록 기업 수 기준)는 77개사로 전년동기(99개사)비 22.2% 감소

- 중국,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5개국(45개사, 58.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미국(5개사, 6.5%)이 그 뒤를 이었으며, 주요 투자 업종은 무역, 도·소매업(42개사, 54.5%)이 대다수를 구성

## 주요 소식

- 미래차 부품 산업 거점(화성·평택)과 소프트웨어 거점(판교)을 토대로 '첨단자동차 밸류체인' 구축, 지역특화 프로젝트(중소벤처기업부)로 미래차 전환 지원, 친환경차 진입 지원 시행

- 제3전시장 준공 시 킨텍스는 총 17만㎡의 전시공간을 갖추어 마이스 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 기대

-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결과 95개사(21개국)의 바이어·투자사와 국내 기업 간 800여 건의 비즈니스 상담 진행 및 총 3,500억 원 규모 수출계약 추진 성과

백승민 |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044-287-3843 | sbaek@kiet.re.kr

# 강원특별자치도

- **(산업활동)** 산업생산 전반적 감소, 기업 심리도 업종에 상관없이 악화 국면
- **(소비활동)** 소비 회복세, 물가 상승세 속에 소상공인 경기 체감도는 비관적 국면 지속
- **(고용시장)**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고 고용 지표는 지속 악화하는 등 부진한 시장 상황
- **(대외거래)** 주력 품목 중심의 수출 증가, 해외직접투자 활동만 진행
- **(주요소식)** 연구개발특구 지정; 지방시대 벤처펀드 선정 등 첨단산업 육성 거점 구축 기틀 마련

## 산업활동

### □ (생산) 산업생산은 제조업 -2.5%, 서비스업 -0.4%로 동반 소폭 감소

- (제조업) 2025.4분기 기준 지역 전략 업종인 의료·정밀기기 생산 호조에도 불구하고, 비금속광물, 자동차(부품), 식료품 등의 부진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감소

- 의료기기(8.8%), 기타 기계 및 장비(27.7%) 등은 생산이 늘어났지만, 지역 내 비중이 훨씬 많은 비금속 광물(-12.7%), 식료품(-0.9%), 자동차(-13.0%) 업종 등의 부진이 감소 전환에 큰 영향

- (서비스업) 2025.4분기 기준 지역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증가했지만 관광 관련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의 부진으로 서비스업 전체 생산은 소폭 감소

- 보건 및 사회복지(5.1%)가 가장 크게 늘고 금융·보험업(3.3%), 도·소매업(2.6%)도 증가하였으나,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18.0%), 숙박 및 음식점업(-0.9%), 부동산업(-3.7%) 등이 부진

**산업생산 동향**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제조업 전체 | 1.8 | -5.9 | -6.6 | -0.6 | 5.1 | -7.2 | -2.5 |
| 식료품 | -6.6 | -4.3 | -3.6 | 3.7 | 6.0 | -0.9 | 1.3 |
| 비금속 광물제품 | 0.3 | -8.5 | -18.1 | -16.8 | -8.8 | -12.7 | -14.2 |
| 음료 제조업 | 4.7 | -3.3 | -8.3 | -0.6 | 0.7 | -15.4 | -6.0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1.1 | -8.1 | -6.8 | 6.1 | 14.1 | -13.0 | -0.5 |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 43.3 | -6.5 | -5.7 | 2.7 | 18.5 | 8.8 | 5.6 |
| 기타 기계 및 장비 | -5.4 | -10.0 | -8.7 | 13.2 | 3.6 | 27.7 | 8.7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0.8 | 9.5 | 7.9 | 12.9 | 29.3 | 1.6 | 12.8 |
| 금속 가공제품 | 6.7 | -26.2 | 4.0 | 5.4 | 39.8 | 10.7 | 13.2 |
| 전기장비 | 19.0 | -14.7 | -24.6 | -8.8 | 0.2 | -18.2 | -13.3 |

서비스업

| 서비스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서비스업 전체 | 1.1 | -0.6 | -0.5 | -1.5 | 1.1 | -0.6 | -0.4 |
| 도·소매업 | 2.6 | -2.9 | -1.2 | -0.9 | 2.4 | 2.6 | 0.8 |
| 금융·보험업 | 2.7 | -1.8 | -1.0 | 1.9 | 3.9 | 3.3 | 2.0 |
| 숙박 및 음식점업 | 0.7 | -2.5 | -2.1 | -0.2 | -3.2 | -0.9 | -1.7 |
| 보건 및 사회복지 | 3.4 | 2.6 | 2.9 | 3.0 | 5.5 | 5.1 | 4.1 |
| 교육서비스업 | -1.4 | -1.7 | -1.9 | 2.3 | 1.1 | 2.3 | 0.9 |
| 운수·창고업 | -1.9 | 0.8 | -0.9 | 1.0 | 5.6 | -0.5 | 1.4 |
| 부동산업 | 9.2 | -7.9 | 9.4 | 2.4 | -1.8 | -3.7 | 1.8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 -8.7 | 2.8 | -8.6 | -6.4 | 6.2 | 3.1 | -1.7 |
| 예술·스포츠·여가 | -2.1 | 16.6 | 4.1 | -25.8 | -11.7 | -18.0 | -15.7 |

자료: 국가데이터처.

## □ (기업 경기) 제조업 및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모두 악화

- (제조업) 2025.4분기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상반기 회복세 대비 대폭 하락(-5.7p)하며, 위축 국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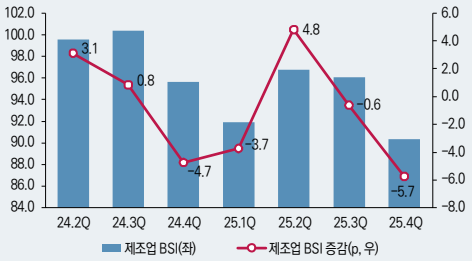
- 2025.4분기 제조업 기업 심리 악화는 생산(-2.0), 신규 수주(-1.7), 자금(-1.6) 부진에 기인

- (비제조업) 서비스업 기업심리지수는 2024.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반등(4.8p→7.7p)하며, 2025.3분기 91.1까지 상승하였으나, 4분기에 다시 감소(-3.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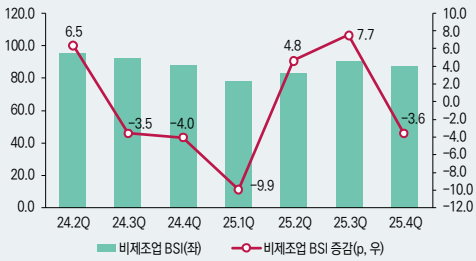
- 비제조업 기업 심리 악화에는 채산성(-1.0p), 자금(-0.9p), 매출(-0.9p), 업황(-0.8p) 부진이 영향

**기업 경기 동향**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분기 자료는 월별 자료를 단순 평균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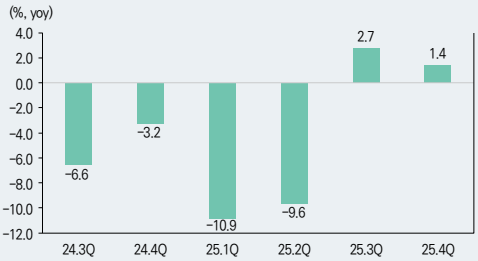
## □ (창업)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창업활동이나 서비스업에 집중

- 2025.4분기 기준, 강원의 창업기업은 지난 달의 반등을 잇지 못하고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국 감소 폭(-3.6%) 대비 1.4% 증가한 7,827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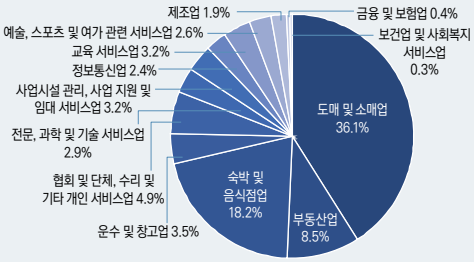
- 전체 창업기업 중 서비스업이 6,741개사(86.1%), 제조업이 145개사(1.9%)를 기록한 가운데, 서비스업 내에서는 도·소매업(36.1%), 숙박 및 음식점업(18.2%) 순

**기업 창업 동향**

창업기업 수 증감 추이




창업기업 업종 비중(2025. 4분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소비활동

## □ 소비 회복세, 물가 상승세 속에 소상공인 경기 체감도는 비관적 국면 지속

- (소매점 판매) 2025.4분기 대형소매점 판매는 2024.2분기부터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대형마트 판매는 소폭 증가로 전환

– 대형소매점, 대형마트 판매 모두 증가로 전환되거나 감소 폭이 줄어드는 등 소비 회복 흐름상에 위치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전년동기비): △8.2%('25.2Q) → △10.7%('25.3Q) → △2.9%('25.4Q)

* 대형마트 불변지수(전년동기비): 3.3% → △3.1%→0.3%

- (소비자 물가) 2025.4분기 생활물가지수는 연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며, 전국 수준을 상회

– 식품 물가는 연중 2.7% 내외의 높은 상승률로 물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전·월세는 안정적 흐름

*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전국] 2.1%('25.2Q) → 2.0%('25.3Q) → 2.4%('25.4Q)
[강원] 2.3% → 1.8% → 2.6%

*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식품] 2.5%('25.2Q) → 2.4%('25.3Q) → 2.9%('25.4Q)
[식품 이외] 2.3% → 1.6% → 2.7%
[전월세] 1.1% → 1.1%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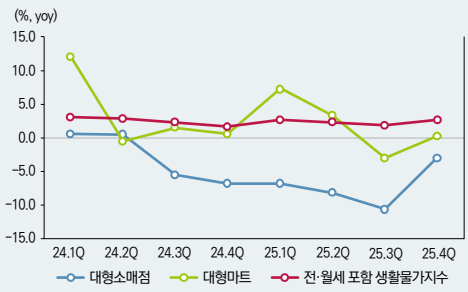
- (소비 체감) 2025.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낙관적 수준(108.8)에 도달한 반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기 체감도는 소폭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관적 국면에 머물러 있는 상황

* 소비자심리지수: 100.6('25.2Q) → 108.6('25.3Q) → 108.8('25.4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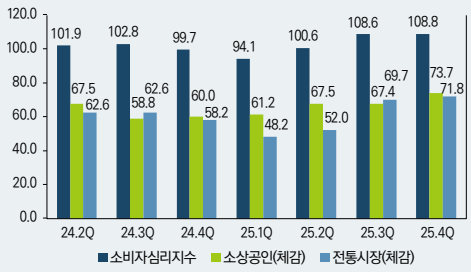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지수: [소상공인] 67.5('25.2Q) → 67.4('25.3Q) → 73.7('25.4Q)
[전통시장] 52.0 → 69.7 → 71.8

**소비활동 동향**

대형소매점/대형마트 판매액지수/생활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소비자심리지수/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지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시장

## □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고 고용 지표는 지속 악화하는 등 부진한 시장 상황

- (일자리) 2025.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감소(-13.3%)하였으나, 농림어업(16.7%) 및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0.9%)에서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1만 2,000명 증가

- 전체 임금근로자는 소폭 감소하였고, 구인 및 구직의 고용시장 수급 여건은 일정 수준 유지

  * 취업자 증감(천 명): [상용근로자] △2('25.2Q) → △8('25.3Q) → 7('25.4Q)
    [임시·일용근로자] 30 → 6 → △17

  * 구인배수: 0.46('25.2Q) → 0.42('25.3Q) → 0.44('25.4Q)

- (고용률·실업률) 2025.4분기 고용률은 64.3%로 3분기째 하락하고 실업률은 3.1%로 높은 수치

- 생산가능인구 및 청년층 고용률 또한 점차 하락 추세로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

**고용시장 동향**

취업자 수

| 업종 (천 명, %, 전년동기비) | 2024 | 2025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844 (0.4) | 799 (2.0) | 885 (1.5) | 882 (0.5) | 853 (1.4) | 855 (1.3) |
| 농림어업 | 82 (6.5) | 47 (6.8) | 106 (8.2) | 111 (7.8) | 98 (16.7) | 90 (9.8) |
| 제조업 | 59 (7.3) | 56 (-3.4) | 55 (-6.8) | 54 (-8.5) | 52 (-13.3) | 54 (-8.5) |
| SOC·서비스 | 699 (-0.9) | 690 (1.8) | 719 (1.1) | 713 (0.0) | 699 (0.9) | 705 (0.9) |

고용률 및 실업률

| 연령 (%) | | 2024 | 2025 |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고용률 | 63.5 | 60.2 | 66.7 | 66.5 | 64.3 | 64.4 |
| | 실업률 | 2.8 | 3.8 | 1.8 | 1.8 | 3.1 | 2.6 |
| 청년 고용률 (15~29세) | | 48.1 | 45.0 | 46.6 | 44.5 | 43.0 | 44.8 |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15~64세) | | 70.3 | 68.1 | 72.0 | 71.6 | 70.7 | 70.6 |

자료: 국가데이터처.

#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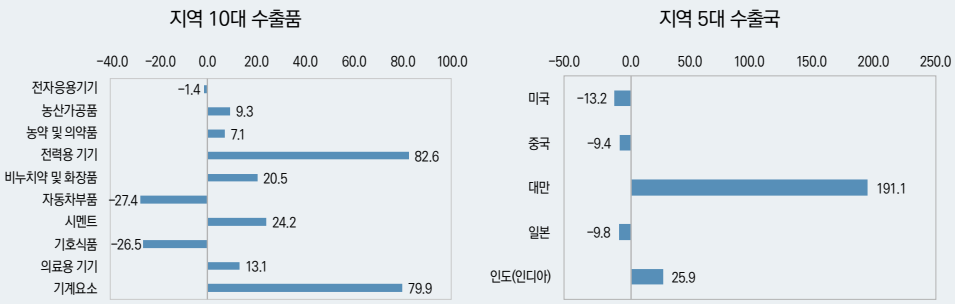
## □ 주력 품목 중심의 수출 증가, 해외직접투자 활동만 진행

- (수출) 2025.4분기 강원지역 수출은 전년동기비 6.0% 증가하였으며, 자동차부품(-27.4%) 및 기호식품(-26.5%)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력용 기기(82.6%), 기계요소(79.9%) 호조가 전체 수출 실적 주도

- 대만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으나(191.1%), 미국(-13.2%), 일본(-9.8%), 중국(-9.4%)에서 감소

**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2025.4분기 강원지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신규 법인 수 기준)는 8개사로 전년 동기(7개사) 대비 증가

– 현지시장 진출(6개사) 목적의 신규 설립이 가장 많았으며, 주로 아시아(4개사), 북미(2개사) 순이었고, 사업 지원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각각 2개사를 차지

- (외국인투자) 2025.4분기 강원지역으로 외국인투자(최초 등록 기업 수 기준)는 0개사

## 주요 소식

- 강원 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2025. 12. 22)으로 춘천(바이오 신소재)–원주(디지털 헬스케어)–강릉(반도체 소재·부품) 등을 잇는 '강원형 첨단산업 벨트' 내 혁신 거점으로서의 역할 기대
- 1,500억 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중소벤처기업부)' 선정으로 반도체, 바이오, 수소 등 7대 첨단산업 육성의 기틀 마련 및 본격 투자 확대
- 2025년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성과로서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의 통합 확정 및 도내 중점 첨단산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체계 안착

이영선 |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원 | 044-287-3254 | yslee@kiet.re.kr

# 충청북도

- **(산업활동)** 전기장비·전자부품 중심의 제조업 생산 증가세 확대 속 기업 심리 회복은 제한적
- **(소비활동)** 소비 심리 개선에도 업태별 소비 회복이 엇갈리며 체감 소비 회복은 제한적
- **(고용시장)**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으며, 고용률 둔화 속 청년층 고용 상황은 개선
- **(대외거래)** 자동차부품·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속 해외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외국인투자는 감소
- **(주요소식)** 바이오·뷰티 엑스포 성과; 이차전지·AI 산업 지원 등 첨단산업 기반 강화; 충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발의 추진

## 산업활동

### □ (생산) 산업생산은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완만한 성장세 시현

- (제조업) 2025.4분기 기준 전기장비와 전자부품 업종의 큰 폭 성장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 증가세 확대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36.9%), 전기장비(34.7%) 등 IT·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한 반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3.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7.9%), 식료품(-3.5%) 등은 감소

- (서비스업) 2025.4분기 기준 서비스업은 사업 지원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증가세에 힘입어 전체 생산이 소폭 증가

– 사업 지원서비스업(1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3%)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부동산업(-17.3%), 운수·창고업(-1.0%), 숙박 및 음식점업(-0.9%) 등의 감소로 서비스업 전반의 성장세는 제한적

**산업생산 동향**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제조업 전체 | -4.3 | -7.0 | 3.5 | 12.7 | 19.3 | 9.9 | 11.3 |
| 전기장비 | -0.3 | -39.1 | 15.4 | 57.6 | 0.3 | 34.7 | 25.1 |
| 전자부품 영상음향통신 | -7.4 | -5.6 | 5.7 | 29.4 | 76.0 | 36.9 | 35.8 |
| 식료품 | -6.8 | -1.1 | 0.9 | -2.2 | 3.7 | -3.5 | -0.4 |
| 화학제품 | -13.1 | 7.0 | -3.0 | -7.4 | -3.1 | -3.8 | -4.4 |
| 자동차 | 11.0 | -3.9 | -5.6 | -3.2 | 5.6 | 1.6 | -0.6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10.7 | -4.9 | 0.3 | 3.7 | 4.7 | -7.9 | 0.2 |
| 의약품 | 5.7 | 6.9 | 10.2 | 20.1 | 9.9 | 3.7 | 10.8 |
| 금속제품 | 3.6 | -4.8 | -7.6 | -16.2 | 4.2 | 8.9 | -3.6 |
| 기타 기계 및 장비 | -0.7 | -10.5 | 11.8 | -11.2 | 8.2 | -0.2 | 1.5 |

서비스업

| 서비스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서비스업 전체 | 1.3 | -0.7 | -0.5 | 0.2 | 3.6 | 1.0 | 1.1 |
| 도·소매업 | 0.9 | -1.6 | -2.0 | -0.2 | 4.7 | 4.4 | 1.8 |
| 금융·보험업 | 3.0 | 0.3 | 0.4 | 2.6 | 2.6 | 1.8 | 1.9 |
| 운수·창고업 | -1.4 | 2.7 | -1.9 | -1.4 | 1.2 | -1.0 | -0.8 |
| 숙박 및 음식점업 | -3.5 | -4.9 | -5.4 | -0.1 | 0.9 | -0.9 | -1.4 |
| 보건 및 사회복지 | 3.8 | 3.2 | 4.4 | 5.0 | 3.1 | 5.3 | 4.4 |
| 교육서비스업 | 0.8 | -0.9 | -3.0 | -0.4 | -0.8 | -2.1 | -1.7 |
| 사업 지원서비스업 | -6.9 | -8.1 | -0.9 | -0.5 | 11.0 | 12.9 | 5.4 |
| 부동산업 | 14.9 | 8.2 | 0.9 | -17.9 | -4.6 | -17.3 | -10.1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 -1.5 | -8.4 | -2.8 | 9.6 | 0.0 | 5.0 | 3.1 |

자료: 국가데이터처.

## □ (기업 경기) 제조업 기업 심리는 제한적 회복, 비제조업은 완만한 회복 흐름

- (제조업) 2025.4분기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전 분기 대비 하락하며(−1.7p) 회복 흐름이 다소 둔화

  − 2024.4분기 큰 폭의 하락 후 2025년 2~3분기 연속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이다가 2025.4분기 다시 하락한 가운데, 지수는 여전히 100 미만에 머물러 기업 체감경기는 전반적으로 위축 국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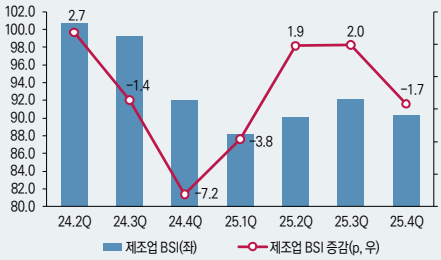
  − 제조업 기업 심리 하락에는 신규 수주 및 업황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비제조업)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2025.1분기 큰 폭의 하락 후 2025.2분기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후 등락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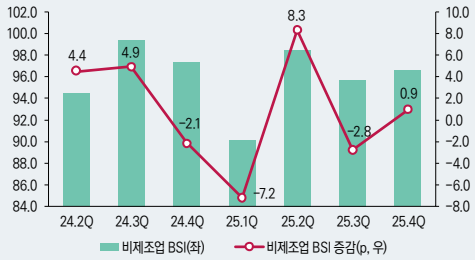
  − 2025.2분기 반등 이후 3분기 다시 하락(−2.8p)했으나 4분기 들어 소폭 상승(0.9p)했으며, 여기에는 도·소매 및 서비스 수요 회복 영향으로 일부 업황 개선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기업 경기 동향**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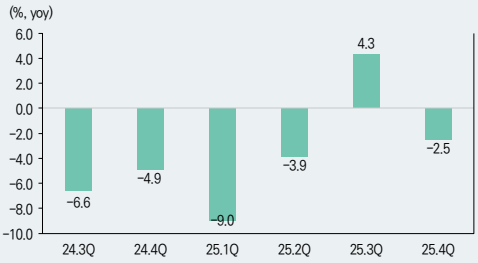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주: 분기 자료는 월별 자료를 단순 평균한 값임.

## □ (창업) 서비스업 중심 창업 구조 속 창업기업 수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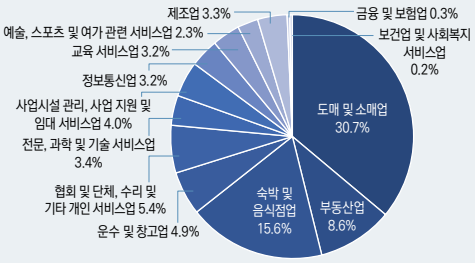
- 2025.4분기 기준 충북의 창업기업 수는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하며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전국 감소 폭 대비 완만한 수준

**기업 창업 동향**

창업기업 수 증감 추이




창업기업 업종 비중(2025. 4분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기업 수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5.3분기에 일시 반등했으나, 4분기 들어 다시 감소로 전환

• **창업기업 중 제조업 비중은 3.3%에 그친 반면,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서비스업 중심 창업 구조가 뚜렷**

- 서비스업 내에서는 도·소매업(30.7%) 비중이 가장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15.6%) 순

## 소비활동

### □ 소비 심리는 개선됐으나, 업태별 소비 회복세는 제한적

• **(소매점 판매) 2025.4분기 대형소매점 판매는 큰 폭의 증가로 전환된 반면, 대형마트 판매는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업태별 소비 흐름이 엇갈린 모습**

- 대형소매점은 감소에서 벗어나 반등한 반면, 대형마트는 감소세가 지속되며 소비 회복의 불균형 시현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전년동기비): △6.0%('25.2Q) → 0.6%('25.3Q) → 8.8%('25.4Q)

  * 대형마트 불변지수(전년동기비): △7.9% → △15.9% → △5.4%

• **(소비자 물가) 2025.4분기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2.4% 상승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 흐름 유지**

- 물가 상승률은 4분기 들어 확대되었으며 전국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2.1%('25.2Q) → 1.8%('25.3Q) → 2.4%('25.4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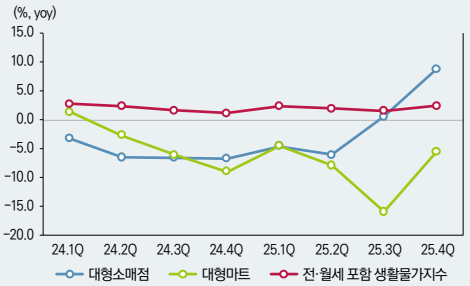
• **(소비 체감) 2025.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상승세가 이어져 기준선(100)을 상회하는 낙관적 수준에 도달했으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지수는 개선 흐름에도 여전히 기준선(100)을 크게 하회하며 부진한 체감경기 시현**

  * 소비자심리지수: 96.6('25.2Q) → 109.6('25.3Q) → 113.7('25.4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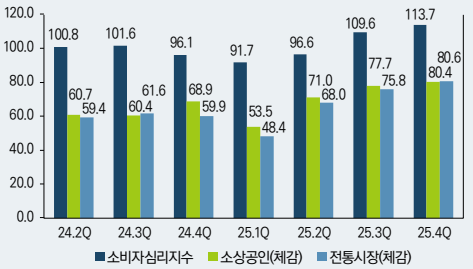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지수: [소상공인] 71.0('25.2Q) → 77.7('25.3Q) → 80.4('25.4Q)
  [전통시장] 68.0 → 75.8 → 80.6

**소비활동 동향**

대형소매점/대형마트 판매액지수/생활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소비자심리지수/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지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시장

## □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으며, 고용률 둔화 속 청년층 고용 상황은 개선

• (일자리) 2025.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가운데 업종별로 상이한 흐름

-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3만 4,000명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1.9%)과 제조업(-2.9%)은 감소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및 서비스업은 6.3% 증가

-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도 증가하며 고용 회복 흐름이 일부 나타났으나, 구인배수는 하락하며 노동시장 수급 여건은 다소 둔화된 모습

  * 취업자 증감(천 명): [상용근로자] 10('25.2Q) → 16('25.3Q) → 23('25.4Q)
  [임시·일용근로자] 7 → 4 → 12

  * 구인배수: 0.58('25.2Q) → 0.60('25.3Q) → 0.51('25.4Q)

• (고용률·실업률) 2025.4분기 고용률은 67.3%로 전기비 하락했으며, 실업률은 연간 수준 내에서 소폭 상승

- 다만, 전체 및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은 1%p 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청년 고용률은 2025.4분기 들어 전 분기보다 약 3%p 상승하는 모습

**고용시장 동향**

취업자 수

| 업종 (천 명, %, 전년동기비) | 2024 | 2025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951 (1.3) | 944 (2.4) | 988 (1.8) | 990 (2.9) | 981 (3.6) | 976 (2.6) |
| 농림어업 | 107 (0.9) | 99 (12.5) | 121 (3.4) | 121 (3.4) | 106 (-1.9) | 112 (4.7) |
| 제조업 | 200 (1.5) | 204 (4.6) | 202 (0.5) | 199 (-1.0) | 198 (-2.9) | 201 (0.5) |
| SOC·서비스 | 642 (1.1) | 640 (0.2) | 664 (1.7) | 669 (4.0) | 675 (6.3) | 662 (3.1) |

고용률 및 실업률

| 연령 (%) | | 2024 | 2025 |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고용률 | 65.9 | 65.2 | 68.1 | 68.1 | 67.3 | 67.2 |
| | 실업률 | 2.2 | 2.7 | 1.8 | 1.0 | 1.5 | 1.7 |
| 청년 고용률 (15~29세) | | 47.9 | 47.4 | 47.5 | 48.2 | 51.0 | 48.5 |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15~64세) | | 71.7 | 71.8 | 73.6 | 73.7 | 73.6 | 73.2 |

자료: 국가데이터처.

#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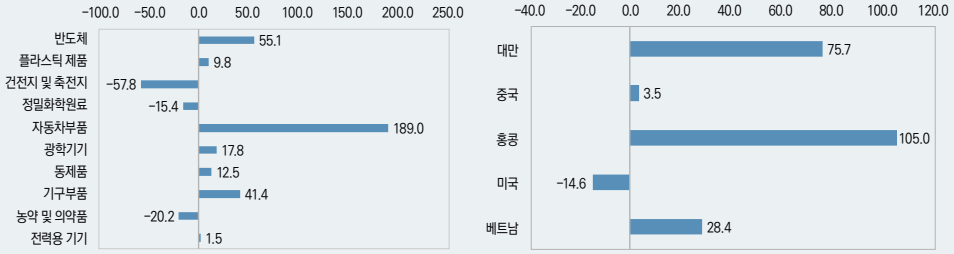
## □ 주력 제조업 품목 중심의 수출 증가세, 해외직접투자 활동이 활발

• (수출) 2025.4분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6.4%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품목별 실적은 차별화

- 자동차부품(189.0%), 반도체(55.1%) 등이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건전지 및 축전지(-57.8%), 농약 및 의약품(-20.2%), 정밀화학원료(-15.4%) 등은 감소하였고, 국가별로는 홍콩(105.0%)과 대만(75.7%)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미국(-14.6%)으로의 수출은 감소하는 등 수출시장 간 실적 차별화

**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2025.4분기 해외직접투자(신규 법인 수 기준)는 22개사로 전년동기(13개사) 대비 약 69% 증가

– 절반을 넘는 13개사가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며, 북미, 아시아향 투자가 각각 9개사, 8개사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투자기업이 12개사로 가장 높은 비중

- (외국인투자) 2025.4분기 외국인투자(최초 등록 기업 수 기준) 유입은 8개사로 전년동기비 11.1% 감소하였으나 2분기 4개사, 3분기 3개사보다는 늘어난 수준

– 아시아(6개사, 75.0%), 중남미(2개사, 25.0%) 순이며, 주요 투자 업종은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 주요 소식

-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 2025. 10. 20) 누적 관람객 136만 명을 기록하고 286개 기업이 참가하는 등 한방·천연물 산업의 국제 교류 및 수출 확대 성과 달성(수출협약 482억 원)
-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2025. 10. 27) 231개 기업과 48개국 493명의 바이어가 참여해 3,364억 원 규모의 상담과 372억 원의 현장 수출계약 성과 달성
-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성과적 종료, 2025. 11. 9) 10년간 282억 원 투자로 701억 원 회수(수익률 3.14배)를 기록하며 지역 창업·벤처기업 성장 지원 성과 창출
- (이차전지·AI 기반 산업혁신 추진, 2025. 12. 4) 이차전지 소부장 투자 지원 사업 선정 및 AI 전환 산업혁신 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충북특별자치도 법안 발의, 2026. 2. 19)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규제특례, 재정·행정 지원 등을 포함한 법안이 추진되며 지역 산업발전과 혁신성장 기반 마련 기대

최준석 |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 044-287-3176 | joons_choi@kiet.re.kr

# 충청남도

- **(산업활동)**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의 감소와 증가로 양분, 기업 심리는 악화, 서비스업 중심 창업활동
- **(소비활동)** 소비는 제한적 회복,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비관적 판단 지속
- **(고용시장)** 양적·질적 일자리 지표는 양호한 수준, 청년층 고용률 중심 소폭 하락
- **(대외거래)** 주력 품목 수출 호조,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는 도·소매업이 활발
- **(주요소식)** 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석유화학 재편 기업 지방세 감면;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건립; AX 실증산단 구축 추진

## 산업활동

### □ (생산) 제조업 생산은 소폭 감소, 서비스업 생산은 성장세

- (제조업) 2025.4분기 기준 석유정제, 기계·장비, 자동차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 1차 금속 등 과잉 공급 이슈가 제기된 업종 부진이 맞물려 제조업 전체 생산은 소폭 감소로 전환(-0.7%)

– 지역 생산 최고 비중인 전자부품의 증가세가 둔화(1.2%)하고, 산업위기 업종 지정이 검토되고 있는 화학제품(-1.5%), 1차 금속(-1.9%) 등과 식료품(-8.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7.7%)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

- (서비스업) 2025.4분기 기준 일상 소비형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과 부동산 침체로 인한 관련 업종 생산이 크게 줄었지만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전문 지식형 서비스 업종의 생산 호조로 전기에 이어 전년동기비 증가 지속

– 숙박 및 음식점업(-2.7%)이 부진하고 부동산업 생산이 급감(-10.9%)하였지만, 전문·과학·기술서비스(10.9%)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3%)의 증가세에 힘입어 서비스업 전체로는 0.8% 증가

**산업생산 동향**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제조업 전체 | -3.7 | 0.1 | 1.0 | -5.1 | 3.8 | -0.7 | -0.3 |
| 전자부품 영상음향통신 | -14.6 | 8.3 | 1.4 | -13.3 | 5.1 | 1.2 | -1.6 |
| 자동차 | 18.2 | -6.9 | 13.7 | -1.9 | 4.6 | 4.4 | 4.9 |
| 화학제품 | -8.5 | 0.6 | -1.8 | -5.1 | 5.8 | -1.5 | -0.7 |
| 1차 금속 | 4.3 | -3.4 | -9.2 | -1.0 | 3.0 | -1.9 | -2.4 |
| 석유정제품 | -2.5 | 3.2 | -2.8 | 4.2 | -1.0 | 6.0 | 1.5 |
| 기타 기계 및 장비 | -1.2 | 2.4 | 4.6 | -5.7 | 4.1 | 7.4 | 2.5 |
| 식료품 | 4.7 | 2.5 | -3.3 | -5.2 | -0.2 | -8.2 | -4.2 |
| 전기장비 | -9.2 | -32.0 | -33.8 | -25.9 | -1.1 | -2.3 | -17.5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2.9 | 8.5 | 4.9 | 9.6 | 2.6 | -7.7 | 2.2 |

서비스업

| 서비스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서비스업 전체 | 1.8 | -1.1 | -1.3 | -0.1 | 2.3 | 0.8 | 0.4 |
| 도·소매업 | 0.2 | -0.9 | -2.0 | -1.4 | 3.5 | 2.3 | 0.6 |
| 금융·보험업 | 3.1 | -2.3 | -1.6 | 1.0 | 0.9 | -0.2 | 0.1 |
| 운수·창고업 | -1.1 | -5.4 | -7.7 | -3.5 | -0.3 | -0.3 | -3.0 |
| 교육서비스업 | 2.4 | -3.1 | -3.4 | -2.5 | 2.0 | -0.7 | -1.2 |
| 보건 및 사회복지 | 3.0 | 4.4 | 5.4 | 4.3 | 4.7 | 6.3 | 5.2 |
| 숙박 및 음식점업 | -2.5 | -1.9 | -4.2 | -1.5 | -1.2 | -2.7 | -2.4 |
| 부동산업 | 3.0 | 5.7 | -10.1 | -26.3 | -11.8 | -10.9 | -14.8 |
| 시업 지원서비스업 | -0.6 | 1.4 | 6.1 | 4.5 | 1.1 | 0.4 | 2.9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 6.5 | -5.4 | 3.1 | 23.2 | 15.4 | 10.9 | 13.3 |

자료: 국가데이터처.

## □ (기업 경기)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기업 심리는 악화

- (제조업)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기준(100) 아래 90에서 횡보하는 등 위축 국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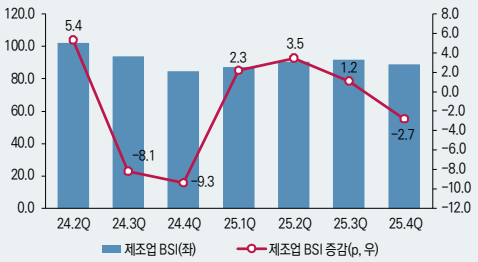
– 2024.3분기, 4분기 연속으로 제조업 기업 심리가 전기보다 악화한 가운데, 4분기에 기업 심리 악화의 회복이 더딘 것은 생산(-6.0p)과 신규 수주(-6.0p)의 영향이 지배적

- (비제조업) 서비스업 기업심리지수도 위축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5.4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크게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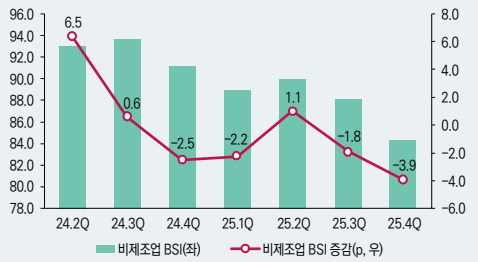
– 2025.4분기 기준 비제조업 기업 심리 악화에는 채산성(-2.2p), 자금 사정(-1.0p)이 크게 영향

### 기업 경기 동향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분기 자료는 월별 자료를 단순 평균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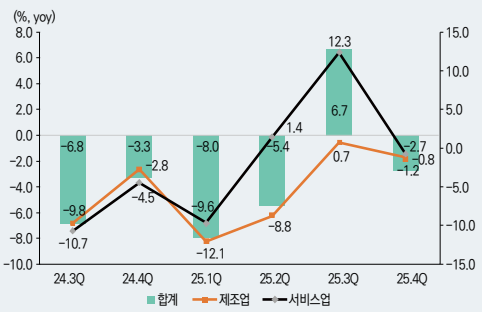
## □ (창업) 제조업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서비스업 중심 활발한 창업활동

- 2025.4분기 기준, 충남지역 창업기업 수는 전년동기비 감소로 전환하며 전국 감소 폭(-3.6%)보다는 작게(2.7%) 줄어든 1만 1,414개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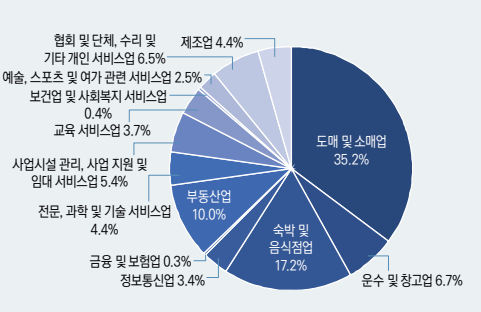
– 서비스업 비중이 79.8%(9,113개사)로 가장 높았으나, 제조업도 전국 수준보다 높은 4.4%(418개사)를 기록한 가운데, 도·소매업(35.2%), 숙박 및 음식점업(17.2%), 부동산업(10.0%) 순

### 기업 창업 동향

창업기업 수 증감률 추이




창업기업 업종 비중(2025. 4분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소비활동

## □ 소비는 제한적 회복,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비관적 판단 지속

- (소매점 판매) 2025.4분기 기준 소매점 판매액은 점포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증가와 감소로 혼조

–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동기 대비 소폭 증가로 전환(0.3%)한 가운데, 대형소매점은 그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 회복이 제한적인 상황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전년동기비): △4.7%('25.2Q) → △10.9%('25.3Q)→ △3.8%('25.4Q)

* 대형마트 불변지수(전년동기비): 3.3%→ △3.1%→ 0.3%

- (소비자 물가) 2025.4분기 생활물가지수는 연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며, 전국을 상회하는 상승률 기록

– 식품 물가는 연중 3% 내외의 높은 상승률로 물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전·월세는 안정적 흐름

*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전국] 2.1%('25.2Q) → 2.0%('25.3Q) → 2.4%('25.4Q)
[충남] 2.2% → 2.0% → 2.6%

*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식품] 3.4%('25.2Q) → 3.7%('25.3Q) → 3.5%('25.4Q)
[식품 이외] 1.7% → 1.2% → 2.4%
[전월세] 0.4% → 0.3%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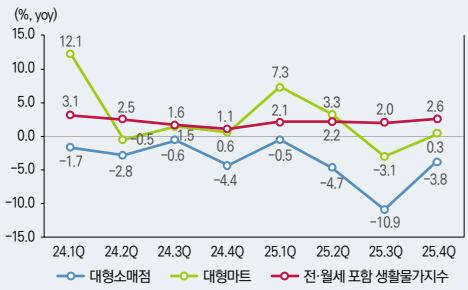
- (소비 체감) 2025.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낙관적인 수준(111.6)에 있으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기 체감도는 여전히 비관적 수준이 지속

* 소비자심리지수: 99.0('25.2Q) → 109.9('25.3Q) → 111.6('25.4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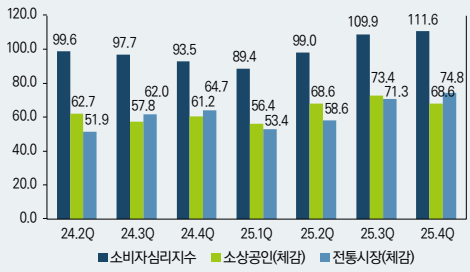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지수: [소상공인] 68.6('25.2Q) → 73.4('25.3Q) → 68.6('25.4Q)
[전통시장] 58.6 → 71.3 → 74.8

**소비활동 동향**

대형소매점/대형마트 판매액지수/생활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소비자심리지수/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지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중소벤처기업부.
주: 소비자심리지수는 대전·세종·충남 권역 통합지수를 사용

# 고용시장

## □ 양적·질적 일자리 지표는 양호한 수준, 청년층 고용률 중심 소폭 하락

- (일자리) 2025.4분기 취업자 수는 제조업(-7.0%)은 줄었으나, 비중이 큰 SOC·서비스(4.1%)의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서 전년동기비 증가 지속

- 기간에 상관없이 임금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구인배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시장 수급 여건은 전 분기보다 악화되었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0.41)보다는 양호한 수준

  * 취업자 증감(천 명): [상용근로자] 22('25.2Q) → 16('25.3Q) → 10('25.4Q)
    [임시·일용근로자] 21 → 18 → 8

  * 구인배수: 0.55('25.2Q) → 0.59('25.3Q) → 0.51('25.4Q)

- (고용률·실업률) 고용률은 소폭 하락했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높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 유지

- 고용률은 2025.4분기 65.7%로 3분기보다 하락했지만 전년 수준보다는 여전히 높은 가운데, 청년층 고용률이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

**고용시장 동향**

취업자 수

| 업종 (천 명, %, 전년동기비) | 2024 | 2025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1,264 (1.3) | 1,240 (4.6) | 1,323 (2.6) | 1,318 (1.9) | 1,306 (1.4) | 1,297 (2.6) |
| 농림어업 | 162 (-4.1) | 115 (4.5) | 162 (-13.8) | 171 (-8.6) | 164 (0.0) | 153 (-5.6) |
| 제조업 | 274 (0.7) | 283 (1.1) | 270 (-1.8) | 254 (-5.2) | 254 (-7.0) | 265 (-3.3) |
| SOC·서비스 | 828 (2.6) | 842 (5.9) | 890 (7.6) | 892 (6.4) | 887 (4.1) | 878 (6.0) |

고용률 및 실업률

| 연령 (%) | | 2024 | 2025 |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고용률 | 64.8 | 63.0 | 66.9 | 66.5 | 65.7 | 65.5 |
| | 실업률 | 2.9 | 3.7 | 2.8 | 2.2 | 2.2 | 2.7 |
| 청년 고용률 (15~29세) | | 44.2 | 47.2 | 47.6 | 46.1 | 44.6 | 46.4 |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15~64세) | | 70.3 | 70.0 | 72.5 | 71.8 | 71.7 | 71.5 |

자료: 국가데이터처.

#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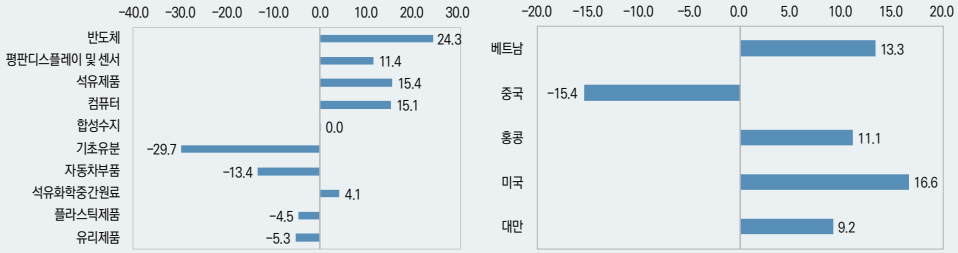
## □ 주력 품목 수출 호조,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는 도·소매업이 활발

- (수출) 2025.4분기 지역 수출은 전자제품류 품목들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기비 15.6%나 늘어난 가운데, 중국 이외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은 증가

- 반도체(24.3%), 평판디스플레이(11.4%), 컴퓨터(15.1%) 등 전자부품 및 제품이 지역 전체 수출을 견인한 가운데, 중국(-15.4%) 수출은 크게 줄어든 반면 베트남(13.3%) 등으로의 수출은 높은 신장세

**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2025.4분기 지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신규 법인 수 기준)는 22개사로 전년동기(11개사)보다 두 배 증가

– 해외직접투자 주요 업종은 제조업(12개사)이 지배적이었으며, 현지시장 진출(17개사)을 목적으로, 아시아(12개사) 투자가 높은 비중 차지

- (외국인투자) 2025.4분기 외국인투자(최초 등록 기업 수 기준)는 10개사가 유입되어 전년동기(12개사)보다는 줄어들었으며, 아시아에서 9개사가, 주로 도·소매업에 8개사가 각각 유입

## 주요 소식

- 충청남도는 충남형 기업 맞춤 지원사업 'BRIDGE-UP 프로그램'을 통해 충남 주력 6대 산업군의 기업 성장 과정에서 반복돼 온 기술 개발 이후 단절 문제를 해소
- 충청남도는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대산 1호)'를 승인함에 따라 대상 기업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 지원
- 태안군의 경우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충청남도, 국방과학연구소는 업무협약을 통해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건립 계획
- 천안시는 2028년까지 천안 스마트그린산단인 제2·3·4 일반산단을 거점으로 'AX 실증산단 구축 사업'을 추진

정윤선 |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044-287-3060 | market@kiet.re.kr

# 전북특별자치도

- **(산업활동)** 제조업 생산 감소와 서비스업 둔화로 전반적인 산업활동 약세, 기업 심리도 기준선 이하 위축 지속
- **(소비활동)** 대형소매점 판매 감소로 소비 회복 지연, 식품 중심 물가 상승 속에 체감경기 개선 제한적
- **(고용시장)** 농림어업·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로 전체 고용 둔화,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 등 고용 지표 부진
- **(대외거래)** 농기계·정밀화학원료·동제품 중심 수출 증가와 전북지역 외국인투자는 안정적 유지
- **(주요소식)** 새만금 현대차그룹 대규모 투자 추진; 상업용 부동산 공실 확대로 지역 상권 침체 우려

## 산업활동

### □ (생산) 산업생산에서 제조업은 큰 폭의 감소로 전환, 서비스업은 소폭 부진

- (제조업) 2025.4분기 기준 식료품, 화학제품, 자동차 등 지역 주력 업종의 생산 부진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감소로 전환

– 1차 금속(5.9%), 기타 기계 및 장비(22.1%) 등의 생산 실적이 견조했지만, 지역 제조업 내 비중이 가장 높은 식료품(–5.0%), 화학제품(–5.7%), 자동차 및 트레일러(–30.4%) 등의 생산이 크게 감소

- (서비스업) 2025.4분기 기준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의 감소로 서비스업 전체 생산은 소폭 감소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3%), 도·소매업(3.3%), 운수·창고업(3.5%) 등은 증가한 반면, 부동산업(–26.4%),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4.5%) 등이 감소

**산업생산 동향**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제조업 전체 | -6.6 | -1.8 | 0.2 | -1.9 | 1.9 | -6.6 | -6.3 |
| 식료품 | -7.1 | 3.9 | 1.5 | -0.3 | 2.9 | -5.0 | -0.3 |
| 화학제품 | -6.2 | 0.6 | -7.0 | -7.8 | -4.8 | -5.7 | -6.3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1.0 | 0.7 | 7.3 | -2.3 | -5.5 | -30.4 | -8.1 |
| 1차 금속 | -12.0 | -13.4 | 19.6 | 19.4 | 23.8 | 5.9 | 17.2 |
| 기타 기계 및 장비 | -14.4 | -11.9 | -1.7 | 2.5 | 26.8 | 22.1 | 11.7 |
| 금속 가공제품 | 1.2 | -7.7 | -6.4 | -5.8 | -7.7 | -22.7 | -11.0 |
| 비금속 광물제품 | -8.2 | -0.1 | -15.7 | -3.2 | 9.0 | -1.4 | -2.7 |
| 전기장비 | -21.6 | 1.5 | 14.2 | 10.7 | 5.7 | -13.1 | 3.9 |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 -8.2 | -0.1 | -15.7 | -3.2 | 9.0 | -1.4 | 5.9 |

서비스업

| 서비스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서비스업 전체 | 3.4 | -0.7 | -1.5 | -1.1 | 1.1 | -0.3 | -0.4 |
| 도·소매업 | -0.7 | -2.5 | -1.6 | -0.4 | 3.9 | 3.3 | 1.3 |
| 금융·보험업 | 3.5 | -4.4 | -4.6 | 0.2 | 0.0 | -1.4 | -1.5 |
| 교육서비스업 | 1.2 | -0.4 | -6.1 | -1.2 | 1.1 | 2.1 | -1.1 |
| 보건 및 사회복지 | 3.3 | 1.6 | -0.1 | 1.5 | 4.5 | 5.3 | 2.8 |
| 운수·창고업 | 13.9 | 7.7 | 7.9 | 3.6 | 7.3 | 3.5 | 5.4 |
| 숙박 및 음식점업 | -1.2 | -1.2 | -1.6 | 0.7 | -1.7 | 2.3 | 0.0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 -4.8 | 2.7 | 1.4 | 2.4 | -6.7 | 2.2 | -0.1 |
| 부동산업 | 11.9 | 0.8 | 1.2 | -19.4 | -11.1 | -26.4 | -14.5 |
| 타 개인 서비스업 | 19.7 | -5.0 | 7.1 | -0.6 | -3.0 | -0.7 | 0.4 |

자료: 국가데이터처.

## □ (기업 경기)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기준선(100)을 하회, 전반적 위축 흐름 지속

- (제조업) 2025.4분기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89.5로 전 분기 대비 1.5p 하락하며 기업 심리 위축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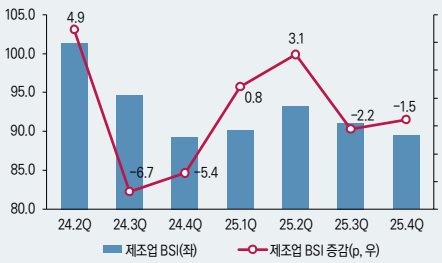
- 2025년 들어 1~2분기에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으나, 3~4분기에 다시 하락하며 경기 심리 회복 흐름이 제한적이며, 4분기 제조업 심리 악화에는 생산(-3.3p), 신규 수주(-3.0p), 자금 사정(-4.0p) 등이 큰 영향

- (비제조업)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2025.4분기 기준 82.0으로 전 분기 대비 1.0p 하락하며 제조업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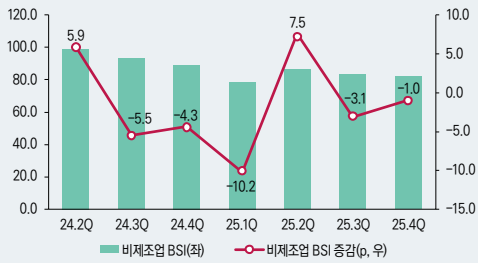
- 서비스업 경기 심리는 회복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2025.4분기의 하락에는 자금 사정(-2.7p)과 채산성(-2.0p) 지표가 기여

**기업 경기 동향**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분기 자료는 월별 자료를 단순 평균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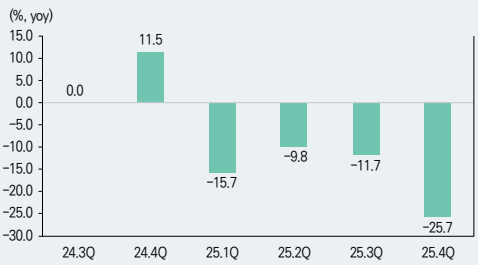
## □ (창업) 서비스업 중심 구조 속에서 창업기업은 최근 감소세 확대

- 2025.4분기 기준 전북의 창업기업 수는 전년동기비 -25.7% 감소하며 창업활동 위축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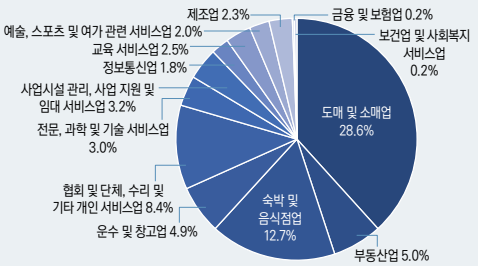
- 특히, 서비스업 창업이 16.2% 감소하며 전체 창업 감소를 주도한 가운데 제조업 창업도 5.2% 감소하며 전반적인 창업활동 둔화

**기업 창업 동향**

창업기업 수 증감 추이




창업기업 업종 비중(2025. 4분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도·소매업이 2,677개사(2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 1,185개사(12.7%),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85개사(8.4%) 순으로 창업활동이 활발

## 소비활동

### □ 소비 부진 지속, 물가 상승과 소상공인 체감경기 개선 흐름 병존

- **(소매점 판매) 2025.4분기 전북 대형소매점과 대형마트 판매 모두 전년동기비 감소 기록**

- 대형소매점 판매는 2024.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감소 흐름을 보이며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대형마트 판매는 변동성이 큰 가운데 부진이 이어지는 양상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전년동기비): △8.4%('25.2Q) → △14.9%('25.3Q) → △4.8%('25.4Q)

  * 대형마트 불변지수(전년동기비): △9.4% → △0.4%→ △0.3%

- **(소비자 물가) 2025.4분기 생활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식품 중심으로 생활물가 상승세 지속**

- 식품 물가는 연중 3% 내외의 높은 상승률로 물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전·월세는 안정적 흐름

  *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전국] 2.1%('25.2Q) → 2.0%('25.3Q) → 2.4%('25.4Q)
    [전북] 2.3% → 1.9% → 2.8%

  *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식품] 3.9%('25.2Q) → 3.7%('25.3Q) → 3.7%('25.4Q)
    [식품 이외] 1.5% → 1.0% → 2.6%
    [전월세] 0.9% → 0.8% →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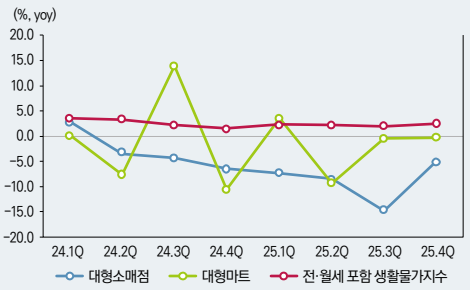
- **(소비 체감) 소비자심리는 2025.4분기 들어 크게 개선되어 낙관적인 수준(110.4)에 도달한 반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경기는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위축 국면에 위치**

  * 소비자심리지수: 95.3('25.2Q) → 110.0('25.3Q) → 110.4('25.4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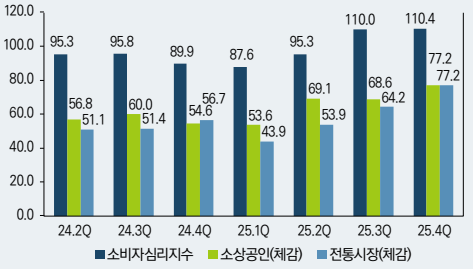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지수: [소상공인] 69.1('25.2Q) → 68.6('25.3Q) → 77.2('25.4Q)
    [전통시장] 53.9 → 64.2 → 77.2

**소비활동 동향**

대형소매점/대형마트 판매액지수/생활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소비자심리지수/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지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시장

## □ 취업자 소폭 감소 속에 실업률 상승으로 고용 지표 악화

• (일자리) 2025.4분기 서비스업 취업자가 늘었으나 농림어업(-11.2%)과 제조업(-4.6%)이 감소하여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

-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모두 감소한 가운데, 구인 및 구직의 고용시장 수급 여건은 다소 개선

  * 취업자 증감(천 명): [상용근로자] 11('25.2Q) → 3('25.3Q) → △11('25.4Q)
  [임시·일용근로자] 5 → 7 → △15

  * 구인배수: 0.51('25.2Q) → 0.52('25.3Q) → 0.54('25.4Q)

• (고용률·실업률) 2025.4분기 고용률은 62.8%로 전 분기 대비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3.5%로 전 분기 대비 상승하는 등 고용 지표가 악화 중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69.1%로 비교적 안정적이나, 청년 고용률은 38.5%로 저조

**고용시장 동향**

취업자 수

| 업종 (천 명, %, 전년동기비) | 2024 | 2025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988 (0.5) | 956 (-1.5) | 987 (-1.7) | 1,003 (0.0) | 971 (-0.1) | 979 (-0.9) |
| 농림어업 | 156 (-6.0) | 131 (-9.0) | 148 (-8.6) | 149 (-9.1) | 135 (-11.2) | 141 (-9.6) |
| 제조업 | 128 (0.0) | 127 (-0.8) | 134 (5.5) | 128 (1.6) | 124 (-4.6) | 128 (0.0) |
| SOC·서비스 | 704 (2.3) | 696 (-0.4) | 705 (-1.4) | 726 (2.1) | 711 (2.9) | 710 (0.9) |

고용률 및 실업률

| 연령 (%) | | 2024 | 2025 |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고용률 | 63.8 | 61.8 | 63.8 | 64.9 | 62.8 | 63.3 |
| | 실업률 | 2.5 | 3.3 | 2.5 | 1.7 | 3.5 | 2.8 |
| 청년 고용률 (15~29세) | | 38.0 | 37.5 | 37.0 | 38.9 | 38.5 | 38.0 |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15~64세) | | 68.7 | 67.4 | 68.8 | 69.7 | 69.1 | 68.8 |

자료: 국가데이터처.

#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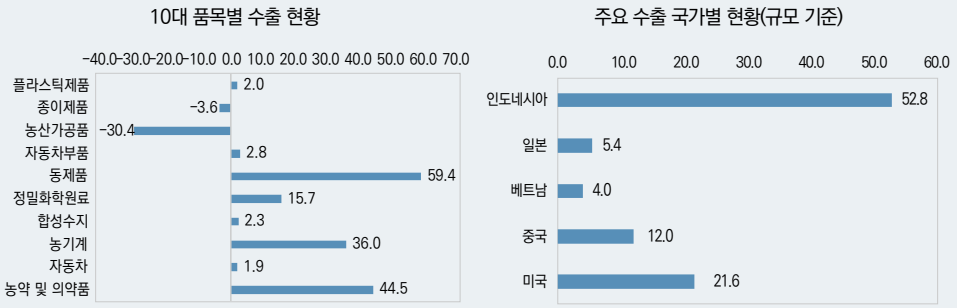
## □ 주력 품목 수출 확대,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투자 모두 안정적 흐름

• (수출) 2025.4분기 전북지역 수출은 농기계·정밀화학원료·동제품 등의 수출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

- 동제품(59.4%), 농약 및 의약품(44.5%), 농기계(36.%), 정밀화학원료(15.7%) 등 주력 품목 수출이 기여한 가운데,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52.8%)로의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

**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2025.4분기 전북지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신규 법인 수 기준)는 18개사로 전년 동기와 유사한 활동 수준

- 이 중 현지시장 진출(10개사), 제3국 진출(3개사)이 주요 목적으로, 주로 유럽(7개사), 북미(4개사) 등에 투자하였으며, 금융·보험업(14개사)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

- (외국인투자) 2025.4분기 전북지역으로의 외국인투자(최초 등록 기업 수 기준)는 11개사로 전년 동기와 동일하며, 전국(-13.4%)의 감소율 대비 양호

- 외국인투자 기업은 모두 아시아(11개사, 100%)로부터 이루어졌으며, 주요 투자 업종은 도·소매업(6개사, 54.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주요 소식

-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서 정부·전북특별자치도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부터 9조 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를 추진할 것을 밝힘.

- 전북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이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17.5%)으로 나타났고, 중대형 상가·집합상가도 공실 부담이 커지며 전주·군산·익산 주요 상권에서 공실 장기화 우려

배진원 |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 044-287-3832 | jbae@kiet.re.kr

# 전라남도

- **(산업활동)** 제조업, 서비스업 생산 감소로 지역 산업활동 전반적 둔화 및 창업 감소세 지속
- **(소비활동)** 소비 부진 속 소비자 심리는 낙관적 수준인 반면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각
- **(고용시장)** 전체 취업자 수 감소, 청년 고용 여건 악화 등 고용시장 불안 지속
- **(대외거래)** 주력 품목 수출 증가로 수출 실적 소폭 개선, 대중국 수출 부진, 해외직접투자 큰 폭의 증가
- **(주요소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통과; 수리조선업 발판 해경 정비창 준공; 고용 위기지역 지정 확대

## 산업활동

### □ (생산) 산업생산은 제조업 -5.3%, 서비스업 -0.7%로 감소세 지속

- (제조업) 2025.4분기 기준 석유정제품, 식료품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력 업종 전반에 걸친 부진으로 제조업 생산은 감소

– 지역 주력 업종 중 석유정제품(5.5%), 식료품(4.8%) 업종만 생산이 늘었고, 전기장비(-37.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16.9%), 비금속 광물제품(-11.4%) 업종 등은 부진

- (서비스업) 2025.4분기 기준 지역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생산 감소로 하락세 지속

– 보건 및 사회복지(4.0%), 도·소매업(3.6%), 운수·창고업(1.9%) 등은 생산 증가를 나타냈으나, 부동산업(-15.5%)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13.9%)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

**산업생산 동향**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제조업 전체 | -2.9 | 2.7 | -3.1 | -2.4 | -4.1 | -5.3 | -3.7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2.5 | 0.2 | -2.7 | -3.6 | -3.6 | -5.3 | -3.8 |
| 석유정제품 | -0.4 | 0.9 | -8.8 | -0.3 | -1.9 | 5.5 | -1.4 |
| 1차 금속 | -1.0 | -0.3 | -8.0 | 2.4 | 1.1 | -7.1 | -2.9 |
| 기타 운송장비 | -24.4 | 47.5 | 47.6 | -8.6 | -19.0 | -10.9 | -2.3 |
| 식료품 | 0.4 | 7.0 | 4.7 | 0.8 | 1.5 | 4.8 | 3.0 |
| 비금속 광물제품 | -9.7 | -7.7 | -7.0 | -10.3 | -9.5 | -11.4 | -9.8 |
| 금속 가공제품 | 13.0 | -2.4 | -1.2 | 6.7 | -8.3 | -9.1 | -3.3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18.9 | 2.0 | 4.7 | 1.8 | 1.4 | -16.9 | -2.8 |
| 전기장비 | -39.8 | 40.4 | -48.8 | -51.4 | -24.7 | -37.5 | -41.3 |

서비스업

| 서비스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서비스업 전체 | 1.1 | -0.8 | -1.5 | -0.6 | -1.0 | -0.7 | -0.9 |
| 도·소매업 | -2.2 | -2.1 | -2.2 | -1.7 | 3.1 | 3.6 | 0.7 |
| 금융·보험업 | 2.9 | -4.5 | -4.2 | -1.6 | -1.0 | 0.3 | -1.6 |
| 운수·창고업 | 1.2 | 3.3 | -3.0 | 0.2 | 0.4 | 1.9 | -0.1 |
| 보건 및 사회복지 | 1.8 | 2.9 | 2.3 | 3.3 | 0.7 | 4.0 | 2.6 |
| 숙박 및 음식점업 | -3.1 | -4.1 | -10.3 | -6.2 | -8.3 | -2.0 | -6.7 |
| 교육서비스업 | 1.5 | -4.1 | 1.5 | 0.8 | -0.9 | 0.0 | 0.3 |
| 부동산업 | 12.2 | 6.6 | 13.1 | 14.1 | -8.2 | -15.5 | 0.4 |
| 시설관리·지원·임대 | 4.7 | -1.6 | -0.3 | -7.5 | -2.0 | 1.5 | -2.2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 3.4 | 2.9 | -9.2 | -3.0 | 0.3 | -13.9 | -7.0 |

자료: 국가데이터처.

## □ (기업 경기) 제조업 기업 심리는 위축 지속, 비제조업은 소폭 개선

- (제조업) 2025.4분기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내수 부진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큰 폭의 하락 이후 위축 국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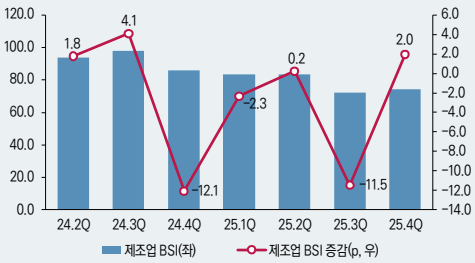
- 2025.4분기 제조업 기업 심리 개선에는 생산(2.9p), 제품 재고(2.0p) 순으로 기여하였으며, 업황(-1.4p) 및 자금 사정(-0.9p)은 3분기 대비 부진

- (비제조업) 서비스업 기업심리지수는 2025.1분기 80.2로 하락한 후 2분기 상승(11.0p), 3분기 하락(-4.9p)을 거쳐 2025.4분기 다시 상승(5.7p)한 92.0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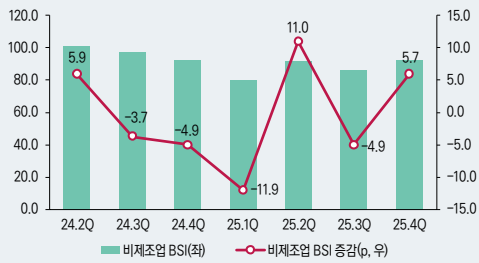
- 비제조업 기업 심리 상승에는 채산성(2.3p), 업황(1.5p), 자금 사정(1.5p) 순으로 기여

### 기업 경기 동향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분기 자료는 월별 자료를 단순 평균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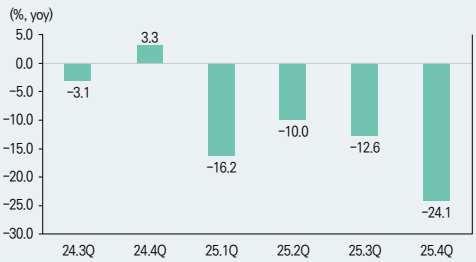
## □ (창업) 제조업 창업 부진으로 지역 창업기업 감소세

- 전남의 창업기업은 2025.1분기부터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5.4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24.1% 감소한 7,595개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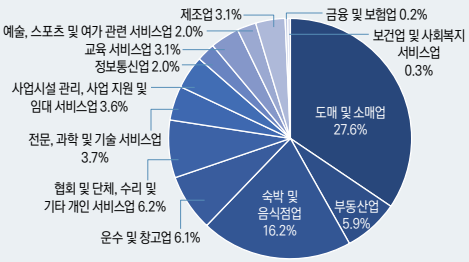
- 전체 창업기업 중 서비스업이 5,839개사(76.9%), 제조업이 239개사(3.1%)를 나타냈으며, 전년동기 대비 제조업, 서비스업 창업이 각각 24.4%, 8.8% 감소

### 기업 창업 동향

창업기업 수 증감 추이




창업기업 업종 비중(2025. 4분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소비활동

## □ 소비 부진 속 소비자 심리는 낙관적 수준인 반면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각

- (소매점 판매) 2025.4분기 대형소매점과 대형마트 판매의 동반 부진이 이어지며 지역 내 소비활동 침체 지속

– 대형소매점,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2025년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전년동기비): △8.5%('25.2Q) → △17.3%('25.3Q) → △9.8%('25.4Q)

* 대형마트 불변지수(전년동기비): △7.5% → △17.4% → △9.4%

- (소비자 물가) 2025.4분기 생활물가지수는 전국 상승률을 상회하며 연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식품 물가는 3% 이상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식품 이외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흐름

*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전국] 2.1%('25.2Q) → 2.0%('25.3Q) → 2.4%('25.4Q)
[전남] 2.1% → 1.9% → 2.6%

*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식품] 3.1%('25.2Q) → 3.4%('25.3Q) → 3.1%('25.4Q)
[식품 이외] 1.7% → 1.1% → 2.4%
[전월세] 0.5% → 0.5% →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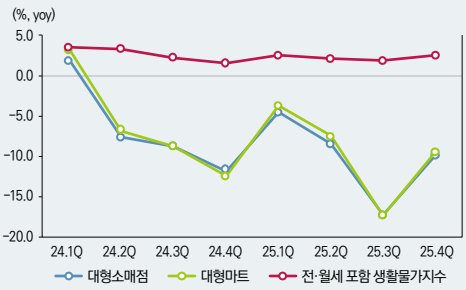
- (소비 체감) 2025.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 낙관적 수준(112.8)으로 연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기 체감도는 회복되는 흐름이나 여전히 위축 국면 지속

* 소비자심리지수: 94.0('25.2Q) → 111.3('25.3Q) → 112.8('25.4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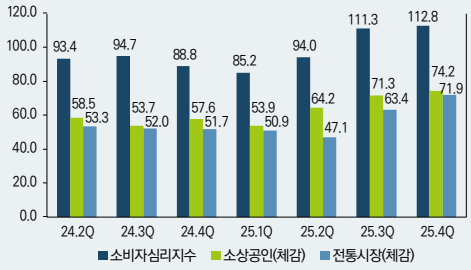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지수: [소상공인] 64.2('25.2Q) → 71.3('25.3Q) → 74.2('25.4Q)
[전통시장] 47.1 → 63.4 → 71.9

**소비활동 동향**

대형소매점/대형마트 판매액지수/생활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소비자심리지수/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지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중소벤처기업부.
주: 소비자심리지수는 광주·전남 권역 통합지수를 사용.

# 고용시장

## □ 전체 취업자 수 감소, 청년 고용률 악화로 지역 고용시장 불안 지속

- (일자리) 2025.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제조업(4.6%)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1.8%) 증가에도 농림어업 감소(-10.9%)로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6,000명 감소

- 전체 임금근로자는 1만 명 증가했으며, 구인 및 구직의 고용시장 수급 여건 개선

  * 취업자 증감(천 명): [상용근로자] △2('25.2Q) → 3('25.3Q) → 12('25.4Q)
    [임시·일용근로자] 5 → 4 → △2

  * 구인배수: 0.55('25.2Q) → 0.59('25.3Q) → 0.68('25.4Q)

- (고용률·실업률) 2025.4분기 고용률은 65.1%로 전 분기 대비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3.6%)하는 등 고용 지표는 악화

- 2025.2분기 이후 청년층 고용률 하락 추세로 2025.4분기 소폭 상승한 생산가능인구 고용률과 차별화

**고용시장 동향**

취업자 수

| 업종 (천 명, %, 전년동기비) | 2024 | 2025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1,004 (-1.5) | 982 (-0.9) | 1,012 (-0.5) | 1,005 (-0.7) | 991 (-0.6) | 997 (-0.7) |
| 농림어업 | 210 (-5.8) | 193 (-2.5) | 195 (-10.1) | 190 (-11.6) | 188 (-10.9) | 192 (-8.6) |
| 제조업 | 106 (3.9) | 107 (-1.8) | 110 (8.9) | 110 (5.8) | 114 (4.6) | 110 (3.8) |
| SOC·서비스 | 689 (-0.7) | 682 (-0.3) | 707 (1.1) | 705 (1.7) | 689 (1.8) | 696 (1.0) |

고용률 및 실업률

| 연령 (%) | | 2024 | 2025 |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고용률 | 66.1 | 64.6 | 66.6 | 66.1 | 65.1 | 65.6 |
| | 실업률 | 2.7 | 3.5 | 2.4 | 2.4 | 3.6 | 3.0 |
| 청년 고용률 (15~29세) | | 41.2 | 40.5 | 45.2 | 43.7 | 41.7 | 42.8 |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15~64세) | | 70.8 | 69.7 | 71.1 | 70.5 | 70.8 | 70.5 |

자료: 국가데이터처.

#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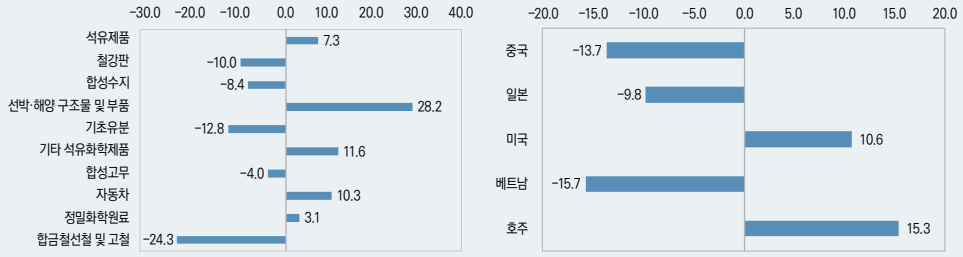
## □ 주력 품목 수출 증가로 수출 실적 소폭 개선, 대(對)중국 수출 부진, 해외직접투자는 큰 폭의 증가

- (수출) 2025.4분기 전남지역은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수출 실적 개선(28.2%)으로 전년동기비 0.7% 증가

- 기타 석유화학제품(11.6%), 자동차(10.3%) 등의 수출 증가에도 철강 원자재 수출 부진(-24.3%)이 두드러졌으며,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13.7%), 베트남(-15.7%)으로의 수출 감소

**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2025.4분기 전남지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신규 법인 수 기준)는 15개사로 전년동기(9개사)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 중 10개사가 현지시장 진출 목적

- 주요 투자 대상은 아시아(8개사)와 유럽(3개사), 북미(2개사) 등이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5개사),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업(각 3개사)이 주요 투자 업종

- (외국인투자) 2025.4분기 전남지역으로의 외국인투자(최초 등록 기업 수 기준)는 북미, 아시아 각각 1개사로 전년동기비 1개사 감소한 총 2개사

- 주요 투자 업종은 도·소매업(1개사)과 전기·가스업(1개사)으로 구성

## 주요 소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국회 통과(2026. 3. 1)로 인구 320만 명(전국 5위),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 원(전국 3위)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으로서 새로운 국가 핵심 성장축으로 도약 기대

- 목포 신항만 허사도 일원에 대형 함정 정비를 위한 최첨단 시설을 갖춘 해양경찰정비창 준공으로 지역 수리조선업 도약의 발판 마련 기대

- 여수 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연장 및 광양 신규 지정으로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최성웅 |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044-287-3067 | choisw6002@kiet.re.kr

# 경상북도

- **(산업활동)** 제조업 부진과 기업 심리 위축, 창업기업도 감소하는 등 경제가 침체 국면
- **(소비활동)** 높은 물가 수준과 소비 부진 지속, 소비자 심리는 긍정적이나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각
- **(고용시장)** 제조업과 SOC·서비스업 중심 고용의 양과 질 모두 개선, 치열한 취업 경쟁 속 낮은 청년 고용률
- **(대외거래)** 소재 품목 수출 부진이 전체 실적에 영향,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직접투자(OFDI) 활발
- **(주요소식)** AI·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방산 전문인력 양성 추진;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선정

## 산업활동

### □ (생산) 제조업 −1.3%, 서비스업 0.5%로 상반된 성장

- (제조업) 2025.4분기 기준 전자부품, 금속 가공제품, 식료품 외 업종에서는 전년동기 대비 부진하여 제조업 전체 생산은 감소

– 매출액 기준 지역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부품(6.6%)과 금속 가공제품(7.1%), 식료품(4.8%) 등이 증가했지만, 1차 금속(−9.7%), 자동차(−6.7%), 전기장비(−5.0%) 등의 부진이 커 제조업 전체가 감소

- (서비스업) 2025.4분기 기준 경북지역 서비스업은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성장에 힘입어 서비스업 전체로는 0.5% 생산 증가를 기록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업(2.0%)과 운수·창고업(1.7%), 숙박 및 음식점업(6.9%) 등의 성장세가 커서 금융·보험업(−1.3%), 부동산업(−14.1%) 등의 부진에도 서비스업 전체 생산은 소폭 증가

**산업생산 동향**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제조업 전체 | -4.4 | 0.8 | 0.2 | 4.4 | 2.8 | -1.3 | 1.4 |
| 전자부품, 컴퓨터 | -10.8 | 8.5 | 12.5 | 12.6 | 0.8 | 6.6 | 7.5 |
| 1차 금속 | 4.4 | -3.7 | -10.7 | 1.4 | -3.6 | -9.7 | -5.9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10.0 | 2.0 | -0.1 | -0.1 | -0.3 | -6.7 | -1.9 |
| 금속 가공제품 | -8.1 | 15.3 | 23.3 | 45.8 | 22.9 | 7.1 | 23.3 |
| 전기장비 | -8.3 | -11.8 | -6.8 | -7.2 | -0.1 | -5.0 | -4.8 |
| 기타 기계 및 장비 | -7.8 | -16.3 | -16.9 | 4.0 | 2.1 | -2.3 | -3.4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5.2 | -1.4 | -7.1 | -1.8 | -1.7 | -9.5 | -5.1 |
| 식료품 | -13.8 | 0.7 | -1.1 | 3.1 | 11.1 | 4.8 | 4.6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16.1 | -6.4 | -6.0 | -8.2 | -2.9 | -5.8 | -5.8 |

서비스업

| 서비스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서비스업 전체 | 3.0 | -1.0 | -2.8 | -0.9 | 1.3 | 0.5 | -0.5 |
| 도·소매업 | 0.7 | -3.0 | -2.9 | -1.8 | 2.9 | 2.0 | 0.0 |
| 금융·보험업 | 1.7 | -1.9 | -2.1 | 0.5 | 0.9 | -1.3 | -0.5 |
| 운수·창고업 | 17.3 | 3.1 | -5.6 | 2.1 | 4.1 | 1.7 | 0.6 |
| 숙박 및 음식점업 | 0.7 | -0.8 | -4.9 | -0.9 | 1.4 | 6.9 | 0.6 |
| 보건 및 사회복지 | 2.5 | 2.2 | -0.1 | -1.5 | 3.8 | 6.5 | 2.2 |
| 교육서비스업 | -1.3 | 0.1 | 1.6 | 0.4 | -1.8 | -0.7 | -0.1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 4.7 | -0.7 | 0.5 | 8.0 | 11.7 | 3.8 | 5.8 |
| 부동산업 | 10.3 | -11.8 | -13.2 | -17.6 | -20.2 | -14.1 | -16.2 |
| 시설관리·지원·임대 | 9.3 | -0.7 | 1.8 | 4.7 | 10.6 | 1.9 | 4.8 |

자료: 국가데이터처.

## □ (기업 경기)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기업 심리는 위축 국면 지속

- (제조업) 2025.4분기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6.5로 부정적 견해가 높으며, 2025.2분기 이후 악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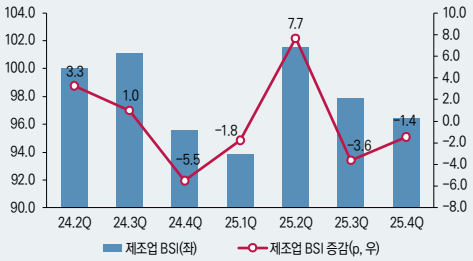
- 4분기 제조업 기업 심리는 제품 재고(101.7)를 제외하면 대부분 분야에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금 사정(-0.6p), 생산(-0.4p), 제품 재고(-0.4p) 등 순으로 전기 대비 부정적 인식 증대

- (비제조업) 2025.4분기 서비스업 기업심리지수는 85.9로 6분기 연속 100 이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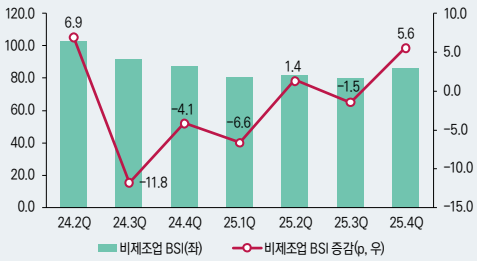
- 제조업에 비해 더욱 악화된 상황이나, 2025.1분기 80.4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기업 심리 상승에는 매출(1.7p), 채산성(1.5p), 자금 사정(1.3p), 업황(1.1p) 순으로 기여

### 기업 경기 동향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분기 자료는 월별 자료를 단순 평균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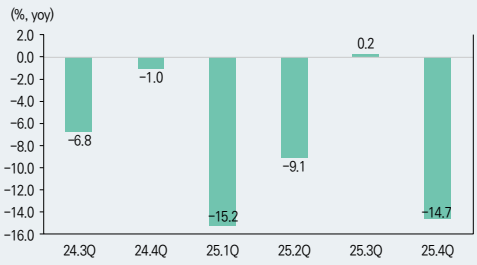
## □ (창업) 상대적으로 제조업 창업이 높지만, 전체 창업활동은 전국에 비해 부진

- 경북지역의 창업기업 증감률은 2025.4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크게 감소(-14.7%)한 1만 1,159개사를 기록하여 전국 감소 폭(-3.6%)을 크게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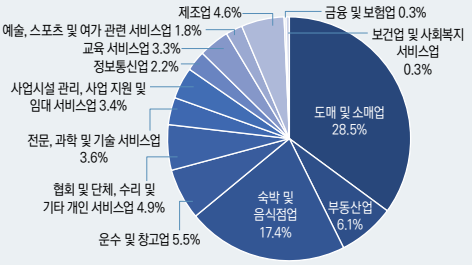
- 전체 창업기업 중 서비스업이 8,560개사(76.7%), 제조업이 511개사(4.6%)를 기록한 가운데, 서비스업 내에서는 도·소매업(28.5%), 숙박 및 음식점업(17.4%) 등이 큰 비중을 차지

### 기업 창업 동향

창업기업 수 증감 추이




창업기업 업종 비중(2025. 4분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경북 창업기업 중 서비스업 비중은 전국 대비 낮은 수준(전국 89.0%, 경북 76.7%)인 반면, 제조업 비중은 높은 수준(전국 2.9%, 경북 4.6%)으로 제조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소비활동

### □ 높은 물가 수준과 소비 부진 지속, 소비자 심리는 긍정적이나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각

- **(소매점 판매) 2025.4분기 기준, 대형소매점과 대형마트 판매는 동반 감소하며 소매 판매 부진 지속**

- 대형소매점과 대형마트 모두 전년동기 대비 감소 폭은 줄어들었으나 감소세 지속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전년동기비): △10.5%('25.2Q) → △14.5%('25.3Q) → △6.2%('25.4Q)

  * 대형마트 불변지수(전년동기비): △10.7% → △15.7% → △6.6%

- **(소비자 물가) 경북의 2025.4분기 생활물가지수는 2.6%로, 전국 기준(2.4%)을 상회**

- 식품 이외 물가는 0.9~2.2%로 안정적이며, 전·월세는 0%로 변동이 거의 없는 반면, 식품 물가는 연중 3~4% 내외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

  *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전국] 2.1%('25.2Q) → 2.0%('25.3Q) → 2.4%('25.4Q)
    [경북] 2.1% → 2.0% → 2.6%

  *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식품] 3.6%('25.2Q) → 4.0%('25.3Q) → 3.8%('25.4Q)
    [식품 이외] 1.4% → 0.9% → 2.2%
    [전월세] 0.1% → 0.1% →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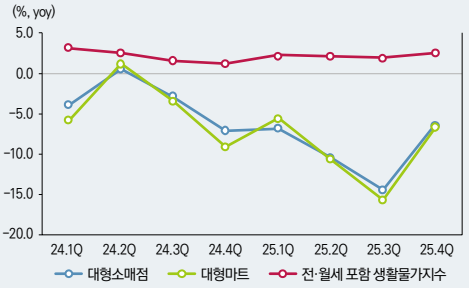
- **(소비 체감) 대구경북 2025.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106.4로 긍정적 견해가 더 높으며 최근 2년간 가장 높았으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기 체감도는 개선 흐름이나 비관적 수준에 위치**

  * 소비자심리지수: 98.9('25.2Q) → 105.9('25.3Q) → 106.4('25.4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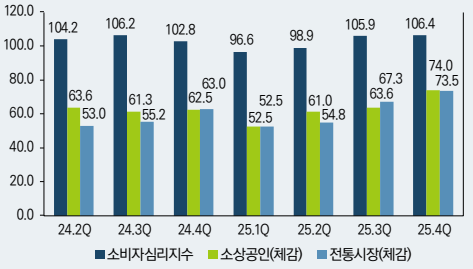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지수: [소상공인] 61.0('25.2Q) → 63.6('25.3Q) → 74.0('25.4Q)
    [전통시장] 54.8 → 67.3 → 73.5

**소비활동 동향**

대형소매점/대형마트 판매액지수/생활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소비자심리지수/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지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중소벤처기업부.
주: 소비자심리지수는 대구·경북 권역 통합지수를 사용.

## 고용시장

### □ 제조업과 SOC·서비스업 중심 고용의 양과 질 모두 개선, 치열한 취업 경쟁 속 낮은 청년 고용률

- (일자리) 2025.4분기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6.3%)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6.2%), SOC 및 서비스업(1.7%)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1만 4,000명 증가

- 상용근로자 수는 증가하고, 임시·일용직은 감소하는 등 고용의 양과 질 모두 개선되었으며, 구인배수(구인 인원/구직 건수)는 0.40~0.50 수준으로 전국 기준을 상회하며 취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

  * 취업자 증감(천 명): [상용근로자] 47('25.2Q) → 54('25.3Q) → 36('25.4Q)
    [임시·일용근로자] △17 → △14 → △6

  * 구인배수: [전국] 0.40('25.2Q) → 0.42('25.3Q) → 0.41('25.4Q)
    [경북] 0.48('25.2Q) → 0.50('25.3Q) → 0.49('25.4Q)

- (고용률·실업률) 2025.4분기 기준 고용률 64.6%, 실업률 2.6%로 2024년 대비 고용과 실업 모두 소폭 상승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70%대로 회복하였으나, 청년(15~29세) 고용률이 44.7% 수준으로 연령대 간 심각한 격차

**고용시장 동향**

취업자 수

| 업종 (천 명, %, 전년동기비) | 2024 | 2025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1,462 (0.0) | 1,431 (0.6) | 1,496 (0.7) | 1,514 (2.4) | 1,474 (1.0) | 1,479 (1.2) |
| 농림어업 | 273 (-4.2) | 249 (0.8) | 291 (1.4) | 288 (1.4) | 255 (-6.3) | 271 (-0.7) |
| 제조업 | 259 (-0.4) | 257 (-1.2) | 265 (3.1) | 262 (0.4) | 275 (6.2) | 265 (2.3) |
| SOC·서비스 | 930 (1.4) | 925 (0.9) | 939 (-0.1) | 963 (3.0) | 944 (1.7) | 943 (1.4) |

고용률 및 실업률

| 연령 (%) | | 2024 | 2025 |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고용률 | 64.0 | 62.7 | 65.5 | 66.3 | 64.6 | 64.8 |
| | 실업률 | 2.5 | 3.1 | 3.1 | 1.9 | 2.6 | 2.6 |
| 청년 고용률 (15~29세) | | 41.3 | 40.0 | 41.7 | 45.7 | 44.7 | 43.0 |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15~64세) | | 68.9 | 68.0 | 69.8 | 71.3 | 71.0 | 70.0 |

자료: 국가데이터처.

##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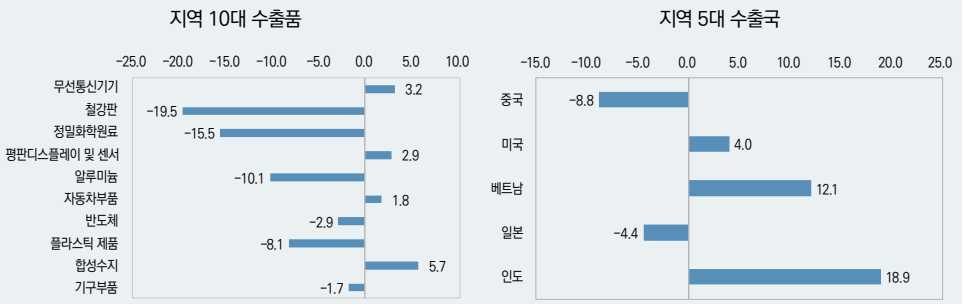
### □ 소재 품목의 수출 부진이 전체 실적에 영향,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직접투자(OFDI) 활발

- (수출) 2025.4분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4.6% 감소한 가운데, 철강판, 정밀화학원료, 알루미늄 등 소재 부문의 수출 부진에 기인

- 무선통신기기(3.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2.9%) 등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철강판 포함 소재 품목의 수출 부진이 컸고 무역 교류가 많은 중국(-8.8%), 일본(-4.4%)으로의 수출 규모는 감소

**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2025.4분기 경북지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신규 법인 수 기준)는 13개사로 전년동기(10개사)보다는 소폭 상승

- 이 중 현지시장 진출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목적 투자가 가장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5개사), 건설업(3개사) 순

- (외국인투자) 2025.4분기 외국인투자(최초 등록 기업 수 기준)는 4개사로 전년동기(5개사) 대비 감소

- 다만, 대부분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 식자재와 관련된 업체이며, 중동 기업은 중고차 수출 관련 기업으로 경북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는 연관성 미흡

## 주요 소식

- 경북은 AI·전략산업 중점대학 5개교를 선정, 전략산업 인재 양성 본격화

- 금오공대는 방산 AI 인재 양성 부트캠프로 선정, 방산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의성 마늘은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선정

김현우 |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 044-287-3285 | hwkim@kiet.re.kr

# 경상남도

- **(산업활동)** 견조한 산업생산 성장세, 제조업 경기 심리는 제한적 회복, 서비스업 중심 활발한 창업활동
- **(소비활동)** 소비 개선이 더디고, 큰 폭의 물가 상승세 속에 소상공인 경기 악화 체감도는 지속
- **(고용시장)** 건설 및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줄고 고용 지표가 악화하는 등 시장 상황은 부진
- **(대외거래)** 선박·항공 중심 수출 확대, 현지 시장 진출 목적의 해외직접투자 활발
- **(주요소식)** 첨단전략산업 대규모 투자 유치; 조선·방산 산업 글로벌 협력; AI 기반 제조혁신 정책; 남부내륙철도 착공

## 산업활동

### □ (생산) 산업생산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각 -6.4%, -0.9%로 모두 감소

- (제조업) 2025.4분기 기준 전자부품, 금속 가공제품의 생산 호조에도 불구, 대부분 주력 제조업의 생산 감소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6.4% 감소

– 전자부품(7.5%), 기타 운송장비(0.1%) 업종은 생산이 늘어났지만, 금속 가공제품(-10.2%), 1차 금속(-9.9%), 전기장비(-9.2%), 자동차 및 트레일러(-9.0%) 등은 부진

- (서비스업) 2025.4분기 기준 지역 서비스업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도·소매업 등이 회복하였으나, 정보통신업, 시설관리·지원·임대업의 하락세 확대로 전체 생산은 0.9% 감소

– 전문·과학·기술서비스(6.4%), 보건 및 사회복지(4.7%), 도·소매업(3.5%)의 순으로 생산이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업(-9.5%), 협회·단체·기타 개인(-5.4%), 시설관리·지원·임대(-2.0%) 순으로 생산이 감소

**산업생산 동향**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제조업 전체 | 3.1 | 5.6 | -0.5 | -1.1 | 1.7 | -6.4 | -1.7 |
| 기타 운송장비 | 16.7 | 23.5 | -3.0 | 3.2 | 7.5 | 0.1 | 1.9 |
| 기타 기계 및 장비 | -5.6 | -5.5 | -2.5 | 2.6 | 0.0 | -4.5 | -1.1 |
| 금속 가공제품 | -0.7 | 17.0 | 21.5 | 12.6 | 0.4 | -10.2 | 4.0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24.1 | 4.2 | 1.2 | -5.3 | 1.4 | -9.0 | -3.2 |
| 전기장비 | -0.2 | 2.8 | -6.1 | -14.0 | -1.5 | -9.2 | -7.8 |
| 1차 금속 | -3.0 | -5.7 | -5.3 | -4.9 | -1.0 | -9.9 | -5.2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0.8 | 4.3 | 2.6 | -2.7 | 2.0 | -7.9 | -1.6 |
| 식료품 | -2.0 | 2.5 | -3.6 | -1.1 | 1.6 | -4.7 | -1.9 |
| 전자부품 | -13.7 | 5.6 | -7.0 | 7.0 | 19.6 | 7.5 | 6.6 |

서비스업

| 서비스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서비스업 전체 | 1.1 | -2.4 | -3.0 | -2.8 | -0.5 | -0.9 | -1.8 |
| 도·소매업 | -1.3 | -2.6 | -1.8 | -0.9 | 4.5 | 3.5 | 1.4 |
| 보건 및 사회복지 | 2.3 | 2.6 | 1.7 | 3.9 | 2.9 | 4.7 | 3.2 |
| 시설관리·지원·임대 | 2.3 | 3.2 | -2.9 | -4.0 | -4.4 | -2.0 | -3.3 |
| 숙박 및 음식점업 | -3.7 | -0.6 | -2.7 | -1.2 | -0.3 | 0.0 | -1.0 |
| 금융·보험업 | 1.5 | -3.5 | -2.2 | 0.9 | 1.4 | -1.5 | -0.4 |
| 정보통신업 | -4.0 | 1.3 | -1.1 | -0.4 | -6.7 | -9.5 | -4.5 |
| 운수·창고업 | 4.5 | 2.5 | -0.5 | 0.0 | 7.7 | 1.2 | 2.1 |
| 협회, 단체, 기타 개인 | 4.8 | 0.6 | 2.3 | -2.2 | 3.1 | -5.4 | -0.7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 7.0 | -6.2 | 1.9 | -2.7 | 4.7 | 6.4 | 2.5 |

자료: 국가데이터처.

## □ (기업 경기) 제조업 기업 심리는 하락 폭 증가, 비제조업은 하락세로 전환

- (제조업) 2025.4분기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하락 폭이 증가하여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100 미만의 위축 국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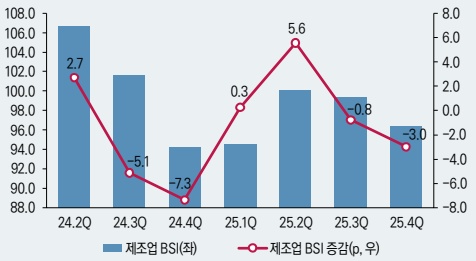
- 2025.4분기 제조업 기업 심리 하락에는 생산(-1.2p)과 신규 수주(-1.3p)가 큰 역할을 하였고, 업황(-0.5p), 자금 사정(-0.2p) 순으로 기여

- (비제조업) 서비스업 기업심리지수는 2025.1분기 95.1로 기준선 아래로 하락하였으며, 3분기에 반등(-3.3p → 7.9p) 후 2025.4분기에 소폭 감소(-0.8p)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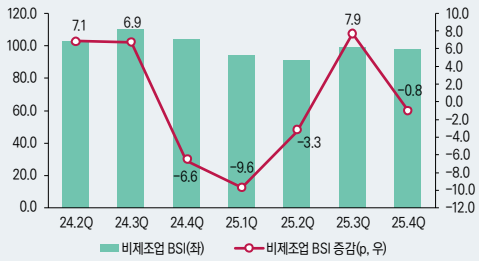
- 비제조업 기업 심리 악화는 업황(-0.7p), 매출(-0.2p) 부진에서 기인하였으며, 채산성(0.1p)은 소폭 반등

### 기업 경기 동향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분기 자료는 월별 자료를 단순 평균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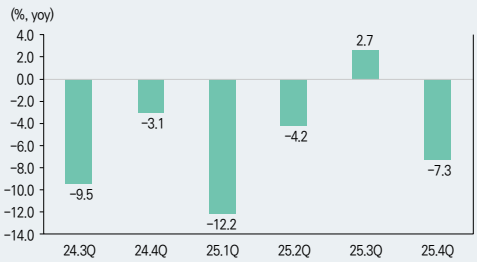
## □ (창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활발한 창업활동

- 2025.4분기 기준 창업기업 수는 전 분기의 증가세가 꺾여, 전국 감소율(-3.6%)보다 훨씬 큰 하락 폭(-7.3%)을 보이며 1만 3,698개사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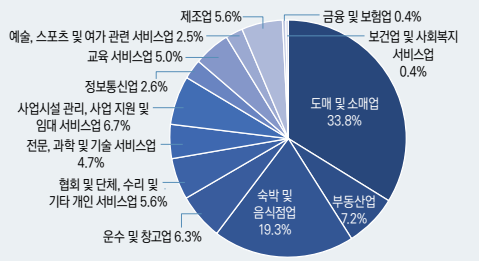
- 전체 창업기업 중 서비스업이 1만 1,272개사(82.3%), 제조업이 667개사(4.9%)를 기록한 가운데, 서비스업 내에서는 도·소매업(33.8%), 숙박 및 음식점업(19.3%), 부동산업(7.2%) 순

### 기업 창업 동향

창업기업 수 증감 추이




창업기업 업종 비중(2025. 4분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소비활동

## □ 소비 회복세는 제한적이나 체감경기는 점진적 개선, 생활물가 상승 압력 확대

- (소매점 판매) 2025.4분기 대형소매점 판매는 소폭 증가했지만 대형마트는 감소하여 소비 회복 흐름은 제한적

– 대형소매점 판매는 감소 폭이 점차 축소되다가 2025.4분기에 증가로 전환(0.7%)하며 회복 조짐을 보인 반면, 대형마트 판매는 감소세를 유지하며 소비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전년동기비): △4.1%('25.2Q) → △7.5%('25.3Q) → 0.7%('25.4Q)

* 대형마트 불변지수(전년동기비): △2.4% → △10.1% → △2.0%

- (소비자 물가) 2025.4분기 생활물가지수는 상승 폭이 확대되며 물가 부담이 다시 가중

–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024년 중 둔화 흐름을 보였으나 2025년 들어 점차 확대되며 2025.4분기에는 2% 후반 수준까지 상승

*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전국] 2.1%('25.2Q) → 2.0%('25.3Q) → 2.4%('25.4Q)
[경남] 2.2% → 2.3% → 2.9%

*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식품] 3.2%('25.2Q) → 3.8%('25.3Q) → 3.9%('25.4Q)
[식품 이외] 1.7% → 1.5% → 2.6%
[전월세] 0.4% → 0.5%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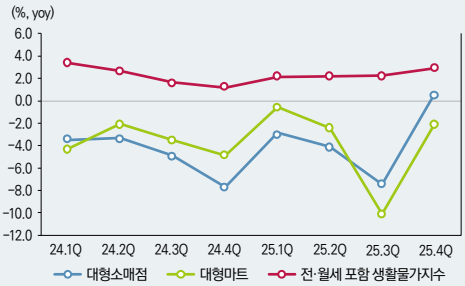
- (소비 체감) 2025.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낙관적 수준(114.0)을 유지하며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기 체감도는 악화 국면이나 개선 흐름 지속

* 소비자심리지수: 101.8('25.2Q) → 112.1('25.3Q) → 114.0('25.4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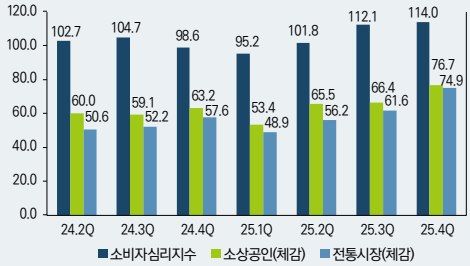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지수: [소상공인] 65.5('25.2Q) → 66.4('25.3Q) → 76.7('25.4Q)
[전통시장] 56.2 → 61.6 → 74.9

**소비활동 동향**

대형소매점/대형마트 판매액지수/생활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소비자심리지수/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지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시장

## □ 제조업·서비스업 고용 증가 영향으로 취업자 수는 증가세 유지, 고용시장 수급은 대체로 안정

- (일자리) 2025.4분기 취업자 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며 182만 5,000명 수준을 기록

–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고용 증가를 견인하였으며, 임시·일용근로자는 소폭 증가 추세

* 취업자 증감(천 명): [상용근로자] 6('25.2Q) → 23('25.3Q) → 43('25.4Q)
[임시·일용근로자] 12 → 8 → 8

* 구인배수: 0.51('25.2Q) → 0.52('25.3Q) → 0.51('25.4Q)

- (고용률·실업률) 2025.4분기 고용률은 64.1%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인 반면, 실업률은 2.1%로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청년 고용률은 2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세대 간 고용 격차는 일부 완화

**고용시장 동향**

취업자 수

| 업종 (천 명, %, 전년동기비) | 2024 | 2025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1,758 (-0.1) | 1,764 (1.3) | 1,798 (0.8) | 1,807 (2.8) | 1,825 (4.2) | 1,799 (2.3) |
| 농림어업 | 204 (-1.9) | 182 (-1.6) | 185 (-11.5) | 171 (-20.1) | 166 (-19.8) | 176 (-13.7) |
| 제조업 | 405 (8.9) | 419 (4.0) | 420 (3.7) | 434 (8.8) | 439 (5.8) | 428 (5.7) |
| SOC·서비스 | 1,148 (-2.6) | 1,163 (1.0) | 1,194 (2.2) | 1,203 (5.2) | 1,219 (7.9) | 1,195 (4.1) |

고용률 및 실업률

| 연령 (%) | | 2024 | 2025 |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고용률 | 62.1 | 62.3 | 63.3 | 63.6 | 64.1 | 63.3 |
| | 실업률 | 2.3 | 2.3 | 1.9 | 1.6 | 2.1 | 2.0 |
| 청년 고용률 (15~29세) | | 36.5 | 35.8 | 37.0 | 39.0 | 40.6 | 38.1 |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15~64세) | | 68.0 | 68.5 | 69.4 | 70.2 | 71.5 | 69.9 |

자료: 국가데이터처.

#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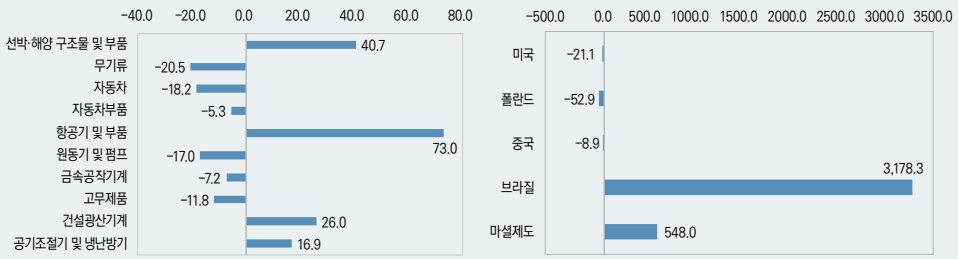
## □ 선박·항공 중심 수출 확대, 현지 시장 진출 목적의 해외직접투자 활발

- (수출) 2025.4분기 경남지역 수출은 조선·항공 등 주력 제조업의 수출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6.8% 증가

– 항공기 및 부품(73.0%),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40.7%), 건설광산기계(26.0%),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16.9%) 등의 실적 호조에 기인하며, 브라질(3,178.3%) 등 신흥시장 중심 수출 증가세

**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2025.4분기 경남지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신규 법인 수 기준)는 전 분기(40개사)보다는 큰 폭으로 줄었으나 전년동기(24개사)와 유사한 수준인 25개사

- 이 중 15개사가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아시아향 투자가 16개사에 달했으며, 제조업(11개사), 도·소매업(7개사)이 72% 투자 비중을 차지

- (외국인투자) 2025.4분기 경남지역으로의 외국인투자(최초 등록 기업 수 기준)는 9개사로 전년동기 7개사 대비 2개 기업이 증가하였으나, 3분기 연속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

  * (외국인투자) 11개사('25.1Q) → 12개사('25.2Q) → 19개사('25.3Q) → 9개사('25.4Q)

- 아시아가 7개사로 대부분을 차지, 유럽과 중동에서 각각 1개 기업이 투자하였으며, 도·소매업이 7개사, 농림어업과 제조 업종에서 각각 1개 기업이 투자

## 주요 소식

- 원자력, 우주항공, 방위산업,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약 3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 한화·HD현대 등 미국 조선산업 재건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면서 경남 조선산업 글로벌 협력 확대

- 1조 1,900억 원 규모 투자로 제조 AI 기술 개발, 데이터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5만여 제조기업 AX 지원 계획 발표

- 경북 김천~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174.6km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2026년 착공

김창모 |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 044-287-3258 | cmkim@kiet.re.kr

# 제주특별자치도

- **(산업활동)** 제조업·서비스업 모두 생산이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침체 상황, 기업 경기도 위축 국면 지속
- **(소비활동)** 소매 판매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소비 여건이 위축된 가운데 소비 체감은 다소 개선
- **(고용시장)** 제조업과 농림어업 중심 취업자 증가로 고용시장 개선 흐름
- **(대외거래)**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로 수출 증가세 유지, 외국인투자도 확대
- **(주요소식)** 디지털 트윈 플랫폼 도입; RISE 사업 고도화; 미래 모빌리티 투자 등 추진; 한국 비엠아이 투자

## 산업활동

### □ (생산) 제조업·서비스업 모두 생산이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침체 상황

- (제조업) 2025.4분기 기준 제주 제조업 생산은 의약품과 식료품 등 일부 업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수 업종 부진의 영향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감소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54.3%), 식료품(4.5%) 등은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46.4%), 금속 가공제품(-14.7%), 음료(-14.4%) 등 주요 업종의 부진이 제조업 생산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

- (서비스업) 2025.4분기 기준 제주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등은 양호하였으나 관광 관련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의 생산 부진이 커서 전체적으로 감소

– 운수·창고업(3.47%)과 교육서비스업(0.53%) 등은 증가하였으나, 부동산업(-4.92%), 정보통신업(-24.42%), 숙박 및 음식점업(-9.76%)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전체 생산은 감소

**산업생산 동향**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제조업 전체 | -2.7 | 0.1 | -2.6 | -6.3 | 2.1 | -1.8 | -2.2 |
| 식료품 | -4.4 | -3.3 | -1.1 | -2.9 | 9.2 | 4.5 | 2.3 |
| 음료 | -7.7 | 9.4 | -6.3 | -8.3 | -8.7 | -14.4 | -9.4 |
| 비금속광물 | 2.5 | -21.8 | -18.5 | -17.8 | -10.3 | -0.8 | -12.5 |
| 전자부품 | 69.4 | -31.7 | -26.9 | -5.8 | 39.2 | -12.1 | -3.5 |
| 금속 가공제품 | -21.4 | 1.2 | 17.5 | -26.3 | -29.3 | -14.7 | -16.4 |
| 화학제품 | -31.9 | 3.1 | -14.2 | 22.2 | -13.2 | -46.4 | -14.5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16.5 | -11.2 | 6.7 | 2.8 | -8.4 | -14.5 | -3.9 |
| 펄프 및 종이 | -15.2 | -18.4 | -4.5 | -20.7 | 7.3 | 2.6 | -1.0 |
| 의약품 | 12.3 | 22.4 | 31.4 | 2.3 | 41.7 | 54.3 | 32.0 |

서비스업

| 서비스업 생산 (%, 전년동기비) | 2023 | 2024 | 2025 | | | | |
|---|---|---|---|---|---|---|---|
| | 연간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서비스업 전체 | 0.4 | 4.2 | -2.7 | 4.0 | -2.0 | -2.4 | -5.4 |
| 도·소매업 | 0.3 | -2.3 | -3.4 | 3.5 | -1.1 | 2.7 | -0.6 |
| 금융·보험업 | 5.6 | -2.2 | -3.3 | 0.7 | -2.0 | 0.1 | -3.6 |
| 숙박 및 음식점업 | -6.5 | -2.5 | -17.0 | 25.7 | 10.7 | -9.8 | -1.4 |
| 보건 및 사회복지 | 5.3 | 3.8 | -1.5 | 0.9 | 2.9 | -0.3 | 0.6 |
| 부동산업 | 12.3 | 2.9 | 0.2 | -26.0 | -15.2 | -4.9 | -28.3 |
| 정보통신업 | -9.2 | 34.5 | 40.2 | -10.0 | -7.5 | -24.4 | -18.7 |
| 교육서비스업 | -3.6 | 1.8 | 3.8 | -1.6 | -0.9 | 0.5 | -1.7 |
| 운수·창고업 | 17.1 | 0.8 | -4.9 | 8.9 | -2.6 | 3.5 | 1.7 |
| 시설관리·지원·임대 | -11.4 | 17.6 | -14.5 | 3.8 | 4.4 | 1.8 | -8.4 |

자료: 국가데이터처.

## □ (기업 경기) 제조업 경기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부정적 인식 우세, 비제조업 경기는 소폭 둔화

- (제조업) 2025.4분기 제주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1.9로 전 분기 대비 2.7p 상승하였으나 기업 경기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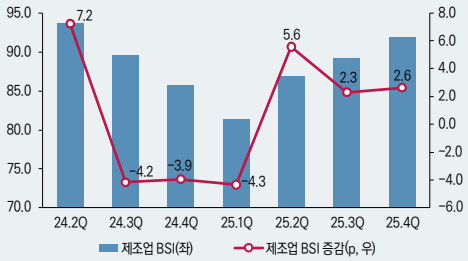
- 제조업 기업 심리 상승에는 자금 사정(1.3p)과 영업(0.9p), 신규 수주(0.7p) 개선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제품 재고(-0.2p)와 생산(-0.1p)은 소폭 감소하며 회복세를 일부 제한

- (비제조업) 제주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4.0으로 전 분기 대비 0.6p 하락하며 소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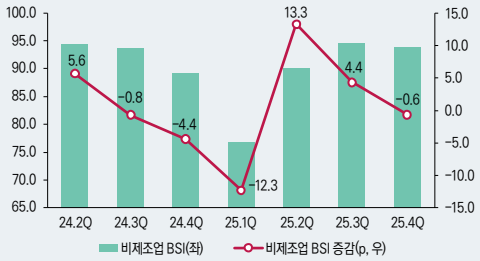
- 비제조업 기업 심리 하락에는 채산성(-1.3p)과 자금 사정(-0.4p), 영업(-0.3p) 부진이 영향을 미친 가운데, 매출(1.4p)은 증가하며 일부 완충 요인으로 작용

### 기업 경기 동향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 및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분기 자료는 월별 자료를 단순 평균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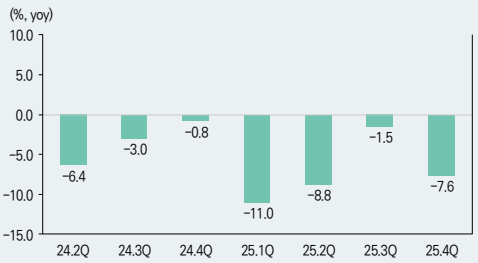
## □ (창업) 제주지역 창업기업 수는 서비스업 중심 구조 속 분기별 증감 반복

- 2025.4분기 제주 창업기업 수는 전 분기 대비 감소하며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서비스업 중심의 창업 구조는 유지되었으나, 전국 감소 폭(-3.6%)보다 큰 7.6% 감소로 4,042개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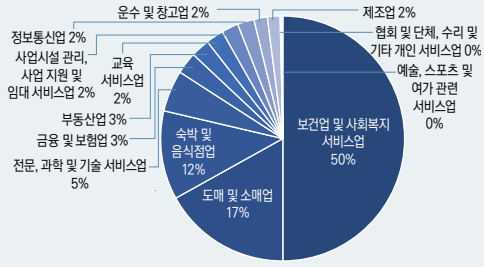
- 주요 업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520개사(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매업 1,190개사(17%), 숙박 및 음식점업 826개사(12%) 순

### 기업 창업 동향

창업기업 수 증감 추이




창업기업 업종 비중(2025. 4분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소비활동

## □ 소매 판매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소비 여건이 위축된 가운데 소비 체감은 다소 개선

- **(소매점 판매) 2025.4분기 제주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며 소비 위축 흐름 지속**

  * 대형소매점/대형마트 불변지수(전년동기비): △8.6%('25.2Q) → △8.1%('25.3Q) → △7.0%('25.4Q)

- **(소비자 물가) 2025.4분기 제주 생활물가지수는 상승 폭이 확대되며 전국과 유사한 흐름**

– 생활물가지수는 3.1% 상승하여 전 분기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되었으며, 식품(3.9%) 및 식품 외 품목(2.6%) 상승이 물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전월세 상승률은 0.4%로 안정적 흐름 유지

  *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전국] 2.1%('25.2Q) → 2.0%('25.3Q) → 2.4%('25.4Q)
    [제주] 2.1% → 2.1% → 2.7%

  * 생활물가지수(전년동기비): [식품] 3.3%('25.2Q) → 4.1%('25.3Q) → 3.9%('25.4Q)
    [식품 이외] 1.7% → 1.2% → 2.6%
    [전월세] 0.4% → 0.5% → 0.4%

- **(소비 체감) 2025.4분기 제주 소비자심리지수는 낙관적인 수준을 유지하며 소비 체감은 전반적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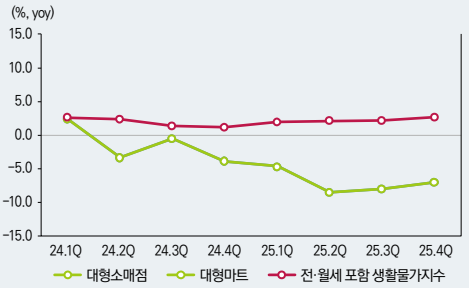
– 소비자심리지수는 105.8로 낙관적인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지수도 위축 국면이나 상승

  * 소비자심리지수: 95.5('25.2Q) → 107.5('25.3Q) → 105.8('25.4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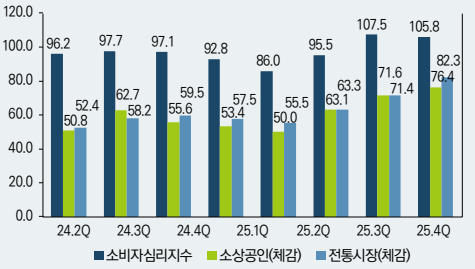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지수: [소상공인] 63.1('25.2Q) → 71.6('25.3Q) → 76.4('25.4Q)
    [전통시장] 63.3 → 71.4 → 82.3

**소비활동 동향**

대형소매점/대형마트 판매액지수/생활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소비자심리지수/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지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중소벤처기업부.
주: 제주지역은 대형소매점 통계에 포함되는 백화점이 없어, 대형소매점 판매지수가 대형마트 판매지수와 동일하게 나타남.

# 고용시장

## □ 제조업과 농림어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로 고용시장 개선 흐름

- (일자리) 2025.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제조업(30.8%)과 농림어업(2.0%)에서 증가한 반면, SOC·서비스업 증가 폭은 제한되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40만 6,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0.7% 증가

–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모두 늘어난 가운데, 노동시장 수급 상황은 소폭 악화

* 취업자 증감(천 명): [상용근로자] 3('25.2Q) → △2('25.3Q) → 2('25.4Q)
[임시·일용근로자] 5 → 5 → 7

* 구인배수: 0.33('25.2Q) → 0.36('25.3Q) → 0.33('25.4Q)

- (고용률·실업률) 2025.4분기 제주지역 고용률은 70.5%로 개선된 흐름을 보였으나, 실업률은 상승세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15~64세)은 76.2%로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가운데,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동반 상승

**고용시장 동향**

취업자 수

| 업종 (천 명, %, 전년동기비) | 2024 | 2025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400 (0) | 397 (-0.3) | 405 (2.0) | 403 (-0.5) | 406 (0.7) | 403 (1) |
| 농림어업 | 50 (-3.8) | 49 (-3.9) | 48 (-5.9) | 48 (-2.0) | 51 (2.0) | 49 (-2.0) |
| 제조업 | 13 (-13.3) | 13 (0) | 14 (7.7) | 15 (7.1) | 17 (30.8) | 15 (15.4) |
| SOC·서비스 | 337 (0.6) | 335 (-0.3) | 343 (1.2) | 340 (0.3) | 338 (0.9) | 339 (0.6) |

고용률 및 실업률

| 연령 (%) | | 2024 | 2025 | | | | |
|---|---|---|---|---|---|---|---|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전체 | 고용률 | 69.3 | 68.8 | 70.2 | 69.9 | 70.5 | 69.8 |
| | 실업률 | 2.3 | 2.4 | 2.0 | 1.5 | 2.8 | 2.2 |
| 청년 고용률 (15~29세) | | 42.1 | 40.8 | 42.6 | 43.6 | 45.2 | 43.1 |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15~64세) | | 74.7 | 73.9 | 74.7 | 74.4 | 76.2 | 74.8 |

자료: 국가데이터처.

#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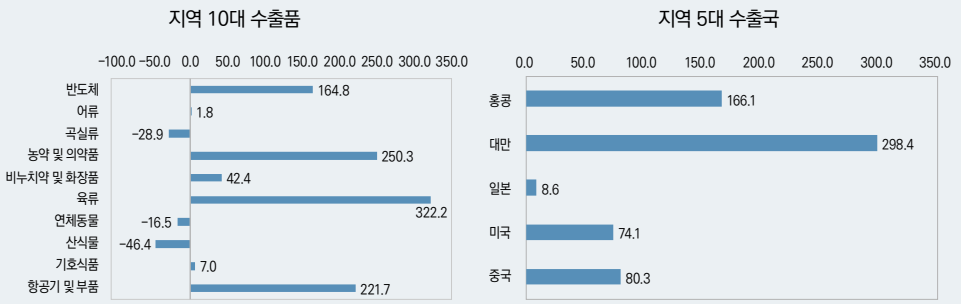
## □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 증가로 수출 증가세 유지, 대외 투자활동 활발

- (수출) 2025.4분기 제주지역 수출은 전년동기비 87.2%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와 농약 및 의약품 등 주력 품목 호조가 증가세를 견인

– 육류(322.2%), 농약 및 의약품(250.3%) 등이 증가한 반면, 곡실류(-28.9%), 산식물(-46.4%) 등은 감소한 가운데 국가별로는 대만(298.4%)과 홍콩(166.1%)으로의 수출이 증가

**지역 수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자료: 관세청.

- (해외직접투자) 2025.4분기 제주지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신규 법인 수 기준)는 20개사로 전년동기(8개사)보다 두 배나 늘어나는 등 활발한 활동

- 제3국 진출(16개사) 목적으로, 대양주(10개사)와 중남미(6개사)향 투자 비중이 높고, 운수·창고업이 16개사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과 사업 지원서비스업(각 2개사) 등 서비스업 중심 투자 분포 형성

- (외국인투자) 2025.4분기 제주지역 외국인투자(최초 등록 기업 수 기준)는 9개사로 전년동기비 80.0% 증가

- 아시아(7개사, 77.8%) 비중이 가장 높고, 북미(1개사, 11.1%), 기타 지역(1개사, 11.1%) 순이며, 주요 투자 업종은 도·소매업과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각 3개사, 33.3%) 순

## 주요 소식

-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 도입, UAM·재생에너지 등 핵심 정책 분야에 대한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활용할 계획

- 2026년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 고도화 차원으로 제주대 중심의 초광역 공유대학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

- 제주 상장 기업 육성펀드 2호를 통해 자율주행 기업 ㈜라이드플럭스에 20억 원을 투자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지원

- 한국비엠아이는 제주 첨단과학단지에 2028년까지 450억 원을 투자하여 신공장 증설 및 제조설비 구축을 추진

이수진 |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원 | 044-287-3839 | sj.lee@kiet.re.kr

KIET
# 산업 인사이트

2026년 3월호 통권 제3호

| | |
|---|---|
| 발행인 | 권남훈 |
| 편집인 | 이두희 |
| 발행일 | 2026년 3월 25일 |
| 발행처 | 산업연구원 |
| 등록 |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
| 주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br>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 홈페이지 | www.kiet.re.kr |
| 전화 | 044-287-3114 |
| 팩스 | 044-287-3333 |
| 구독문의 | 044-287-3146 |
| 디자인 | ㈜디자인집 |
| 조판 및 인쇄 | ㈜프리비 |

ISSN 3092-4448

「KIET 산업 인사이트」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산업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